

자미두수紫微斗數 고급반필기高級班筆記

허전인許銓仁 강수講授

증동학회同學 정리整理

2011/07/09

선천先天: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과因果가 이어지는

명命 → (본本)질質 → 선천 정수定數 → 생년사화상 → 공간

운運 → (잠潛)능能 → 후천 변수變數 → 비궁사화상, 자화 → 시간

논명論命: 먼저 생년사화상生年四化象과 래인궁來因宮을 보라

⊙공간에 상象이 있으면, 시간이 다다른다(길흉을 정하는 관건 點點은 시간에 있다)

즉 선천정수先天定數가 후천변수後天變數에 들어맞는다. 절입切入

자미두수: 상수학象數學, 질능수質能數; 사상思想의 유래는 역경易經에 기인한다.

논명時論命時에서 생시生時는, 당연히 출생한 곳의 시간, 즉 이른바 “시時가 땅에 떨어지면, 팔자八字의 명命이 된다.”

자시子時를 논단하려면, 만자시晩子時는 그날로 산算하므로, 곧 서력西曆과 방식이 같다.

두수斗數의 세 요소要素: 궁宮, 상象, 성星

(1)궁宮: 궁직宮職

(a)기본함의基本含義

(b)은밀하게 감춘 함의含義(각 궁위宮立에 태극太極을 세워 얻는다.)

(c) 하도河圖: 인생방향人生方向을 논단한다.

낙서洛書: 도화숙연桃花宿緣을 논단한다.

↑즉 이른바 “존재存在”, “존유存有”라는 설說

태극太極의 정의定義: 역易에 태극이 유有하여, 양의兩儀를 생生하고, 다시 사상四象을 생生하므로; 혼돈混沌하는 기氣가 되고, 주이복시周而復始라는 이념理念

을 포함하므로, 즉 태극太極은 본래 동動한다고 부른다.
 (공간空間이 “존재存在”하면, 시간時間이 “존유存有”한다.)

따라서 궁궁宮宮마다 모두 봄春 이며, 이 곳處의 봄春이 가리키는 것은 생기生機이다

(2)상象: 사화상四化象은 단상單象, 쌍상雙象 및 삼상三象으로 나뉜다.
 사화상四化象은 두수斗數의 “용신用神”이 되며, 그 중에서 생년사화生年四化는 체體이고, 비궁사화飛宮四化와 자화自化의 상象은 용用이다.

궁상宮象이 합일승一하면, 즉 길흉吉凶이 보인다.

(3)성星:(a)길흉吉凶은 없으며, 단지 성신星辰을 차용해서 어느 방方으로 도기導氣한다(이 곳은 사화상四化象을 용用하여 도기導氣한다).
 (b)성성星性이 있고, 성性は 유별有別하다(단지 성신星辰이 명궁命宮에 떨어지면, 명주命主의 개성個性으로 해석解釋한다).

자미두수 십자진결十字眞訣: 차간借干, 둔성遁星, 가상假象, 응지應支, 합시승時
 (1)차간借干, 둔성遁星, 가상假象: 가리키는 것은 “공간空間”이며, 즉 천간天干을 빌려 사화상四化象을 얻어, 궁상성宮象星의 해석解釋을 낳는다.
 (2)응지應支: 가리키는 것은 “유년流年”이며, 즉 이른바 “응수應數”이다.
 (3)합시승時: 가리키는 것은 “유월流月”이며, 즉 이른바 “재수在數”이다.

궁宮, 상象, 성星은 반드시 인人, 사事, 물物(재財)에 의거해서 해석解釋하며, 그 래야 비로소 완전完整하게 이해理解할 수 있다.

機	紫②		破
殺	有得吉, 科入		己 子
陽梁① 癸			府廉 大命 夫
相武④ 壬	巨同	左③貪	陰
	癸	壬 命	
D	B	C	

명궁命宮에 생년과生年科가 있으며, 따라서 나머지 십일궁十一宮의 자화과自化科는 모두 “과입科入”으로 치며, 득길得吉이다.

명명이 도화桃花(자녀궁子女宮에 과입科入한 까닭)를 띠는 것을 나타내며, 소아과의사小兒科醫師를 맡게 된다.

2011/07/15

궁宮, 象象, 星星을 해석解釋하는 순서次序는, 먼저 “궁상합일宮象合一”로서 풀이하고, 다시 성신星辰을 배합配合한다.

성星: 性性이며, 성性은 유별有別하고, “명궁命宮이 떨어지면 개성個性을 직론直論할 수 있음” 가리키며, 그런 후에 “어느 방方으로 도기導氣하는가”로서 길흉吉凶을 논論한다.

성성星性은 반드시 사물행업事物行業, 질병증상疾厄症狀과 도화논술桃花論述에 따라 구별區別해야 한다.

궁宮: 宮職이며, 해당 궁이 맡은 직이 무엇인가, 직職: 職能, 職稱, 혹은 범위範圍를 논論한다.

象象: 象象, 상수象數, 수數: 生數(1, 2, 3, 4; 5낙중落中), 성수成數(6, 7, 8, 9; 10중落中)로 나뉜다.

생수生數와 명궁命宮의 관계: 緣份을 대표하며, 즉 선천先天에서 데리고 나온 정수定數

성수成數와 후천後天 자아自我의 작위作爲는 유관有關하다.

예例: 疾厄宮: 신身이 있는 명命; 命宮: 생생이 있는 명命

⊙연업緣業은 본래 상생相生이며, 대전제大前提는 유연有緣이면 곧 결혼結婚하게 되지만, 단 緣이 양호良緣할 가능성이 있으면, 즉 “緣은 농濃하지만 業은 輕히 여기고”, 악연惡緣일 가능성이 있으면, 즉 “緣은 박薄하지만 業은 重히 여긴다.”

게다가 이른바 부처夫妻는 緣이며, 무연無緣이면 짝이 되지 못한다.

부자父子는 債이며, 債가 없으면 오지 않는다.

단명斷命의 요령要領: 첫 번째 문제問題: 당신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즉 어떤 行業行業 혹은 직업職業에 종사하는가?)

질문을 하는 목적目的: 계기契機를 잡고, 이미 있는(이유已有) 기초 상에서 논命論命을 진행한다.

십이궁十二宮 궁직宮職에 있는 함의含義

명 궁命 宮: 이 한 평생의 소유所有 일체一切, 영고기복起伏榮枯; 인식자아認識自我(이성理性적인 나), 개성個性, 재능才華, 성향性向, 직업적성職業適性(성향性向과 직업적성職業適性是 연관連貫이 있는 특성特性), 인생계획生涯規劃

명 궁命 宮: 후천격국後天格局의 고저高低;

생년사화生年四化: 선천격국先天格局의 고저高低

명 궁命 宮: 상모궁相貌宮(외모), “개성個性이 그렇게 된 사연使然” 때문

부모궁父母宮: 면모궁面貌宮, “오관운곽五官輪廓”은, 부모父母의 유전遺傳과 유관有關 함을 가리킨다.

형제궁兄弟宮: 형제자매兄弟姊妹 격국格局의 고저, 형제자매兄弟姊妹와 더부는 연분緣份의 후박厚薄(논명시論命時의 중점重點), “사립학교私立學校”, “사립단체私人機構”과 “직영도매直銷” 등등等等을 대표

부처궁夫妻宮: 개인個人的 결혼관婚姻觀 및 배우자配偶的의 특질特質, 선천연분先天緣份의 후박厚薄을 논술, 혼후婚後의 대대對待를 논술(논명시論命時 중점重點)

자녀궁子女宮: 자녀子女와 더부는 연분緣份의 후박厚薄, 자녀子女의 유무有無, 학생연學生緣의 궁위宮位, 도화궁桃花宮: 도화운桃花運의 유무有無, 이것은 양성良性 혹은 악성惡性인 도화桃花인가, 합작위승夥位(노복궁奴僕宮의 관록宮官祿宮), 의외궁意外宮(자자, 질병의 교역交易 혹은 자자, 천遷의 교역시交易時)

명대도화命帶桃花: “호好”를 대표代表하며, “비교적比較 우위便宜를 점하기” 때문, “이 한 평생 깊이 갖춘 이성연異性緣”

재백궁財帛宮: 돈 버는 기회機會의 좋고 나쁨好壞; 재財의 history來龍去脈; 어떠한 직업에 종사從事하는가; 재財의 결과結果(최종거처最終去處, 게다가 돈을 어떤 곳에 쓰는가)

①유재유고有財有庫,

②유재무고有財無庫

질액궁疾厄宮: 명주본인命主本人의 신체身體, 질병疾病 및 재액災厄의 궁위宮位

질疾: 오장육부五臟六腑 → 증상론症狀論;

액厄: 뜻밖의 재난飛來橫禍, 재액災厄

성질脾氣이 좋은가 나쁜가를 보는 궁위;

성질脾氣: “의식형태意識形態”를 경유經由해서 “행위行爲”로 변한다.

심술心術이 옳은가 그른가를 보는 궁위宮位

천이궁遷移宮: 외부에서의 변천운變遷運, 역마驛馬, 여행운旅行運

;기우궁機遇宮(소위所謂 “만나거나 혹은 못 만나거나”)

노운老運의 추세(복덕궁福德宮에 태극太極을 세우면, 천이궁은 관록宮이 된다)

명命의 구성組成: 1/3전생의 인연과보因緣果報; 1/3祖 조상부모의 유전遺德(양殃); 1/3기운機運(기회, 우연alternative, 복권...)

노복宮奴僕宮: 친구연분朋友緣份의 두텁고 얇음厚薄,

좋은 친구를 사귀는가 나쁜 친구를 사귀는가;

부하部屬 혹은 동료同事 연분緣份(상사上司, 기업주老闆

연분緣份은, 부모宮父母宮을 살펴야)

절정宮絕情宮(제8宮),수원壽元을 논단하는 관건宮위關鍵宮位,

명宮命宮 파패破敗의 궁위宮位

각 궁宮에 태극太極을 세운 후 각 궁宮의 노복위奴僕位는, 즉 태극宮太極宮의 파패위破敗位가 된다.

본명本命의 6내宮六內宮: 명命, 재財, 관官, 질疾, 전田, 복福

혼인婚姻의 6내宮六內宮: 명命, 재財, 부夫, 질疾, 전田, 노奴

⊙논명할 때, “6효六爻의 변辨”으로써 논명자論命者 공덕功力的 고저高低를 판단,

즉 소위所謂 “육효六爻 중에서 중효中爻”로써, 궁위의 음양陰陽, 내외內外를 가려내서길흉吉凶, 취산聚散을 추단推斷

혼인婚姻을 논하는 요령要領: 먼저 유무有無를 말하고, 다시 취산聚散을 말한다.

夫 財	兄 子	命 夫	父 兄
子 疾	以夫妻宮立太極 부처宮에 태극을 세 운다.		福 命
財 遷			田 父

<u>疾</u>	遷	<u>奴</u>	官
奴	官	田	福

부夫의 사화四化가 부夫의 육내궁六內宮에 떨어지면, 배우자가 있는 명반命盤임을 나타내고, 아울러 자화상동조自化象同組 혹은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를 만나면, 반드시 성국成局이 됨을 나타내며, 즉 반드시 혼인婚姻이 있고, 내려가 시간時間을 추단하면, 즉 결혼結婚의 유년流年, 유월流月이 나온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한다.

1986년생 여명女命

A

巨	廉相	梁 [ⓑ]	殺
辛 子	壬 夫	癸 兄	甲 命
貪	D←	↗C	甲 同
庚 財			乙 父
陰 [ⓓ]	D←		武
己 疾			丙 福
紫 [ⓒ] 府左	機 [Ⓐ]	破右	陽
戊 遷	己 奴	戊 官	丁 田

C

이론理論:

혼인婚姻의 6내궁六內宮: 명命, 재財, 부夫, 질疾, 전田, 노奴
 이는 부관(夫←官)과 노복(奴←福)이 바뀐 것이다.

夫妻宮의 사화四化가 혼인의 6내궁에 떨어지면, 배우자가 있는 명반이라는 표시이다. 아울러 동조同組의 자화상自化象이나 혹은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를 만나면, 반드시 성국成局이 됨을 나타낸다. 즉 반드시 결혼한다.

해설:

위의 명조는 여명女命으로서, 노복궁에 남성男星인 천기화록, 형제궁에 남성男星인 천량화권이 있으므로, 남성男性과의 연분은 많다.

그러나 부처궁 임간壬干 사화를 날려보면, 천량화록은 형제궁, 자미화권은 천이궁, 좌보화과 역시 천이궁, 무곡화기는 복덕궁에 들어가므로, 모두 혼인의 6내궁이 아니다. 따라서 혼인婚姻이 성국成局되지 않는다.

⊙운운이 좋으면 반대로 응당 특별주의特別注意를 해야 하며, 기회가 약간 따르다가 곧 사라지기 때문이고, 만일 좋은 일이 없는 것을 파악해보면, 곧 운운이 좋으면 바로 낭비해버리기 때문이다.

관록궁官祿宮: 운세運勢의 궁위, 기운궁機運宮, 기수궁氣數宮, 운로運途의 소재이며, 관위官位를 살피거나 혹은 소송訴訟하는 궁위宮位이다.

- a. 기업주(노반老闖)가 사업事業을 살피고, 회사를 경영하는 운운이다.
- b. 샐러리맨(상반족上班族)은 직장에서의 승진(승천升遷)을 살핀다.
- c. 학생은 시험운(고운考運), 학업성적을 살핀다.
- d. 공무원公務員,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의 관운官運을 살피는데, 반드시 “부모궁父母宮”을 같이 본다.
- e. 실업운迭運을 살피며, 반드시 “노복궁奴僕宮”을 같이 본다.

자녀궁子女宮: 노복奴僕의 관록위之官祿位이며, 따라서 합작위合作位가 된다.

부모궁父母宮: 노복奴僕의 재백위財帛位이며, 합작合作할 자금資金을 논한다.

⊙본부화기本父化忌가 명命的 육내궁六內宮에 들어가면, 편재운偏財運이 있음을 나타내며, 같은 이치로, 유부화기流父化忌가 명命的 육내궁六內宮에 들어가면, 편재偏財가 있음을 나타내며, 시간時間을 논단論斷한다.

곧 “위로는 대운반大運盤으로 회귀回歸하고, 아래로는 유월流月을 탐색探索한다.”

⊙본재本財 혹은 대재大財의 화기化忌가 명命的 육내궁六內宮으로 들어가면, 득재得財를 나타내며, 만일 이 궁위가 동시에 명命的 육음궁六陰宮이 되면, 곧 얻는 것이 많음을 나타낸다. 육양궁六陽宮에 들어가면 큰 이득은 없다.

2011/07/29

명 궁命 宮: 금세今世의 나我이며, 한 소태극小太極이 된다.

복덕궁福德宮: 삼세三世(금세今世, 전세前世와 내세來世)의 나我, 한 대태극大太極이 된다.

십이궁十二宮에 있는 사화四化의 함의含義(내포하는 의의意義)

록祿: 연緣, 총명聰明(IQ를 가리킴)을 나타내고, 인연人緣이 좋으며, 도화桃花(선

용善用하는 도화桃花)를 포함包涵한다.

논개성論個性: 수화隨和를 주主

논사論事: 시사施捨가 좋은 직장工作, 망록忙碌, 한불하래閒不下來

논재論財: 증가增加, 증다增多

즉 복록福祿, 식록食祿, 재록財祿, 복덕과 지혜

명궁화록命宮化祿은, 이 곳에 있는 생년生年, 자화自化, 시동자화視同自化 등을 포함

(생년生年是 생년사화를 말하고, 시동자화는 향심向心 자화를 말함)

생년사화生年四化는 상지체象之體가 되며, 역량力量이 강強한 것은 “여생구래與生具來”, 즉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나오기 때문

(시동視同)자화自化는 역량力量이 생년사화生年四化보다 작고, 상지용象之用이 되며, “금생今生, 금세今世의 노력努力”을 대표

즉 이른바 “존재存在”, “존유存有”설說(선천사화와 자화)

록祿과 과科의 분별分別

록祿: 총명聰明, IQ(지상智商)가 높은 총명聰明함

과科: 총명聰明, 한 번 배우면 바로 알고(일학즉지一學即知) 혹은 지금 배우고 바로 쓰는(현학현상現學現賞) 총명聰明함

록祿, 과科는 모두 해역제화解厄制化的 공功이 있지만, 단 역량力量은 과科>록祿

태극太極의 정의定義: a.혼돈지기混沌之氣 b.본래本乎 동動함 c.주이복시周而復始(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작함)

이른바 “물물일태극物物一太極”, 즉 물物thing마다 한 태극임은,

(1)상象을 궁宮에 의거해서 풀이解, 즉 록祿이 명궁命宮에 있다고 간주해서 전석詮釋

(2)예例: 형제궁화록兄弟宮化祿, 명命+형兄=록祿으로 볼 수 있으며, 이곳의 록祿은 재財를 대표, 연분緣份(연농정심緣濃情深), 반드시 형제兄弟의 힘을 통해 득재得財함.

부처궁夫妻宮에 있는 사화四化의 함의含義

록祿: 자유연애自由戀愛, 연농緣濃(“청춘불류백青春不留白”을 표시), 단 반드시

조혼早婚하는 것은 아님.

;청춘불류백青春不留白: 청춘을 백지로 남기지 마라. Dont make your younger days a blank sheet.

권權: 자녀兒女 혹은 부모父母의 명命을 받들어 결혼結婚한다.

과科: 다른 사람의 소개介紹를 경유經由하여 결혼結婚한다.

기忌: 다변동多變動, 다변이多變異, 종종 자기自己의 배우자配偶가 자기自己와 처음 연애(초련初戀)한 것이 아님.

생년기生年忌가 사마지지四馬之地(인신사해寅申巳亥)에 떨어지고, 만일 사마지지四馬之地가 다시 “육친궁六親宮”이 되면, 곧 “탁마기拆馬忌”가 되며, 연분緣份이 극極히 박薄함을 나타내고, 엄중嚴重하면 “생리사별生離死別”한다.

록祿이 자녀궁在子女宮에 있으면:

(1)자녀子女에게 복록福祿이 있고, 인연人緣이 있음.

(2)여명女命에서, 록祿이 자녀궁子女宮에 있으면, 음자녀蔭子女(자녀를 도움) 를 나타냄.

(3)합과승夥 혹은 학생연學生緣이 좋은 재財

(4)이성관계異性關係dating relationship에서 열정熱情과 주동主動을 나타냄.

(5)성생활性生活에서 열정熱情, 주동主動(흥치고양興緻高昂)을 나타냄.

해석解釋하는 방법方法: 명命+자子=록祿이면, 자녀子女, 복력福祿, 재록財祿이 있어야 비로소 창현彰顯함을 대표代表함.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 순수純粹한 상象을 위한 해설解說, 즉 단지 상象만을 주각註脚으로 세움. (주각註脚=태극)

(a)생년기生年忌가 사령司令이 되면, 록祿, 권權, 과科를 대동帶動

(b)생년록生年祿이 사령司令이 되면, 기忌, 과科, 권權을 대동帶動

예例: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가 “권기權忌”조組라고 설정하면, 곧) A궁宮 화기化忌가B宮에 들어가서, B궁宮의 자화권自化權을 만나면, “반드시 성국成局”함을 표시함.

생년록生年祿이 떨어진 궁위宮位는, 상천上天(흔알님, 하늘님)께서 명반命盤의 주인主人이 향복享福하도록 하는 곳이며, 만일 본명명반本命命盤 생년록生年祿으로는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없으면, 곧 대명명반大命命盤으로 간주해서 판단判斷, 즉 대한록大限祿.

재백궁財帛宮에 祿록이면: 인연人緣으로 재財를 얻고, 돈을 버느라 바쁘지만, 단 숫자에 대해서는 개념概念이 없는 편이다(즉 이재理財를 잘하지 못함).

질액궁疾厄宮에 祿록이면: 질액궁疾厄宮은 “의식형태意識形態”인 궁위宮位로서, 성질脾氣이 좋다는 것을 나타내며, 종종 마음이 너그러워 몸이 편안하다.

질액궁疾厄宮에 과과이면: 풍취風趣가 있고, 유머幽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단 어렸을 때는 (첫번째 대운大運) 비교적 기르기 어렵다.

천이궁遷移宮에 祿록이면: 출외出外하면 발달하는 명命으로서, 기회機遇가 좋고, 노운老運이 좋다.

노복궁奴僕宮에 祿록이면: 봉우朋友에게 의지하여 복록福祿, 재록財祿을 얻는다.

관록궁官祿宮에 祿록이면: 직장인연職場人緣이 좋고, 바쁜 중에 재록財祿을 얻는다는 뜻이다.

시험운考運을 논할 때는, 관록官祿의 과과>祿록;

한 단계씩 올라가는 학업學業을 논할 때는, 관록官祿의 祿록>과과

권權이 명궁 혹은 관록궁에 있으면, 업무業務를 보고, 사업事業을 개창하는데 적합

祿록이 명궁 혹은 관록궁에 있으면, 일반一般 원공員工(직원, 공원)이다.

과과가 명궁 혹은 재백궁에 있으면, 회계會計를 보는데 적합

전택궁田宅宮에 있는 祿록: 사사로 논하자면, 가게店面을 열어 장사生意를 하거나, 공장工廠을 개설하여 장사生意를 한다.

인인으로 논하자면, 가운家運이 좋고, 가인家人들과 서로 화합하며 지낸다相處.

재財(물物)로 논하자면, 조업祖業을 계승할 수 있다.

수원壽元(수명)이 응수應數하는 날일을 논하는 것은, 통상 생일 지나서(離) 최근最近인 것者이다.

복덕궁福德宮에 있는 祿록: 누릴 만한 복福이 있고, 여명女命은 복과 지혜(복혜福慧)를 주초한다.

사사로 논하자면: 사람이 교제접대交際應酬를 잘한다는 뜻이다.

부모궁父母宮에 있는 祿록: 부모와 연분이 있고, 상사上司, 기업주老板, 사장師長을 논술하는 궁위宮位, 출생한 혈연지血緣地,

물物로 논하자면: 지혜智慧로써 득재得財
공교위公敎位, 공무원 혹은 敎育인원敎職人員을 가리킴

공업共業 공위宮位: 부처夫妻, 부모父母, 자녀궁子女宮, 논술할 때는 반드시 성신
星辰을 배합하여 남녀를 판단
공업共業은 업무를 같이 한다는 것으로서, 보통 가족끼리 모여 같이 일을 한다.
동업同業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

화권성화權星: 역량力量, 돈錢(승관발재升官發財를 가리킴)

명궁命宮에 있는 권權:

- 1.장권掌權, 점권佔權을 뜻하고, 위엄威嚴을 뜻하며, 세력權勢이 있게 됨
- 2.小時候比較任性, 霸道; 長大後“性剛果決”
- 3.처사능력處事能力을 주하며, 능간能幹이 있음을 뜻함
- 4.종종 사업事業의 국면局面을 만난 것임
- 5.인과 인(人與人)의 관계關係를 말하며, 마찰摩擦, 쟁집爭執이 있음
- 6.어릴 때幼時(본명本命의 첫 번째 대운大運) 외래外來의 상해傷害를 받기 쉬움
- 7.승천升遷을 주하고, 증가增加, 증치增值의 의미가 있다.

생년사화生年四化가 대운大運 명궁命宮에 앉으면, 모두 밟 길흉하다 이른다.

권權은 게다가 (a)승관발재升官發財, 즉 관등官等(관직 등급)이 오르고 재물이 발달함을 나타낸다 (b)가족세력家族勢力, 득재得財를 나타낸다(중국인들은 가족 단위로 사업을 함).

영도인領導人的 격국格局을 갖추는가 여부를 논하는 것은, “화권成權”이 가장 중요하다首重.

논명論命의 중요성重要性은 “궁宮”이 위주爲主이고, “상象”은 그 다음이다次之.

궁宮 > 상象 > 성星,

성星의 의미가 중요도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은, 성요파星曜派 계열의 자미두수와 다른 점이다. 민간에서 전승된 내용과 아울러 도교道敎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계열과, 송 이후 성리학性理學에 기초한 계열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11/07/30

여명女命 명궁에 화권이 앉으면, 차가운 매력형cold attraction style에 속한다.

⊙권權이 명궁에 있으면, 권력을 가진 자이며, 보통 좀 더 애써 고생한다; 단 일을 함에 원칙이 있는 편으로, 책임감을 갖춘다.

⊙권權이 명궁에 있으면, 비교적 가폭家暴이 있기 쉽다(언어 혹은 신체 모두 가능)

부처궁에 있는 권權: 배우자가 권權을 장악; 사귀는 대상對象이 종종 재간이 있거나 혹은 재화才華(재능)가 있는 사람. 혹시 개성이 있음.

종종 부모 혹은 자녀의 명궁을 받들어 결혼.

자녀궁에 있는 권權: 자녀 교육시, 당연히 “막힌 것을 터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끈다;

“합작궁승夥宮”으로 논술할 때, 전문기술로 인해 합작하여 재물을 얻음을 주초함.

자녀궁에 있는 사화四化로 논술하는 득재得財

록祿: 돈을 써서 사업에 투자하여 득재, 득재得財가 많음

권權: 기술투자 사업으로 득재, 득재得財가 많음

과科: 권權의 해석과 같지만, 단 득재得財는 많지 않음(문화 교육계통)

기륜: 사람들과 합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과기過忌”를 기다려야 비로소 능히 사람들과 합작. 과기過忌는 기륜이 있는 궁위를 통과하는 것이다.

만일 반드시 “과기過忌” 전前에 다른 사람들과 합작하려면, 곧 현금매매 방식은 여전히 가可하다.

자녀궁에 있는 권權: 학생연學生緣으로 얻는 재財, 엄한 스승이지만, 단 반드시 좋은 스승은 아님.

도화해석桃花解에 따르면, “강제強制”로 한다는 의미로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덜렁대면서 대충 처리한다.

만일 명주命主의 가정교육이 좋지 않으면, 곧 몰락해서 xx의 늑대 소리를 듣는다.

성생활性生活에 따른 해解, 강세強勢, 용맹함을 주초

재백궁에 있는 권權: 감히 벌고 감히 쓰는 형 감잠감화형敢賺敢花型(대만어: 감사

형敢死型), 전문기술에 의지하여 재물을 도모, 득재得財함을 주주
질액궁에 있는 권權: 명주命主의 주관의식이 아주 강렬한, 표현하기 좋아하는 애
현형愛現型, 종종 자아自我를 중심으로 한다

명주命主가 신체건강 쪽에서는 아주 용맹하다.

천이궁에 있는 권權: 출외하면 재화才華를 드러내는 편이지만, 쉽게 질투를 삼

노복궁에 있는 권權: 사귀는 붕우朋友가 종종 대담한 식견이 있다

관록궁에 있는 권權: 일하는 환경 중에서 권력을 장악 함

전택궁에 있는 권權: 1.부동산이 있다; 돈이 있으면 부동산 매입을 고려한다; 집
안 인테리어에서 잘 사는 티를 낸다.

2.집안사람들과 의견이 어긋남

3.점포店面 혹은 공장을 개설하는 직업

복덕궁에 있는 권權: 용감히 돈을 쓰고, 용감히 벌고 용감히 쓰는 감잠감화형敢賺
敢花型, 선명한 “양모陽謀”(음모가 아님), 용감히 교제접대

부모궁에 있는 권權: 부모가 애쓰는 편, 부모가 권위權威가 있는 편

부모궁에 있는 기운: 효순孝順하지만,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마음을 나타
낼 돈이 없다.

화권化權은 그 “스스로 변하는 자변自變”성이 있어서, “업業”과 유관, “무형의 인
과因果”에 속한다. 한편 장애障는 곧 “유형의 인과有形之因果”이다.

예例: 명궁命宮에 생년기生年忌가 앉고, 대궁對宮인 천이궁이 지화기自化忌, 곧
“기출忌出”이 되며, 즉 “출외出外하여 소식이 전혀 없는 상象”이다.

화과化科: 과명科名을 주주;

명궁命宮에 있는 과科; 만일 라인궁來因宮이 부모 혹은 관록궁이면, 과갑科甲, 과
명科名을 주주, 체면을 중시, 청백淸白한 성수星宿(별)가 됨

명궁에 있는 과科: 본인 이름이 중重함 ; 총명, 박애다문博愛多聞, 평순 함, 계획
을 잘 세움(하는 일이 잘 빠뜨리지 않음); 해액解厄, 도화桃花; 귀인貴人(생년과
生年科를 가리킴); 단 과科가 반드시 명命의 육외궁六外宮에 떨어져야 비로소 과
科의 역량과 재능이 창현彰顯; 명命의 육내궁六內宮에 떨어지면, 자기가 자기의
귀인貴人.

용用: 귀인貴人을 찾으려면, 비궁과飛宮科를 이용, 그것이 떨어진 궁위를 살핍;

단 반드시 명사의 육외궁六外宮에 있어야 함

생년과生年科와 록祿이 명궁命, 천遷, 부父, 질疾의 4궁에 떨어지면, 명주命主 본인本人이 장수 함. 단 만일 생년록과祿科가 동궁하면, 곧 역량 감약減弱.

長壽: 평균수명의 10% 이상을 말한다.

남성 명궁에 있는 과科: 도화를 주조하고, 명주가 풍도風度가 좋음. 말씀이 극히 우아함.

여성 명궁에 있는 과科: 도화를 주조하고, 명주가 풍정風情이 있음, 여성적 아름다움lovely flatter를 갖춤, 남녀 모두 두 눈에 눈썹이 많다.

예例: 마잉주馬英九, 명궁에 생년과가 있고, 자화록 및 시동자화과

상수象數의 해독 순서: ①생년과生年科 ②시동자화과視同自化科 ③자화록自化祿

종합해석:명궁 태음생년과, 자화록과 자화과가 대궁對宮 천기天機에 이르러 시동자화과를 형성

①여성女性的의 연緣을 얻음; 여성의 도움을 얻음

②부정적 측면 해석, 남명男命은 동성애 경향이 있다.

③생년과生年科+시동자화과=과출科出, 과의 본질을 강화하지만 오히려 또 그 道를 거슬러 행함이 나타난다(반기도이행反其道而行) → 대개 모호하게 분장을 하고 (아닌 것처럼) 연극을 함

④명궁에 있는 문곡文曲이 가해져, 구재口才가 좋다는 표시(구재口才가 좋은 순서: 문곡文曲>문창文昌>거문巨門)

⑤과科는 역시 “몽환psychidelic”을 주조한다.

논명論命 요령: 궁상합일宮象合一은, “대동大同”으로서, 점유율85%; 별의 배합이, “소이小異”로서, 점유율15%

형제궁에 있는 과科: 명命+형兄=과科, 형제는 내 귀인貴人

부처궁에 있는 과科: 명命+부夫=과科, 배우자는 내 귀인貴人이며, 집안family의 소개를 통해 배우자를 알게 됨

자녀궁에 있는 과科: 명命+자子=과科, 자녀가 어릴 때 예모禮貌가 있고, 소공주 혹은 소신사가 된다;

합작으로 득재得財할 수 있음을 주조, 단 재財는 많지 않다

양성good 도화桃花, 정조mood와 분위기atmosphere에 신경 씬
(록祿, 과科 모두 양성도화良性桃花)

성생활性生活에 무드 있고, 다만 정인情人(유부남, 유부녀)을 좋아
함

여명女命 자녀궁에 자화과 혹은 시동자화과는, 몸매 좋고, 가는 허리, 여색(자색姿色)이 있다.

재백궁에 있는 과科: 계획성 있는 이재理財, 화기생재和氣生財harmony and benefits

질액궁에 있는 과科: 해액, 신체건강이 좋음을 주主; 비기脾氣temper 좋고, 유머 감각幽默感

(질액에 있는 록祿, 역시 비기脾氣(성격) 좋고, 사람의 호의好意를 까지 않는다)

천이궁에 있는 과科: 출외出外하여 평탄함을 주主, 능히 귀인貴人을 만난다; 기우 機遇chance와 노운老運(60대 이후), 앞의 서술과 동同

노복궁에 있는 과科: 사귀는 붕우朋友가 등급grade이 높은 편(교양이 있다); 붕우朋友 간 서로 융합

관록궁에 있는 과科: 계획성있는 공작工作 처리, 귀인을 만난다.

전택궁에 있는 과科: ①금집金窩 은집銀窩도 내 집의 개집狗窩만 못하므로, 회가回家(집으로 돌아감)를 반기고, 집에서 대기함을 반긴다.

②가인家人과 지내면서 화목하다.

복덕궁에 있는 과科: 복혜福慧sophiscated(특별히 여명女命, 지적 매력), 인과적 상속相續을 포함, 유기질有氣質(기질이 있다)

창곡昺曲이 복덕福德을 협夾: 기질이 있는(유기질有氣質)인 것처럼 보인다.

부모궁父母宮에 있는 과科: 명命+부父=과科, 부모父母는 나의 귀인貴人

2011/08/05

화기化忌: 다多변동, 다변화를 주主하는데, 역마驛馬와 더불어 동탕動盪해서 불안하다는 뜻을 포함한다. 동탕動盪은 파도처럼 출렁인다는 것이다.

명궁화기化忌: 명주命主 본인本人의 사고思考와 논리邏輯가 변동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며, 긍정적正面的 해석은, 수리세포數理細胞를 특별하게 가지고 있다(기류가 명궁에 있는 자者는, 매우 많이 의학계열醫學系을 전공한다). 부정적負面的 해석은, 찬우각첨愛鑽牛角尖(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애써 끝까지 매달리다)을 좋

아하고, 서로 같이 지내기 쉽지 않으며, 집착하기 쉽다(자기 의견을 고집한다). 샐러리맨上班이 마땅하다.

명재관命財官에 생년기生年忌, 자화기自化忌가 있으면, 샐러리맨上班이 마땅하다. 만일 창업創業한다면, 곧 반드시 냉문冷門, 편문偏門(오술五術 역시 냉문적冷門的 行業行業이다) 혹은 신용장信用狀으로, 현금現金 교역交易을 하는 비즈니스, 즉 무자본無本的 비즈니스生意이다.

冷門은 거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거나 생각이 미치지 않는 사물이다. profession or branch of learning that receives little attention
과거 지질학地質學이 냉문冷門이다.

편문생의偏門生意 혹은 편문공작或偏門工作은 통상 전통적으로 비정당적非正當的이라 여겨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희극반戲劇班 (고대 예술인은 지위가 낮았다), 마작관麻雀館, 안마기사按摩技師, 문신사부紋身師傅, 사인화장死人化妝, 풍수사風水師 및 성공작자性工作者 등이다. 기타 불법행위도 포함한다.

본명本命; 본관本官; 대명大命; 대관大官에 만일 생년기生年忌, 자화기自化忌가 있다면, 곧 오술을 연구하면 쉽게 이룬다.

명궁命宮에 생년기生年忌가 앉으면, 회재불우懷才不遇적 감수感受를 받기 쉽다, 즉即 자기비하감이 있고, 또한 자존심이 강하다.
회재불우懷才不遇는 재능이 있어도 기회를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다

부모궁父母宮: 공교위公教位, 공교인원公教人員을 가리키거나 혹은 know-how를 이용해서 재물을 구한다.

재백궁財帛宮은 양명의 근원養命之源인 궁위宮位이며, 대재기大財忌가 명명의 육내궁六內宮에 들어가면, 득재를 주주, 투자投資하여 이재理財하는 동작을 진행할 수 있다.

기忌가 명궁命宮에 있는 사람은, 세일즈Sales에 종사하는 것이 더 낫다; 제조업製造業 혹은 생산업生產業은 안된다. 가능하면 원로나 재고를 쌓아놓고 하는 업종은 피하고 무자본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

기忌는 저장貯藏(재財(物物)을 가리킴), 바로잡음(사람을 가리킴)과 아울러 통제統制(사람을 가리킴)를 주초한다.

기륵가 명궁에 있으면 자기자신에 대한 통제統制가 지나치게 강하고, 지나치게 양심적이다.

⊙본재기本財忌가 명궁의 육내궁六內宮에 들어가면, 길짐함을 주초하고, 득得함을 주초(유재有財 또는 유고有庫)하며, 이 한평생 그러하다.

⊙대재기大財忌가 명궁의 육내궁六內宮에 들어가면, 본재기本財忌가 명궁의 육내궁六內宮에 들어간 것과 같이 해석을 하지만, 단 이 대운大運에 그칠 뿐이며, 여기에서의 기륵은 수장收藏(거두어 저장함)을 주초한다.

⊙만일 대재기大財忌가 명궁의 육외궁六外宮에 들어가면, 흉凶을 주초하고, 실실을 주초하며, 파재破財를 주초한다; 이 때에는 이재理財를 해서는 안되며, 당연히 “부작위不作爲”(아무 것도 하지 않음)가 마땅하다.

⊙인위人位의 도화성桃花星이 자화기自化忌이면, 사람을 구속收束(절제節制)하는 것을 초한다; 즉 도화桃花가 있지만, 단 섹스 스캔들이 나지는 않는다.

⊙염정廉貞: 차도화次桃花를 주초, 만일 여명女命 명궁命宮에 있으면 관골顴骨(광대뼈)이 높다는 뜻이다.

⊙자미성계紫微星系는, “형形”Figure이 중重하므로, 외표外表(겉모습)를 판단할 수 있다; 천부성계天府星系는, “질質”Quality이 중重하므로, 개성個性을 논할 수 있다.

⊙탐랑貪狼이 만일 여명女命 명궁命宮에 있으면, 애교愛嬌가 있음을 주초한다
천요天姚가 만일 여명女命 명궁命宮에 있으면, 조숙早熟의 별星이므로, 부끄러움을 타기 쉽고, 대화를 좋아하고 잡담을 즐긴다.

문창文昌이 만일 여명女命 명궁命宮에 있으면, 과갑科甲을 주초하고, 도화桃花가 있다.

인위人位의 화기化忌가 인위人位에 들어가면, 단속管束(통제)을 주초한다.

인위人位의 화기化忌가 인위人位를 충沖하면, 연분緣分이 없거나, 연분이 박薄함(즉 전통적으로 “형극刑劓”)이라 칭한다)을 주초한다.

⊙논명시論命時에는 “형극刑劓”이라는 두 글자를 피해서, 논명論命하는 사람을 오도誤導하지 말아야 한다.

예例: 명궁화기命宮化忌가 부처궁夫妻宮에 들어가면, 내가 나의 배우자配偶를 단속管束하게 된다.

생년기生年忌가 만일 육친宮六親宮에 있으면, 명주命主가 해당 궁위의 사람에 대해서, 잠재의식 안에서 빛을 진 느낌이 있어서, 보상을 하거나 메꾸려는 동작을 하는데, 이는 생년기生年忌가 종신終身토록 그러하기 때문이다.

생년기生年忌가 육친궁六親宮에 있고, 해당 궁위가 또 사마지지四馬之地(인신사 해寅申巳亥)이면, “탁마기拆馬忌”로서, 해당 궁위의 사람이 명주命主와 사별死別하기 쉽다.

기륵가 형제궁兄弟宮에 있으면: 자기 형제자매兄弟姊妹에 대해서, 잠재의식으로 빚을 진 느낌虧欠感이 있어서, 보상補償하려 한다.

예例: 라인궁來因宮이 질액궁疾厄宮이고, 생년기生年忌가 형제궁兄弟宮에 있으면; 즉 질疾+형兄=기륵, 또한 상象=기氣이므로
즉 나의 형제자매兄弟姊妹가, 신체身體가 그다지 좋지 않다.

기륵가 부처궁夫妻宮에 있으면: 배우자配偶에 대해 빚을 진 느낌虧欠感이 있고, 전세前世의 인과因果와 유관有關하므로, 즉 “서로 빚을 진相欠債” 것이며; 배우자配偶자에게 종질Slavery을 하더라도 달게 생각한다.

기륵가 자녀궁子女宮에 있으면: 자녀子女에 대해 빚을 진 느낌虧欠感이 있어서, 보충彌補하려 한다; 종종 자녀를 지나치게 아낀다.

기륵가 노복궁奴僕宮에 있으면: 우정友情이 꺼지지 않는다는 의의義가 있다.

기륵가 부모궁父母宮에 있으면: 부모父母에게 효순孝順하지만 단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모를 공경할 돈이 없다.

명리학命理學은 반드시 상수象數가 “평형平衡”을 이루도록 동작動作해야 한다.

⊙본재本財의 화기化忌가 본명本命에 들어가면, 득得함을 주主하며, 명주命主가 절약하고 검소한 습성을 나타낸다.

⊙본명本命 명궁命宮은 명주命主 명반命盤의 “원태극原太極”이며, 당연히 육양궁六陽宮이지만, 단 육음궁六陰宮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재백궁財帛宮 화기化忌가 명命의 육내궁六內宮에 들어가면, 득재得財를 주主한다; 만일 게다가 육음궁六陰宮이면 곧 득재得財가 많음을 주主한다.

⊙형극刑剋: 화기化忌를 가리키지만, 단 반드시 화록성化祿星이 있는 곳을 같이 참고해야 한다.

기륵가 재백궁財帛宮에 있으면: 재財가 있음을 주主하지만, 단 많지는 않다(얻는 것이 많지 않다); 재물을 지키는 것이 아무지지 못하며, 부동산不動產을 사두는

것이 가장 좋다.

기륵가 질액궁疾厄宮에 있으면: 선천先天 체질體質이 좋지 않아서, 유년幼年 시 때에는 병病이 많다; 성격脾氣을 논하자면, 성질脾氣이 곧바르고, 하늘이 정한 본성에 따라 행위行爲한다.

예例: 질액궁疾厄宮에 생년기生年忌 혹은 자화기自化忌가 있으면, 명주命主의 성격脾氣이 올곧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만일 질액궁疾厄宮 화기化忌가 명궁命宮을 충하면, 곧 명주命主의 성격脾氣이 무너져서, 이것저것 내던지는 나쁜 성격脾氣에 속하게 된다.

기륵가 천이궁遷移宮에 있으면: 밖에 나가면出外 불순不順함을 주초하며, 일을 하게 되면 많은 노력을 들이고도 성과는 적다. 단 밖에 나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소인小人에게 화를 입기 쉽고, 기회機遇chance를 잡기 어렵다.

기륵가 관록궁官祿宮에 있으면: 월급쟁이上班가 더 좋으며, 만일 스스로 창업創業을 하게 되면, 도산倒店하기 쉽다.

기륵가 전택궁田宅宮에 있으면: 부동산不動産이 있음을 주초하며, 이사搬家를 자주 하는 현상現象이 있다; 조업祖業을 잇지 못한다.(자화기自化忌의 상象이 생년기生年忌보다 더 명확明確하다)

전택궁田宅宮 화기化忌가 명命을 충하면: 80~90%는 이사搬家를 한다는 것을 주초한다; 5%는 가운家運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기륵가 복덕궁福德宮에 있으면: 복福이 있지만 누리지 못하며, 심신身心이 모두 바쁘고, 시비是非가 따른다.

래인궁來因宮: 자아自我 스스로가 선택抉擇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무명無明으로 생생하여, 상象이 래인궁來因宮에 맞힌다. 생년사화生年四化의 상象은 곧 래인궁來因宮에서 나오며, 명주命主의 선천先天 명격命格을 결정할 수 있다.

⊙생년사화生年四化를 발사發射하는 궁宮:

래인宮來因宮

량梁 9 관官	살殺		염廉④ 壬 질疾
상자相紫 田	갑술년甲戌年		
거기巨機		4	과破④ 甲 子子
탐貪	음양陰陽④ 丁 명命	무부武府④ 丙 형兄	동同 乙 부夫

A

선천명격先天命格을 논하려면, 라인궁來因宮이 떨어진 궁위宮位를 기준으로 내외 內外를 定하고, 이외에 반드시 “하도河圖”를 같이 참고해야 한다.

육내궁六內宮: 자립격自立格(능동적)

육외궁六外宮: 타음격他蔭格(수동적)

1.자녀궁子女宮이 라인宮來因宮이고, 생년권生年權에다 다시 자화권自化權으로, “권출權出”을 형성하므로, 그 質을 더 強하게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道를 거슬러 行하는 뜻이 있다. 비길상非吉象(흉상凶象이 아니다)으로서 반드시 대운大運에 배합하여야만, 비로소 길흉吉凶을 논할 수 있다.

2.권출權出은 동시同時에 (동조同組인) 과과를 데리고 나가며, 생년과生年科가 형제宮兄弟宮에 있어서, 자녀宮子女宮과 함께 “이사위견二四爲肩”을 형성形成하므로, 表명주命主가 도화桃花가 따르는 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3.라인來因이 자녀子女(4)이므로, 하도河圖의 4.9위우爲友에 따르면, 곧 일생의 방향 혹은 그 생태공간生態空間은 자子,전田,부夫,관官의 4궁四宮을 주요主要하게 보며, 먼저 보는 것은 생년사화상生年四化象이 있는가 없는가이며, 이어서 자화상自化象을 본다.

4.부처宮夫妻宮의 시동자화권視同自化權: 부모父母를 받들거나 혹은 아녀兒女의 명命에 따라 결혼結婚한다.

5.질액宮疾厄宮에 있는 생년록生年祿: 자기自己的의 신체身體에 의지하여 돈을 번다(마음을 쓰고勞心, 몸을 쓴다勞力)

6.명宮命宮에 태양생년기太陽生年忌가 앉아 있는데, 태양太陽은 관록주官祿主로서, 원래는 正官이지만, 단 화기化忌를 만나면, 곧 편관偏官이 된다.

정관正官: 행정권行政權을 장악하므로, 더욱 권權이 있다.

편관偏官: 일반인에 대해서는 영향력 없는 공무원인원公務人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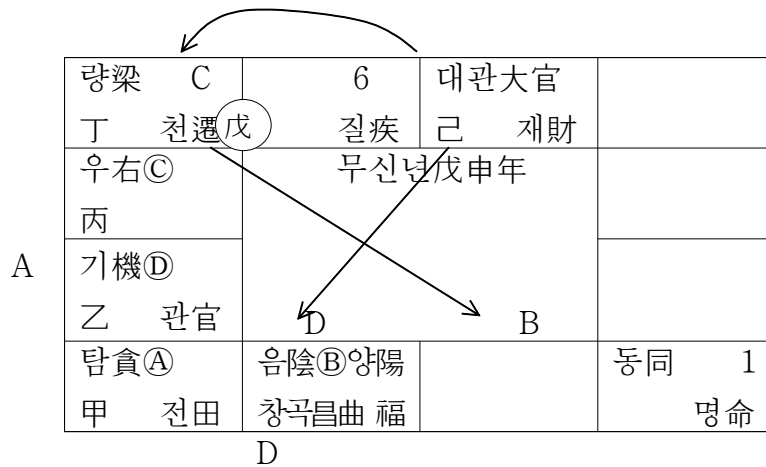
비궁상飛宮象을 해석解釋하는 요령要領: 가령 A宮宮의 사화상四化象이 B宮宮에

들어가서, B궁위에 있는 생년상生年象과 자화상自化象을 만나면, 곧 해독解讀하는 상수象數의 순서順序는:

비궁상飛宮象>시동자화상視同自化象(향심向心)>자화상自化象>생년상生年象이다;

이는 사정事情이 발생發生하는 시간적時間的 순서次序를 대표한다. 이상이상은 모두 반드시 궁위宮位를 진행進行하는 궁상宮象의 해석解釋을 배합하여야 한다.

상수象數가 조합組合되어 성국成局이 되었음을 나타내면, 시간점時間點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년권生年權을 法하여 시간발생점時間發生點을 논단論斷할 수 있다.



1.래인來因이 질액疾厄이면, 육내궁六內宮이므로→ 자립격自立格

래인궁疾厄宮: “몸身”이 있는 명命이며, 이미 “후천後天”에 흠뻑 빠진 象으로서, 명주命主가 이 한평생 자기自己에게 기대어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비로소 생년사화生年四化가 데리고 나온 象을 누릴 수 있음을 가리킨다.

명궁命宮: 선천先天의 格格으로서, “삶生”이 있는 명命이다.

2.하도河圖에 배합하면, 곧 1.6공종共宗이 되며, 일생一生의 방향方向을 명천부질命遷父疾로써 논단論斷한다. 다시 말하면 1.6공종인 명命, 질疾과 각각의 대궁을 합한 명천부질命遷父疾 4개 궁宮이 생태공간生態空間을 형성한다. 사대가합四大假合이라고도 한다.

주主로 인위人位로 구성되므로, 명주命主의 일생에서 주요主要한 것은 인인과 유관有關하다(인제관계人際關係).

㉠자부紫府가 인寅에서 일어나, 해위亥位까지 가면, 곧 자위子位에서 파군破軍을 보므로, 이것이 이른바 “선천先天이 후천後天으로 바뀔 때는, 반드시 파모破耗(파

군破軍)를 본다”는 것이다; 또한 “수정受精을 해서 10개월十月 동안 아이를 배는 것을 가리킨다” 양막이 파열되면서 후천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2011/08/06

하도河圖의 용법:

만일 라인宮來因宮이 복덕福德(11)에 있으면, 곧 10을 만나 귀원歸元하고, (10이 남으며) 따라서 반드시 명궁命宮(1)을 보아야 한다.

즉 복재명천福財命遷이 생태공간生態空間(사대가합四大假合)이며;

같은 이치로 만일 라인來因이 부모父母에 있으면, 곧 형제兄弟를 보며,

즉 부질형노父疾兄奴가 생태공간이다.

라인來因을 자축인묘子丑寅卯 궁宮에서 만나면, 곧 인묘寅卯 궁宮 위주이며; 자축子丑은 보조輔이다.

생태공간은 명주命主가 살아가는 환경atmosphere으로서 여기에 떨어진 선천 상象은 평생을 지배하는 용신用神이다.

논명論命의 관건點關鍵點 KEYPOINT: 취상取象과 사상捨象을 할 수 있는 공부功夫를 깨달아야 한다.

공부功夫(쿵푸): abilities and skills

다시 말하면 상象을 취할 줄 알아야 하고 상象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비궁사화飛宮四化 상象의 함의含義(144절節, 576상象)

명반命盤 십이宮十二宮, 각 궁宮에 태극太極을 세우면, $12 \times 12 = 144$ 절節이 나오며, 태극太極을 세운 후 각 궁宮의 사화상四化象은 $144 \times 4 = 576$ 상象을 이룬다.

吳中誠 저著 「來因宮 與 紫微斗數 144訣(大元書局)」 참고

명리학命理學은 “원융圓融”을 추구하는 일문一門의 철학哲學이다.

A궁宮 화록化祿이 B궁宮에 들어가는 해석解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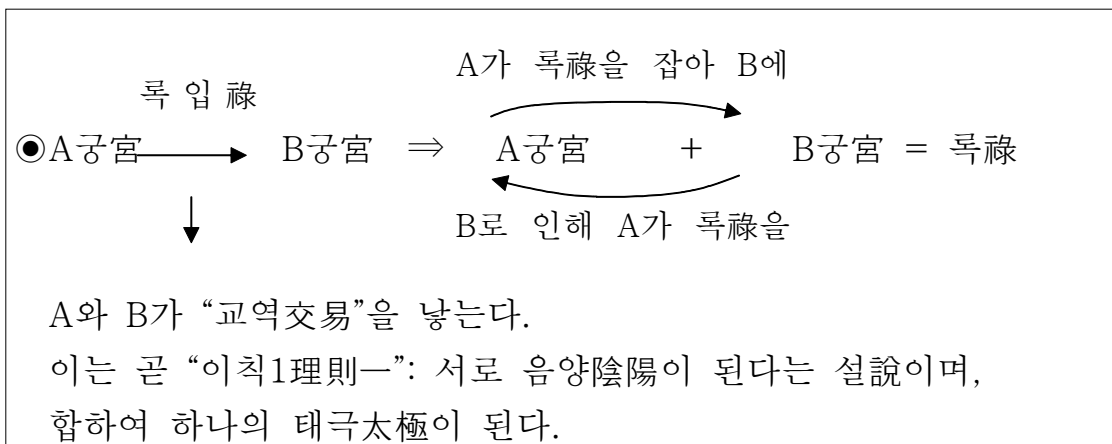
(a)A궁宮의 록祿(재록財祿, 복록福祿, 식록食祿, 연분有緣份)을 가져다 B궁宮에 준다(정면正面의 해석解釋)

(b)B궁宮의 연고緣故로 인因하여 A궁宮을 화록化祿이 되게 한다(반면反面의 해석解釋)

(c)A궁宮+B궁宮을 하나로 간주해서 태극太極으로서 논단論斷

(d)주동권主動權이 A궁宮에 있다.

- 명궁화록命宮化祿이 재백財帛에 들어감:
 - a.재財를 버느라 바쁘고, 인연人緣의 재財를 벌며, 재財가 머물러 있지 않는 편이다.
 - b.한 번 해보면 돈이 되고, 노력해서 돈을 번다.
- 명궁화록命宮化祿이 질액疾厄에 들어감:
 - a.성격脾氣이 좋은 바, 이는 후천後天에서 양성養成한 것이다.
 - b.자기自己의 신체身體에 의지해서 돈을 벌며, 오직 내 신체가 존재할 때야 비로소 재록財祿, 복록福祿, 식록食祿을 획득할 수 있다.
- 명궁화록命宮化祿이 노복奴僕에 들어감:
 - a.붕우朋友를 좋게 대하고
 - b.널리 좋은 인연을 만들어, 재록財祿, 식록食祿 등을 얻는다.
- 명궁화록命宮化祿이 관록官祿에 들어감:
 - a.일을 하는 연고緣故로 인해서, 복록福祿, 재록財祿 등이 널리 드러나게 된다.
 - b.바쁨을 주초하며, 바쁜 중에 재록財祿을 얻고, 인연人緣에 따른 재財를 얻는다.
- 명궁화록命宮化祿이 전택田宅에 들어감:
 - a.가인家人과 더불어 연분緣이 있고, 돈을 벌면 집에 가지고 들어간다.
 - b.부동산不動產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록祿을 얻는다.
 - c.가운家運이 좋음으로 인하여 복록福祿, 재록財祿이 널리 드러난다.
- 명궁화록命宮化祿이 복덕福德에 들어감:
 - a.누릴 만한 복福이 있다.
 - b.복덕福德(교제 접대의 궁위宮位)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록祿이 있다.
- 명궁화록命宮化祿이 부모父母에 들어감:
 - a.“공교公教(국가 교육)”로 인하여 록祿을 얻는다.



⊙상象은 즉 기氣가 되고, 기氣는 “왕래往來”를 말하며, 이것이 즉 “이칙2理則二”: 각위음양설各爲陰陽說이다



중점重點: 祿, 권權, 과科가 B궁宮에 들어가거나 혹은 B 궁宮을 비출 때, 해석은 서로 같다duplicate(아니면 등동等同identical)

병病이 나서 손상을 입고, 보험保險 배상을 받으면 → 질액화록疾厄化祿 입수 복덕福德??(가可)

부처궁 화록 입수 형제: 내 배우자가 祿을 나에게 주고 아울러 그(그녀)의 형제에게 준다.

이유理由: 144절節, 576상象을 해석할 때, 본명本命 명반命盤은 “원태극原太極”이 된다. 각 궁宮에 태극太極을 세울 때는, 본명 명반命盤은 12궁十二宮이 공용共用한다.

⊙처전교역妻田交易: 부부夫妻가 종종 생리사별生離死別한다(전택田宅은 부처夫妻의 절정위絶情位) 절정위는 제8위(노복궁)로서 사死를 뜻한다.

예例: 대부화록大夫化祿이 본전本田에 들어가 본전本田 자화기自化를 만난다.

○부처궁화록 입수 자녀:

배우자가 祿을 자녀에게 준다;

자녀子女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배우자가 祿을 얻게 만든다.

祿은 총명聰明을 주主하며, 따라서 자녀가 총명함을 표시.

○부처궁화록 입수 재백:

①배우자가 돈을 버느라 바쁘며, 인연人緣의 재財를 번다.

②배우자가 명주命主를 좋게 대하는데, 재백은 부처夫妻의 부처궁夫妻宮이기 때 문

③배우자가 이재理財로 인하여 祿을 얻는다.

○부처궁화록 입수 질액:

①배우자가 내 신체身體에 관심을 가진다.

②배우자의 성격脾氣이 좋다.

○부처궁화록 입수 천이:

배우자가 밖에 나가서 인연人緣이 좋으므로 祿을 얻는다.

○부처궁화록 입사 노복:

배우자가 봉우朋友를 좋게 대한다;

배우자가 봉우朋友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록祿을 얻는다.

○부처궁화록 입사 전택:

배우자가 록祿을 가지고 집 안에 들어온다.

○부처궁화록 입사 복덕:

배우자가 누릴 만한 복록福祿이 있다.

○부처궁화록 입사 부모:

배우자가 뒷사람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록을 얻는다;

배우자가 노하우know-how로써 록祿을 얻는다.

⊙동태상動態象, 비궁상飛宮象 = 행운상行運象,
록祿이 비추는 역량力量 > 록祿이 앓는 역량力量

⊙정태상靜態象, 생년사화상生年四化象,
록祿이 앓는 역량力量 > 록祿이 비추는 역량力量

○명궁화권 입사 형제:

①내가 형제를 통제控制하려 생각해서, 형제와 마찰摩擦이 있게 된다.

②형제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내가 권한을 장악하게 하며, 사업에서 이루는 것이 있다.

○명궁화권 입사 부처:

①배우자가 권한을 장악해서, 부부가 의견 충돌, 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②배우자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내가 권한을 장악하게 한다.

○명궁화권 입사 자녀:

내가 도화桃花로 인하여 권한을 얻는다; 자녀가 권한을 장악한다.

○명궁화권 입사 재백:

①“감잠감화敢賺敢花”형형, 즉 감히 벌어 감히 쓰는 형형이 된다.

②전문기술로써 득재得財한다.

③감히 벌기 때문에 권한을 장악하거나 혹은 사업에서 이루는 것이 있다.

○명궁화권 입사 질액:

①유년幼年 시時 타박상 등의 외상外傷을 쉽게 당한다.

②“애현愛現”형형, 즉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형형이며, “질액疾厄”으로 인하여 내가 권한을 장악하게 하는 까닭이다.

○명궁화권 입수 천이:

시동자화권視同自化權(향심력자화권), 즉 자화권과 같은 것으로 본다.

○명궁화권 입수 노복:

①붕우朋友와 의견충돌, 미찰을 일으키기 쉽다.

②붕우朋友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권한을 장악한다.

○명궁화권 입수 관록:

직업 상 권한을 장악하기 쉽다(승관발재升官發財);

직업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사람들과 마찰이 있기 쉽다.

○명궁화권 입수 부모:

①부모父母와 관념觀念이 다르다.

②부모父母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권한을 장악한다.

⊙다른 사람의 명주命主에 대한 영향을 논단論斷할 때, “칠성결七星訣”을 명반命盤에 투입套入해서 논단論斷할 수 있다.

열 번째 천간 계쑤

우리 민족의 성서聖書라 할 수 있는 부도지 제1장을 보면,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천부天符를 봉수하여 선천先天을 계승하였다. 성城 中中의 사방에 네 명의 천인이 있어 관箒을 쌓아놓고 음음을 만드니 첫째는 황궁씨요, 둘째는 백소씨요, 셋째는 천궁씨요, 넷째는 흑소씨였다.』

이것은 천지창조의 시작이다. 물리학에서 우주의 기본적인 힘은 중력, 전자기력, 핵력, 약력의 4종류이며 생명의 근원 DNA도 4개의 염기로 구성된다. 처음에 4가지 음음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10천간의 마지막인 계쑤의 갑골문 자형을 보면 교차된 모양의 선반에 다양한 톤을 연주할 수 있는 4가지 악기가 놓인 모습이다. 10천간의 마지막에 이미 다음 세상을 창조하는 4가지 음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자漢字인 계쑤가 우리민족의 성서인 부도지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사실 한자는 우리 민족과 너무 관련이 많다. 우선 갑골문을 만든 은나라는 고조선의 후예이다.

화과化科: 과갑科甲, 과명科名, 총명聰明(한 번 배우면 곧바로 아는 총명함), 풍도風度grace(풍정風情romance)를 주하고, 게다가 귀인貴人, 해역解厄을 주한다.

주註: 과갑科甲: 한나라, 당나라 시대에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에 갑甲, 을乙 등의 과과가 있던 것을 후대에 과갑科甲이라 칭하게 됨.

명궁화과命宮化科 입형入兄: 이칙1理則一, 명命+형兄=과과

- ①형제와 서로 화목하게 지냄을 뜻한다(피차 대하는 것에 풍도風도가 있다)
- ②형제는 나의 귀인貴人(이는 후천後天에 속하고, 자아의 작위作爲로 만들어진 귀인貴人)
- ③내가 형제를 총명하게 하고, 일을 하는 것이 계획성計劃性이 있다.

반면反面적 해석解釋: 형제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명궁이 화과가 된다; 형제의 연고로 인하여 명주命主 본인의 성명聲明이 좋아진다.

명궁화과命宮化科 입부入夫:

- ①“인인”에 의거한 풀이, 화목和睦함을 주主, 즉 명命+부夫=과과, 형제궁과 같은 인위人位이며, 따라서 형제궁의 해석과 같다.
- ②“사事”에 의거한 풀이, 부처궁은 인연위因緣位이므로, 혼가婚嫁의 異性을 알게 되고 논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다.
- ③“물物”에 의거한 풀이, 내가 내 돈을 배우자에게 준다; 배우자의 연고로 인하여 내 명성이 좋아진다.

명궁화과命宮化科 입자入子:

“인인”에 의거한 풀이, 명命+자子=과과, 부모와 자녀가 서로 융합融洽하며 지낸다.

“사事”에 의거한 풀이, 내가 자녀를 총명하게 한다.

“물物”에 의거한 풀이, 내가 내 돈을 자녀에게 준다; 내가 자녀 혹은 도화桃花의 연고로 인하여 이름을 얻는다.

“자녀子女”로 논술할 때는, 자녀를 “아주 좋아함”을 표시

도화桃花의 유형類型:

록祿과 과과는 모두 양성良性이지만, 단 역량力量은 과과>록祿

권權은 일편一扁으로 정情을 원願하는 형型

기론은 곧 말없이 끝난다.

명궁화과命宮化科 입재入財: 명命+재財=과과, 계획성計劃性있게 이재理財하며,

“인홀묘량寅吃卯糧, 즉 인년에 묘년의 식량을 먹는” 일이 없다.

명궁화과命宮化科 입질入疾: 유머 감각이 있고 성격이 좋다.
신체가 건강하며 자기 신체를 돌본다.

명궁화과命宮化科 입노入奴: 명命+노奴=과科, 노복奴僕=인위人位, “형제兄弟”와 해석이 같다.

명궁화과命宮化科 입관入官: 일을 함에 계획성이 있다; 직업에서 이름을 얻는다.

명궁화과命宮化科 입전入田:

“인사”에 의거한 풀이, 가인家人들과 서로 융합融洽해서 지낸다.

“사사”에 의거한 풀이, 가운家運이 좋다는 뜻으로, 점포店面을 내거나 혹은 공장을 차려 사업을 한다.

“물물”에 의거한 풀이, 조업祖業이 있거나, 혹은 전세前世의 복음福蔭을 받는다.

명궁화과命宮化科 입복入福: 계획성있게 복福을 누린다.

“인사”에 의거한 풀이, 조부모가 된다.

“사사”에 의거한 풀이, 교제접대 혹은 향락을 뜻한다.

“물물”에 의거한 풀이, 조업祖業이 있거나, 혹은 전세前世의 복음福蔭을 받는다.

관록화과官祿化科 입노入奴: 봉우朋友의 연고로 인하여, 직업 상에서 명성聲名을 얻는다.

관록화과官祿化科 입천入遷: 외출하는 연고로 인하여, 직업 상에서 명성聲名을 얻는다.

↳ 명궁命宮=원태극위原太極位

A궁宮(관록官祿)화과化科 입入B궁宮(천이遷移), 조照B'궁宮(명궁命宮)

이칙1理則一: A+B=과科

이칙2理則二: A 科 B', 후천 자아가 작위作爲하는 직업운, 학업운이 좋고 照

이로 인해 공명功名을 얻는다.

관록화과官祿化科 입질入疾: 내 몸의 명命으로 인해 명성聲名을 얻는다.

관록화과官祿化科 입재入財: “물物”에 의거한 풀이, 관官이 과科를 재財에게 준다; 재財로 인하여 관官이 화과化科가 되도록 한다.

관록화과官祿化科 입자入子:

“사事”에 의거한 풀이, 합작사업으로 인해서 직업 상 명성聲名을 얻지만, 단 득재得財하는 것은 많지 않다.

“인인”에 의거한 풀이, 자녀 혹은 도화桃花로 인해서 사업 상 명성聲名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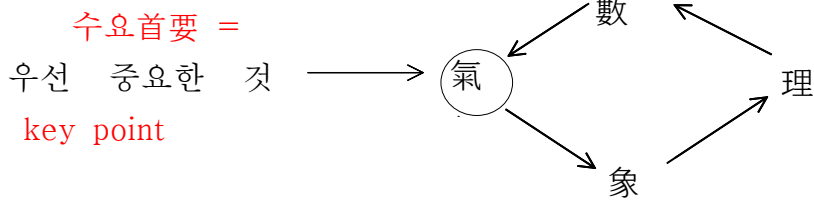
관록화과官祿化科 입부처入夫妻 혹은 형제兄弟, 그 해석은 자녀궁과 같다.

관록화과官祿化科 입명入命: 관官+명命=과科, 내게 직업, 사업이 있게 됨을 나타내지만, 단 반드시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직업이 가볍고, 대우가 높지 않으나 늘 할 수 있다. (이는 즉“그 상象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인人、사事、물物이 있다는 설說”이다)

관록화과官祿化科 입부入父: 그 해석은 자녀와 같고, 별도로 부모궁은 또한 “대리상代理商”을 나타낸다.

관록화과官祿化科 입전入田: 전택의 연고로 인하여 관록官祿이 화과化科가 되게 한다.

자미두수紫微斗數는 사화상四化象에 의거하지만, 두요斗曜는 그 수數이며, 그중 수數가 대표代表하는 것은 길흉吉凶, 취산聚散, 득실得失, 존망存亡이다. 이는 그 궁국적 경지境地를 구하는 일문一門의 학문學問이며, 따라서 우선 중요한 것은 먼저 기氣의 소재를 구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수數를 득得함이고, 혹은 기수氣數라 칭한다. 따라서 상象에 의거해서, 기氣의 소재所在를 안다; 길흉吉凶인 수數를 말하면, 이치理는 그 중에 있으며, 즉 應用역리易理, 상리相理, 상常(철哲)리理를 응용해서 상수象數를 본다.



⊙중화中華의 오술五術은, 모두 “역경易經”에서 기원其源한 것이다.

주註: 역사적으로 보면 음양오행설은 조로아스터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로아스터교는 일명 배화교拜火教, 즉 불을 숭배하는 종교이며, 오행설은 원래 중앙에 있는 화火를 금수金水와 목토木土가 둘러싸서 지키는 것이지만, 중원中原의 황제黃帝가 토土를 중심으로 두고 목화금수木火金水를 배치해서 지금의 오행설이 된 것이다. 황제黃帝는 농경지대인 중원지방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농경지인 토土를 중심에 둔 것이며, 황제라는 명칭 자체가 토土를 대표하는 황색에 근거한다. 한편 우리나라를 고대로부터 청구靑丘라 한 것은 초원의 유목민이라는 뜻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및 가야의 여러나라가 모두 부여夫餘 기마족이 세운 것이며, 일본日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 동로마 문명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배화교를 숭배하였고, 사실 그 근원을 보면 동서 만리에 걸친 만주에서 헝가리까지 유라시아 초원에 세워진 인류 최초의 국가에서 유래하므로, 서토西土와 동아시아가 고대로부터 문화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신라의 김씨金氏 왕조 및 이른바 중화中華가 모두 소호少昊 금천씨金天氏의 후손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한무제漢武帝가 신라 김씨 왕조의 조상인 김일제金日磾를 투후稊侯에 봉封한 것은, 김일제가 대대로 불을 관리하는 화관火官의 후예인 까닭이다.

고인돌을 살펴보면 별자리를 표시하는 성혈星穴이 새겨져 있는 일이 흔하며, 대개 북극성 자미紫微와 북두칠성北斗七星을 표시한다.

현대까지 배화교의 진통이 많이 남아 있는 나라는 아제르바이잔이며, 이 이름 자체가 불을 수호하는 자라는 뜻이다.

역주) 염제炎帝 신농神農이나 황제黃帝 헌원軒轅, 소호少昊 금천金泉, 태호太昊 伏羲氏들이 실제 활동하던 무대는 바빌론이다. 이들이 고속마차를 몰고 동북아까지 진출하여 문명을 전파한 것이다. 이른바 아리아인들이 발명한 살이 달린 고속회전 바퀴는 그 당시에는 획기적 발명품이었다. 이를 산스크리트어로 수리밧샤라고 하는데, 우리말 수레바퀴가 여기에서 나온 말임을 알 수 있다.

불교, 힌두교 등에서는 법륜法輪이라 부른다. 인도 국기를 보면 맨 위에 이 수리밧샤가 그려져 있다.



...북두칠성이 새겨진 고인돌.....

⊙인위人位의 화기化忌가 인위人位에 들어가면, 간섭하고 구속管束한다.

예례: 명궁命宮(A)화기化忌 입入 형제兄弟(B), 내가 형제를 단속하기 좋아함을 나타낸다.

A	기	→	B : 단속함을 대표한다.
人位	入	人	이칙1理則一: 명命 + 형兄 = 기忌
			이칙2理則二: 명命忌 → 노奴
			교우로 인하여 소인小人에게 해코지, 중상모략을 당함
			기 쉬워,
A	+ 기	→	불리하다는 뜻이다.
	충	B'(B의 대궁對宮)	
			주동主動하는 권한이 나에게 있으므로, 소인小人은 바로

⊙노奴	기忌	→	명命,	흉凶하다고 하며, 봉우가 나에게 불리하고, 나를
	중상	충	충	을
				대표하며, 따라서 소인小人은 “봉우”를 가리킨다.

명궁화기 입入 노복奴僕: 명命+노奴=기忌, 나와 봉우 사이에 정의情義가 중중함을 나타낸다.

명궁화기 충沖 형제兄弟: 내가 형제에 대해 불리하며, 형제와 연緣이 없다(심지어

형제가 없기도 함).

⊙형제화기化忌 충충 명궁命宮: 명주命主가 종종 형제가 없음을 대표한다; 형제가 나에게 대한 도움이 없거나 혹은 형제와 연緣이 없다.

⊙명궁화기 입入 부처夫妻: 명命+부夫=기忌, 모두 인위人位이며, 단속함을 뜻한다.

“인인”에 의거해서 풀이하면, 내가 배우자를 단속하게 됨을 나타낸다.

“사事”에 의거해서 풀이하면, 선천先天 혼인婚姻 연緣이 박薄하므로, 늦게 결혼晚婚하는 것이 좋다; 종종 늦게 결혼하게 된다.

동시에 명궁 화기가 관록官祿을 충충하는 것도 해석하는 요령은 동일하다.

관록궁 화기化忌 충충 명命, 직업운이 좋지 않음을 대표하지만, 단 주동권主動權은 내게 있으므로, 나 자신이 직업운을 좋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대표한다.

명궁화기 입入 관록官祿:

이칙1理則一, 명命+관官=기忌, 직업운이 좋지 않다.

이칙2理則二, 명命 기충忌沖 부夫, 1.부처夫妻 연緣이 박薄하며, 만혼晚婚을 뜻한다. 2.부처夫妻가 무연無緣이며, 관념觀念이 서로 다르다.

명궁화기 입入 자녀子女: 도화桃花 연緣이 박薄함을 나타내며, 자녀를 단속하게 됨.

(명궁화기 충충 전택田宅): 나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가운家運을 좋지 않게 한다.

명궁화기 입入 전택田宅: 가운家運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을 불순不順하게 한다.

(명궁화기 충충 자녀子女): 자식을 늦게 얻음을 뜻한다.

⊙록祿, 기忌의 주종관계主從關係를 논한다

사화상四化象은, 록수기주祿隨忌走가 되며, 따라서 본재本財, 대재大財의 기忌가 명命의 육내궁六內宮에 들어가면, 득재得財를 뜻한다.

자화상自化象은, 기수록주忌隨祿走가 된다.

명궁화기 입入 재백財帛: 돈을 벌지만 고생스럽게 돈을 벌며, 게다가 돈이 많지 않다.

(명궁화기 충충 복덕福德): 누릴만한 복福이 없다.

命宮化忌入福德：有福不會享，無福可享

(命宮化忌沖財帛)：賺錢不易，辛苦於賺錢；投資會虧損，上班較好，但仍可做無本的生意，賺無本之財

◎자미두수는 “**궁위중첩宮職重疊, 누진순환累進循環**”하는 일문一門의 학문學問이다.

명궁화기 입서 질액疾厄：종종 고질병이 있으며, 신체가 좋지 않다；개성個性이 곧바르다(솔직하고 시원시원하다.直性子)

(명궁화기 충沖 부모父母)：부모와 연緣이 박薄하다.

◎疾厄化忌沖命宮：表命主脾氣壞，會摔東西的壞脾氣

命宮化忌入父母：主孝順

◎命宮化忌沖疾厄：當命宮變成是大運疾厄時，大疾忌沖本疾，主命主身體出問題，凶象

2011/08/13

39세			
C	곡曲상相	량梁⑥	대명大命
	辛 辰遷		甲 35~44子
B	거巨 대재	→ D	을乙
	庚 財財		동同
37세	자紫③탐貪		丙 형兄
BD	기機④음陰④		무과武破
	戊 田田		명命

①선천화록 ②선천화권 ③선천화과 ④선천화기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

생년사화로부터 조성組成하며, 우선 ④가 소재하는 궁위를 확립하고, 연후에 ① ② ③의 어느 것이 ④탑배搭配를 이룰 수 있는가를 살핀다:

록기조祿忌組

권기조權忌組

과기조科忌組

조건 성립의 요건과 우선 순서

①동궁同宮 혹은 본대궁本對宮에서 상술한 조별의 하나를 형성할 수 있는가

②삼합三合 혹은 인궁鄰宮에서 상술한 조별의 하나를 형성할 수 있는가

③분별할 방법이 없으면, 곧 십이궁 비궁상飛宮象이 어느 조별組別을 많이 형성하는가로서, 본례로 말하자면: 명주의 선천상수조는 록기조祿忌組이다.

⊙이 대운大運 10년의 건강운세를 보려면, 먼저 대질大疾의 기운이 떨어지는 궁위를 살핀다; 다음으로는 대질大疾의 록권과祿權科를 살핀다. 단 만일 대질大疾이 떨어진 궁위에 자화自化가 있으면, 곧 반드시 먼저 자화상自化象을 해석한다. 자화自化는 변화變化를 대표하며, 또한 무중생유“無中生有” 혹은 유중변무“有中變無”를 대표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의 시간점을 직단할 수 있다. 본례를 빌려 말하자면, 대질大疾에 생년과生年科, 자화권自化權이 앉아 있다.

해석의 순서와 시간 발생의 전후: 먼저 생년과生年科를 해석하고, 다시 자화권自化權을 해석하며, 생년과生年科는 해역解厄하고, 따라서 죽지 않는다.

⊙다음 대질大疾 비궁상飛宮象을 살피면, 그 중 록祿은 본명本命에 들어가고; 기운은 본천本遷에 들어가, 록기조祿忌組를 형성하므로, 즉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와 평형平衡을 이루어, 반드시 성국成局임을 나타내고, 응수應數하는 해는 39세이다.

⊙대재大財는 향심자화기視同自化忌이고, 대궁對宮 대복大福은 자화록自化祿으로, 록기조祿忌組를 형성하며, 마찬가지로 선천상수조와 평형平衡을 이루어, 사정事情이 발생함을 대표하며, 응수應數하는 해는 38세이다. 혹은 생년록기조가 떨어진 궁위를 법상法象하면, 곧 응수應數하는 해는 36세이다. 대재大財는 본노本奴이고; 대복大福은 본형本兄이며(형노선); 록기祿忌는 기복이 크고, 변화가 크다는 것을 대표하고, 쌍기雙忌가 대재大財(본노本奴)를 충하며, 따라서 붕우朋友에게 강탈당하여 패재破財될까 두렵다. 만일 다시 아래로 유월流月을 추론하면, 곧 인寅, 진辰 혹은 술월戌月에 응應한다(인궁寅宮 자화기, 진궁辰宮 자화기, 술궁戌宮 향심자화기)

⊙만일 巳宮이 본부本父(부질선) 혹은 본천本遷(명천선)이고, 아울러 화기化忌가 본질本疾 혹은 본명本命을 충하면 곧 암증癌症을 얻는다는 뜻이다.

역주)사궁巳宮은 궐음厥陰 경락으로서 응결凝結하기 쉽다. 여기에 문곡文曲이면 수량

이 증가하므로 암세포의 분화를 뜻한다.

⊙재백화록財帛化祿이 떨어진 궁위宮位에서는, 종사하는 행업의 종류를 볼 수 있다.

⊙재백화기財帛化忌가 명命的 육내궁六內宮에 들어가면, 득재得財를 뜻한다; 만일 다시 육음궁六陰宮이면, 곧 득재得財가 많다는 뜻이다; 육양궁六陽宮이면 곧 득재得財가 적다는 뜻이다; 같은 이치로, 가령 재기財忌가 명命的 육외궁六外宮에 들어가면, 곧 재財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재백화기財帛化忌이 떨어진 궁위는, 즉 재財가 어느 곳에 쓰이는가를 대표한다.

재백궁화기財帛宮化忌가 12궁十二宮에 들어가는 함의涵義

재기財忌 입入 자녀子女, 득재得財하지 못함(돈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돈이 자녀에게 쓰이거나 혹은 도화桃花에 쓴다는 것을 가리킨다.

재기財忌 입入 부처夫妻, 배우자가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좋다.

재기財忌 입入 형제兄弟, 돈을 형제兄弟 신상身上에 쓴다; 형제兄弟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어렵게 돈을 번다(형제궁은 재백궁의 전택에 해당)

재기財忌 입入 명궁命宮, 득재得財를 주도하지만, 다만 절검節儉하는 성격으로서, 돈을 가인家人에게 쓰지 않으며, 득재得財가 많다.

재기財忌 입入 부모父母, 대파재大破財를 뜻하며, 부모宮父母宮은 재백財帛의 노복宮奴僕宮(파패위)破敗位이기 때문; 명반命盤 12궁十二宮은 함께 쓸 수 있으며, 따라서 또한 부모父母가 일생 중에서 대파재大破財의 문제를 일으킴을 대표한다.

재기財忌 입入 전택田宅, 득재得財를 주하며, 얻는 것이 많고, 돈을 가인家人 혹은 부동산不動產에 쓴다.

재기財忌 입入 관록官祿, 득재得財를 주하지만, 단 많지는 않으며, 번 돈을 사업에 재투자함을 뜻한다.

재기財忌 입入 노복奴僕, 득재得財하지 못하며, 돈을 붕우朋友에게 쓴다.

재기財忌 입入 천이遷移, 대파재大破財이며, 명命을 충하는 까닭이다.

재기財忌 입入 질역疾厄, 득재得財를 주하며, 많이 벌지만, 단 재다신약財多身弱이다.

.....
사화상四化象에는 세 종류가 있어, 생년生年, 비궁飛宮, 자화自化(시동자화視同自化)이다. 시동자화는 향심력자화를 말한다.

⊙모든 남녀관계男女關係는, 모두 인과因果가 되며, 따라서 반드시 생년사화生年

四化를 본다.

⊙비궁사화飛宮四化는 이 평생의 자아작위自我作爲를 대표한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자미두수 십자진결十字眞訣: 차간借干, 둔성遁星, 가상假象, 응지應支, 합시습時
공간宮干을 세우고,
별들을 늘어놓고,
사화상四化象을 배치하고,
응應하는 지지地支를 따라가서,
부합하는 시時를 찾는다.

⊙自化는 금생금세속生今世의 조화造化이며(이번 생에서 지어 낸 것이며), 명주자아命主自我의 의념소치意念所致이고, 반드시 인과因果와 유관有關한 것이 아니다; 단 자화自化는 반드시 생년상生年象을 법상法象하며, 그럼에도 인과因果로 회귀回歸함을 나타낸다. 해당 궁함에 자화自化가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음을 대표하여 ①옛 것의 결속結束(끝맺음), 새 것의 개시開始 ②유중화무有中化無, 무중생유無中生有 ③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적관념時間的觀念이 있으며, 부단하게 아래로 시간時間에 응한다.

心은 본래 무선무악無善無惡이지만, 단 일생一生을 염念하면, 곧 유선유악有善有惡이다.

단명斷命의 원칙原則은, 유월流年, 유년流月까지 판단하여야, 비로소 일을 먼저 주도면밀하게 고려한 것이 된다; 유일流日, 유시流時까지 판단하는 것은 잘 쓰지 않으며, 유일流日은 추단推斷하기 어려운 편이다.

⊙시동자화視同自化는, 부단不斷한 연기緣起를 포함(역사중연歷史重演, 역사는 거듭 펼쳐진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例: 부처궁자화권夫妻宮自化權

- ①부처궁에 변화가 있게 된다.
- ②결혼結婚(옛날 있던 것의 결속結束, 참신嶄新한 개시開始)
- ③시간점時間點(결혼하는 시時)

.....

결혼년結婚年の 추단법칙推斷法則:

- ①본부本夫가 결혼結婚하는 대운大運을 결정하며, 본례本例중에서, 자화自化가 있으면, 곧 자화상自化象이 있는 궁宮 혹은 그 대궁對宮인 대운大運에 응한다; 동시에 유년流年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응수應數하는 해는, 자화상궁自化象宮 혹은 그 대궁對宮, 혹은 자화상自化象이 법상法象한 생년상生年象 궁위宮位이다. 종종 자화상自化象인 궁위宮位가 대운大運을 결정하면, 곧 생년상生年象인 궁위宮位가 유년流年을 결정한다; 혹은 자화상自化象인 궁위宮位가 유년流年을 결정하면, 곧 생년상生年象인 궁위宮位는 유월流月을 결정한다(확률이 80~90%)
- ②원본原本의 법칙法則은 , 본부本夫가 대운大運을 결정하고, 대부大夫가 유년流年을 결정하는 것이다.

명命은 공간空間을 대표하고; 운運은 시간時間을 대표한다. 단 중점重點아니면 결승점決勝點은 시간時間, 즉 “행운行運”에 있다.

- ①자화自化: 해당궁該宮에 자화自化가 있으면, 곧 본명本命 궁직宮職은 단지 대운궁직大運宮職의 형용사形容詞인데, 자화自化의 중심이 작은 시간단위時間單位에 있기 때문이다. 대표代表하는 것은, 이 대운大運이 변화變化하려 하면, 변화變化의 내용은 본명궁직本命宮職으로써 해석解釋하며, 즉 대운궁직大運宮職이 “주主”가 되고; 본명궁직本命宮職은 “종從”이 된다.
- ②대개 임의의 한 궁위宮位에 자화自化가 있으면, 곧 그와 대궁宮직對宮宮職이 결합하여 산생하는 의의意義 역시 해석解釋해야 한다(대궁론對宮論)
- 예예: 명命(본궁本宮)+관官(대궁對宮)=시동자화록視同自化祿, 대표代表하는 것은, 이번 십년十年의 나我는, 직업을 가지려 하며, 직업에 있어 대우待遇에 대한 기대期待가 높은 편이다.

③대부大夫의 사화상四化象이 부처夫妻의 육내궁六內宮에 들어가, 선천상수先天象數 동조同組 혹은 자화自化 동조同組를 만나면, 결혼結婚을 주도한다; 만일 첫 번째 결혼結婚이 아니면, 곧 직접 현행現行 대운大運의 대부大夫를 써서 추단推斷하며, 요점要點은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

본명本命의 6내궁六內宮: 명命, 재財, 관官, 질疾, 전田, 복福

혼인婚姻의 6내궁六內宮: 명命, 재財, 부夫, 질疾, 전田, 노奴

④종종 시동자화상視同自化象은 “유중화무有中化無”를 대표하고; 반면에 자화상自化象은 “무중생유無中生有”를 대표한다; 자화自化 혹은 시동자화상視同自化象을 막론하고, 응수應數하는 시간점時間點은 종종 해당 시간구간時間區間的 하반

단下半段에 있다, 예례: 자화自化는 종종 하반기下半年 혹은 하반기下半月 등등 等等에 응한다.

명례해설命例解說

계축년癸丑年 음녀陰女

	B	A B	A	
부府장昌 丁 疾	동同음陰◎ 戊 財	무武탐貪④ 己 子	거巨⑥양陽 庚 夫	
丙 遷	39세		상相曲大財 C 辛 兄	
염廉과破④ 乙 奴			기機량梁 A 壬2~11命 06년	
甲 官	大命 乙32~41田	甲 福	자紫살殺 父	

◎생년사화상生年四化象은 선천정수先天定數이며, 즉 소위 “명命 안에 시간이 있으면 끝내 반드시 있음”, 반드시 “래인궁來因宮”을 배합하여 해석詮釋을 진행한다

- 1.자녀궁에 탐랑貪狼 생년기生年忌가 앉아, 평생 반드시 자녀가 있음을 대표하지만, 단 결혼結婚 10년에 아이 낳기를 원하지 않는다. 남편은 압력을 가하지 않지만, 시부모는 압력壓力을 가한다.
- 2.자녀궁子女宮 화기化忌이고, 게다가 탐랑貪狼(주남主男)은 득자운得子運을 대표하여, 자녀가 있을 것이며, 자녀를 끔찍이 사랑한다溺愛.
- 3.“래인궁來因宮”을 배합하여 해석하면, 이 “자녀궁子女宮”은 게다가“부모父母의 자녀궁”으로서 집안 3녀女1남男(오빠)중, “부모가 오빠를 닮아溺愛”함을 나타내며, 따라서 “3자매姊妹의 성취成就가 모두 오빠에 비해 좋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역주)선천의 탐랑화기는 탐랑이 남성男星이므로 오빠에게만 해당하며, 세 자매는 선천화기가 아니다.
- 4.대재大財는, 무생년사화無生年四化이지만 단 자화과自化科여서, 이 10년의 재운財運이 평순平順함을 대표한다; 별도로, 대재大財 화기化忌가 (본명) 질액궁疾厄宮(명命的 육내궁)에 들어가 득재得財를 주도한다.
- 5.본재本財에는, 생년과生年科와 자화권自化權이 있고, 상의象意는: 시공時空을 모두 갖추며, 공간空間에 상象이 있고, 시간時間이 다다르면, 반드시 발생함을 대표한다. 해상解象의 순서次序: 먼저 “생년과生年科”를 해석하고 다시 “자화권自

化權”을 해석한다.

생년과生年科: 계획성計劃性있는 이재理財이며, 재財가 있지만 단 많지는 않다; 해액解厄을 주하며 따라서 재무財務상上 설령 단결短缺이 있더라도, 봉흥화길逢凶化吉이 되며, 자연自然 해결解決될 수 있다.

자화권自化權: 屬“감히 벌어 감히 쓰는”형에 속하며, 또한 노하우know-how로 써 득재得財함을 나타낸다.

필경究竟 말하자면(상의象意가 최종 화성化成하는 물상物相의 대표代表 涵의涵義를 나타낸다): 본재本財 무간戊干的 화록化祿으로, 화기化忌가 떨어진 궁위宮位를 취상取象한다. 무간戊干 천기화기天機化忌가 본명本命에 들어가, 득재得財를 나타내지만, 단 절검節儉한다.

정태靜態 사화상四化象 해상解象 순서: 생년生年, 시동자화視同自化, 자화自化
동태動態 비궁사화상飛宮四化象 해상解象 순서: 비궁飛宮, 시동자화視同自化, 자화自化, 생년生年

⊙만일 집房子을 사려면, 가장 좋은 것은 “대관大官”, “대재大財”가 모두 아름다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

⊙모궁某宮에 자화록自化祿이 있을 때, 생년록生年祿이 소재하는 궁위宮位의 기氣를 진탕振盪 불안不安하게 한다; 모궁某宮에 생년록生年祿이 있을 때, 그 나머지 십일궁十一宮의 자화록自化祿인 궁위宮位는 모두 “록입祿入”으로 변성되며, 이는 곧 자화상自化象과 생년상生年象의 기氣가 상호相互 진탕振盪oscillation하는 까닭이다.

6.자녀궁子女宮은 노복궁奴僕宮에 태극을 세울 때의 관록宮官祿宮이며, 따라서 역시 합작궁合夥宮이 된다.

본례本例에서, 대자大子 자화록自化祿으로, 생년록生年祿인 궁위宮位: 대복大福(본재本奴)를 진탕振盪한다.

대자大子 임간화기壬干化忌를 보면 필경究竟, 곧 본자本子에 있는 무곡화기武曲化忌가, 자화록自化祿, 자화권自化權을 만나고, 최후最後로 생년기生年忌를 만나므로, 비궁상飛宮象을 해상解象하는 순서次序에서, 최후에 “생년기生年忌”의 상象을 얻는다. 따라서 만일 합작合夥를 논한다면, 곧 합작이 실패함을 대표한다.

7.본자本子の 자화록권自化祿權, 자녀가 있는 명命을 대표하며, 그 자녀子女가 발전하여 자기사업을 시도企圖하는 마음이 있다. 본자本子 화과化科가 명궁命宮

에 들어가므로, 자녀와 나의 대대對待가 좋지 않음을 대표한다; 본자本子 화기化
忌가 형제兄弟에 들어가, 낙서洛書에 의거해서 해석하면, “2, 4위견二四爲肩”의
상象이며, 도화桃花를 주초한다.

자미성계 6성六星, “형形”을 중시함, 명주命主의 상모相貌를 논단할 수 있다.
천부성계 8성八星, “질質”을 중시함, 명주命主의 개성 혹은 인격 특질特質을 논
단.

⊙인위人位인 궁위宮位에 자화상自化象이 있으면, 代表해당 궁위의 사람이 “자립
갱생격自立更生格”에 속한다는 것을 대표함, 즉 직장에 출근해서 돈을 번다.

⊙역마驛馬의 역량力量을 논하면: 육음궁六陰宮>육양궁六陽宮; 육외궁六外宮>육
내궁六內宮, 따라서 형노선兄奴線 역마驛馬의 역량力量이 최강最強임, 양궁兩宮
이 모두 육음六陰+육외六外이기 때문,

⊙역마驛馬의 역량力量이 강한 궁위: 형兄, 노奴, 부父, 자子

예례: 대전기大遷忌 입서 형노선兄奴線, 역마驛馬 강強함, 종종 공중空中을 날아
다니는 사람이다.

대전기大田忌 입서 형노선兄奴線, 종종 이민移民을 간다.

대전기大田忌 입서 부모궁父母宮, 이민移民을 주초함, 부모궁父母宮은 국적위國
籍位, 역마천성위驛馬天星位이기 때문.

⊙본명本命, 부夫, 재財에 흉상凶象이 보이지 않으면, 이혼離婚하지 않는 상象이
다.

해당 궁宮이 무생년사화無生年이고 자화自化가 있으며 아울러 자화自化가 있는
교역交易이 대표代表하는 함의含義

⊙록권과기祿權科忌는 사상四象으로서 그 중 록기조祿忌組는 양陽에 속하며; 권
과조權科組는 음陰에 속하고, 합승하여 양의兩儀가 된다.

⊙일월日月이 역易이며, 역도易道는 음양陰陽이 있다. 역易에는 有有 태극太極이
며,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는다; 이곳에서 有有가 가리키는 것은 존재存在, 존유存
有의 의사意思이다.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은 후, 사상四象을 낳고, 그 중에 삼재
三才(천지인天地人)를 포함한다는 의사意思이다. 사람의 작위作爲로써 자연自然
을 조절하는 공功을 가리킨다. 연후에 오행五行, 육효六爻, 칠진七辰을 거쳐 팔괘
八卦를 낳고, 최후에는 구궁九宮을 거쳐 십익十翼의 완비完備를 이루는 것이 역
경易經의 도리道理이다.

주註: 두수斗數에서 응용應用하는 팔괘八卦는 후천팔괘後天八卦이다.

역주: 천부경天符經을 보라.

一始無始，一析三，極無盡，本天一，地一二，人一三，一積十鉅，無匱化三，天二三，地二三，人二三大三合六，生七八九，運三四成環，五七一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本心本太陽昂明，人中天地一一終，無終一。

(본래는 천문天文 역학易學이다. 박용숙 저. 《천부경81자바라밀》 참고)

⊙역易: 역리易理, 역상易象, 역술易術이 되지만, 단 중점重點은 삼재三才에 있어, 즉 “천인합일天人合一이고, 지地는 매개媒介”가 된다.

대표하는 인사물人事物이 비로소 삼재三才를 해석詮釋하는 중심重心이 됨을 가리킨다.

⊙양의음양사상兩儀陰陽四象을 논하는 오술五術은, 먼저 선천先天의 무위법無爲法은 역易의 체體가 된다; 반대로, 오행五行, 육효六爻, 칠정七政, 팔괘八卦와 구궁九宮을 논증論證하는 오술五術은 후천後天의 유위법有爲法에 속하고, 역易의 용用이 된다.

주註: 오술五術 중에서, 단지 감여학堪輿學이 유체유용有體有用에 속하는 오술五術이다. 자미두수紫微斗數는 선천 무위법無爲法에 귀속되므로, 즉 단지 “심령신회心領神會”가 가능하고, “묵필筆墨”을 용用하여 그 정수精髓의 소재를 전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서술한 것에 의거해서, 만일 기畀가 과과이면, 곧 록祿은 인因이고, 권權은 매개媒介(매개媒介는 “응기應期”를 가리키므로, 즉 “인因”이 발생하는 시간점時間點이다), 최후에 과과는 질質(질質은 “업력業力”을 가리키므로, 즉 소위 “태어날 때 데리고 나와서, 죽을 때 데리고 감”)이다.

⊙양의兩儀를 착상錯象해서 사화四化의 선성線性linear인 관계를 얻고, 다시 “래인궁來因宮”을 배합하여 해석詮釋하면, 곧 사화四化 평면面(점點+선線=면面)의 입체해석立體解釋을 얻을 수 있다. (1차원 → 2차원)

⊙어떻게 유년流年의 운세運勢를 논단하는가.

①대운大運 12궁의 비궁사화飛宮四化로써 유년流年의 길흉吉凶에 감응感應한다 (이는 즉 대운大運이 위로는 본명本命으로 돌아갈 수 있고; 아울러 아래로는 유년流년에 응應한다)

②유년명궁流年命宮의 비궁사화飛宮四化를 대운大運에 넣고, 최후로는 본명本命에 귀납하여 득실得失을 논한다.

역주: 유년의 사화를 날리는 것은 좋지 않다.

생년사화와 자화만으로도 유년을 논할 수 있고, 아니면 대운 사화를 날려 생년사화, 자화를 만나는 것을 해석한다.

2011/08/20

무엇을 일러 **사봉삼기양의표四鳳三旗兩儀標**라 하는가: 어떠한 궁위宮位이거나, 무생년無生年 사화四化이면서 유자화有自化로서, 만일 해당 궁위宮位가 자화록自化祿이거나 혹은 자화기自化忌이면, 곧 반드시 해당 궁위宮位에서 비출飛出한 기운 혹은 록祿이 떨어진 궁위宮位를 같이 참고하여 길흉吉凶을 논한다.

예: A궁위가 자화록自化祿(혹은 기운)이고, 만일 A궁위의 화기化忌(혹은 록祿)이 들어가는 곳이,

- ①A궁위의 인궁鄰宮이면, 곧 록기祿忌의 관계가 대표하는 것은 “상흠채相欠債” 형상에 속한다는 것이다. (양의兩儀)
- ②A궁위의 격궁隔宮이면, 곧 록祿과 기운은 대대관계對待關係를 이루며, 길흉吉凶을 논할 수 있다. (삼기三旗)
- ③A궁위으로부터 순수順數 혹은 역수逆數로 세 번째인 궁위宮位이면, 곧 록기祿忌의 관계가 주초하는 것은 “유변화有變化”이다. (사봉四鳳)
- ④A궁위의 삼합궁三合宮, 곧 삼합궁의 다른 한 궁위宮位이면, 곧바로 시간時間과 길흉吉凶을 논할 수 있다.

A 31세	府 大命 乙24~33福	同⑩陰④ 丙34~43田	武貪昌曲 牙 D 官	巨⑩陽左 戊 奴	
				相	
	甲14~23父	丁酉女命		己 遷	
	廉破 木夫 癸04~13命			機③梁	
		刑		庚 疾	
	壬 兄	癸 夫	壬 子	紫殺 27세	삼합처 길흉처
			辛 財		

29세

중점重點: 27세, 남편이 세상을 떠남.

- 1.부처궁, 향심자화기, 주초 부처연夫妻緣 박薄, 만일 조혼하면 종종 “생리사별生離死別”하기 쉽다.
- 2.본명 명궁 화기化忌가 관록궁에 들어가 부처궁을 충하므로 흉하다.

3.부처궁 향심자화기는 생년기를 법상法象하면, 생년기는 노복궁에 있다(부夫의 질疾). 대표하는 것은 이 화기化忌가 배우자의 신체와 유관하다는 것이다. 즉 배우자의 신체가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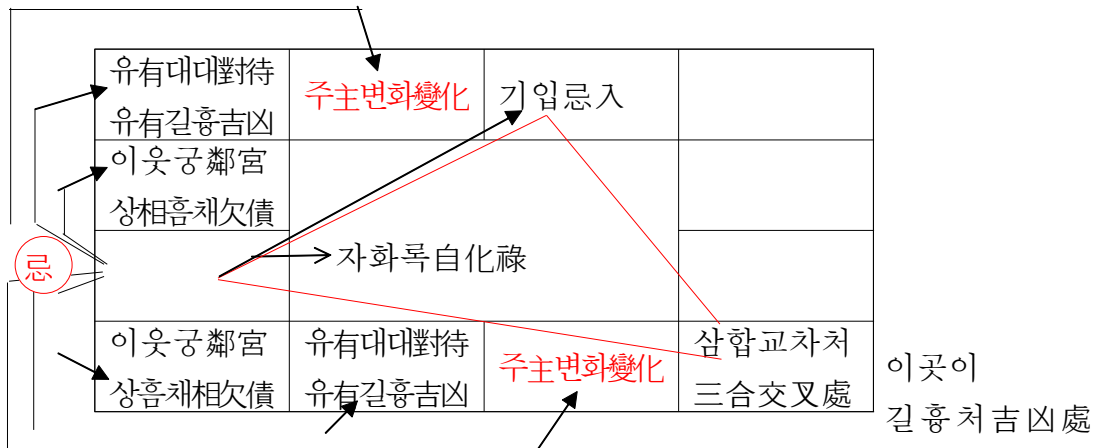
이상이 명주의 선천명격에서 드러난 상수象數이다.

1.대부大夫의 기忌가 본부本夫를 충하는 것은, 흉하여 “생리사별”을 대표한다. 이론상 응수應數하는 유년流年은 축, 미 혹은 묘이다(상象이 떨어진 궁위 혹은 발사궁). 즉 29세 혹은 31세에 배우자와의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2.대부大夫가 “무생년유자화無生年有自化”이고 게다가 자화록인 상수象數이며, 곧 사봉삼기양외표에 의거하여, 사정事情이 발생하는 시간점은 묘卯와 미궁未宮의 삼합방인 즉 해궁亥宮에 떨어지게 된다. 또한 기氣는 왕래한다 하며, 따라서 해亥 혹은 사궁巳宮이 되고, 27세 (33세)에 응應한다.

3.만일 자화록(혹은 자화기) 궁위에서 비출한 기(혹은 록)가 떨어진 궁위와 해당 궁위의 상차相差가 6궁 이상이면 곧 144절節 576상象으로 회귀하여 전석詮釋을 진행한다.

주註: 상차相差 육궁六宮이면 주변主變, 상차相差 칠궁七宮이면 주화主化.



묘궁卯宮(대부大夫)을 표적궁標的宮으로 가설하며, 자화록自化祿이 있음.

해당 궁宮이 무생년無生年이고 유자화有自化일 때 해상解象 요령要領

- (A) (a)생년사화상生年四化象과 동등同等하게 해석한다.
- (b)만일 해당 궁宮이 인위人位이면, 곧 해당 궁宮인 사람은 “자립갱생격

自立更生格”에 속한다.

(c) 생년사화生年四化는 선천기수先天氣數이며, 역량力量이 강強함; 자화自化는 곧 후천기수後天氣數이며, 역량力量이 약弱하다.

(B)

A)만일 해당 궁궁이 자화록自化祿 혹은 자화기自化忌이면, 곧 “사봉삼기양의표四鳳三旗兩儀標”법칙으로 길흉吉凶을 판단함; 혹은 “삼합론三合論”으로써 길흉을 판단.

(C)

A)만일 해당 궁궁이 자화과自化科이고, 게다가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가 과기조科忌組이면, 곧 해당 궁궁에서 비출飛出한 기룬가 떨어진 궁위宮位로써 길흉吉凶을 판단.



예例: A궁궁이 대부大夫이고, 자화과自化科이며, 게다가 선천상수조先天象數가 과기조科忌組이면, 곧 대부기大夫忌가 대전大田(B궁궁)에 들어간 것은, 은성隱性(암묵적默然)인 처전교역妻田交易을 형성함.

B)같은 이치로, 해당 궁궁이 자화권自化權이고, 게다가 선천상수조先天象數가 권기조權忌組이면, 곧 해당 궁에서 비출飛出한 기룬가 떨어진 궁위로써 길흉吉凶을 판단함.

C)만일 해당 궁궁이 자화기自化忌이면, 반드시 해당 궁궁에서 비출飛出한 록祿을 찾아 길흉吉凶을 판단하는 외외에, 응당 다시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명반命盤이 권기조權忌組 혹은 과기조科忌組라 가설假設)를 같이 참고하여 길흉을 논단함.

(D)일반적으로 비궁상飛宮象 혹은 생년사화상生年四化象은 “록수기조祿隨忌走”이지만, 단 자화상自化象은 곧 “기수록주忌隨祿走”가 된다.

해당 궁궁이 유생년有生年이고 유자화有自化일 때 해상요령解象要領

⊙대전제大前提: 시공時空을 모두 갖추므로, 발생發生한 상象과 시간時間은 단지 본本、대궁對宮에만 있으며, 해상순서解象次序는:

생년상生年象 > 자화상自化象

<A>생년상生年象과 자화상自化象이 록기祿忌 혹은 권과조權科組; 혹은 동조同組

동류同類

	과정의 기복이 큼. 결과는 길吉	생년록 자화기	생년록 자화록	록출 祿出	비길상非吉象(흉상凶象이 아님) 반드시 궁직宮職을 배합하여야 비로소 흉상凶象으로써 논論 ◎록출祿出, 대출帶出 생년기生年忌 권출權出, 대출帶出 생년과生年科 과출科出, 대출帶出 생년권生年權 기출忌出, 帶出 生年祿, 통섭삼광
궁간	전문기술	생년권	생년권	권출 權出	
화기로써	專門技術	자화과	자화권	權出	
길흉을	전업기술	생년과	생년과	과출 科出	
논단	專業技術	자화권	자화과	科出	
	과정의 기복이 큼. 결과는 쌍기雙忌	생년기 자화록	생년기 자화기	기출 忌出	

◎통섭삼광統攝三光은 록祿, 권權, 과과가 동시에 대출帶出(따라나감)됨을 가리키나, 단 보통 권權, 과과는 인위人位에 있어야 비로소 대출帶出되는 편이다.

◎록출祿出이면 곧 생년기生年忌를 대출帶出(데리고 나감)한다는 것은, 록출祿出로 구성된 비길상非吉象은 궁직宮職을 배합하여 해석을 진행한 후에야 흉상凶象이 조성되는 동시에 생년기生年忌가 소재한 궁위에 영향을 미친다. 나머지도 해석은 같다.

				A
	곡곡◎	거巨A 형- 夫-	명-	동同량梁 명-
	관官	甲 노奴	65~74	丙55~64질疾
		신사년辛巳年 남명男命		창昌D
		대노大奴와 본노本 奴의	교회交	정 재財
59세 아내 별세	노- 71세 질- 辛 복福	→ D → D 會	록기祿忌가 교회交	양陽B 전-
	질- 70세	69세	노-	자子
	庚	5~14명命		
	폐선암肺腺癌	소중풍小中風		

본례本例: 복덕福德이 라인궁來因宮이며, 또한 재백궁財帛宮 기출忌出이 형성됨. 따라서 “역수기逆水忌”이다.

재백궁財帛宮 기출忌出은, 목숨 걸고 부정하게 돈을 번다는 것을 나타내며,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하는가 여 부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번다.

별도로, 복덕궁福德宮 자화기自化忌 또한 복福이 있어도 누리지 못함을 대표한

다.

이외에, 기출忌出이 되면서 생년록生年祿을 대출帶出하는 것은, 대운大運이 이르면 발생한다.

①55~64 대운大運, 대질大疾이 본복本福이고, 기출忌出을 형성하여 생년록生年祿을 데리고 나오며, 생년록生年祿은 대부大夫에 있으며, 따라서 59세에 아내가 별세하는 것에 應한다.

②65~74 대운大運, 대질大疾 자화기自化忌가 본질本疾에 들어가고, 또한 본질本疾 자화록自化祿으로 쌍기雙忌가 형성됨. 따라서 69세는 편충偏沖으로서, 명주命主는 소중풍小中風을 앓는다; 70세는 정충正沖으로서, 명주命主는 폐선암肺腺癌에 걸림; 71세 역시 편충偏沖이고, 또한 기출忌出을 만나, 이 난관을 돌파할 확률은 아주 낮다.

록출祿出의 형식型式:

A: 생년록生年祿+자화록自化祿

B: 생년록生年祿+시동자화록視同自化祿이 대궁對宮에 사입射入됨

C: 생년록生年祿+대궁對宮에서 시동자화록視同自化祿이 날라 들어옴⇒ 부단不斷한 확장이 일어나며, 가중加重된다는 의미를 포함.

D: 생년록生年祿+ 대궁 자화록自化祿

같은 이치로 권출權出, 과출科出, 기출忌出 역시 이와 같이 해석함.

역수기逆水忌: 명재관命財官의 대궁對宮(즉 천복부遷福夫)이 “래인궁來因宮”이고 또한 “기출忌出”이 있으며, 만일 화기化忌가 생년기生年忌의 대궁對宮에서 발사發射되면, 곧 “역수기逆水忌”로서, 명재관主在命財官에서 수확收穫이 있음을 주主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 도道를 역행하여 행行한다. 가령 상례上例에서, 득재得財할 수 있고, 득재得財가 많지만, 단 종종 일체 부정한 돈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이렇게 하면 곧 종종 그 복택福澤과 수원壽元을 손상하고 거스른다.

命例解說:

	편충偏沖	유명流命	
	래인궁 33세 -명-	日月㉞ 34세 -父-	탐貪㉠ -관-
C	丁 43~52재財 창昌 -명-	戊 33~42자子 기근	己 23~32부夫 庚 13~22형兄 기機㉡우右㉢
	丙 53~64질疾 유명流命 54세	무술년戊戌年 여명女命	辛 3~12명命 자紫상相곡曲 B
A	乙 친遷 엄廉		壬 부父
	甲 노奴	관官	전田 복福

- 1.본명本命에 생년과기生年科忌가 있으며, 직업工作의 형식形式: 샐러리맨 혹은 무자본으로 돈을 번다.
- 2.부모궁父母宮 무생년無生年, 유자화권有自化權. 대표代表하는 것은 부모父母가 자립갱생격自立更生格으로서, 반드시 직장에 나가 돈을 벌며, 게다가 부모가 권력權力을 쥐고, 지출이 많으며, 고생辛勞을 한다는 것을 대표한다. 생년권을 법상法象하면 곧 공간宮干은 “기근”인데, 그 화기化忌가 본부本父에 들어가므로, 흉凶을 주도한다. 기간己干인 본부本夫가 대부大父로 변할 때, 부모에게 일이 생긴다는 뜻이고, 흉상凶象은 축미궁丑未宮에 응한다.
- 3.위로부터 기궁己宮은 33~42 대운大運의 대부大父이고, 다시 아래로 유년流年을 밀어가면, 무궁戊宮이 대한명궁大命命宮이며, 아울러 래인궁來因宮이고, 또한 편충위偏沖位이며, 따라서 33세에 부모에게 일이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위법위位法位)
- 4.축미궁丑未宮이 응수應數하는 정충위正沖位이며, 따라서 34세에 부모에게 일이 있다고 추단한다.
5. 53~64 대운大運의 대관大官이 경궁庚宮이며, 경간화록庚干化祿이 본부本夫에 들어가 본관本官을 비춘다. 비록 명주命主가 단신單身으로서, 반드시 대부大夫의 길상吉象을 논할 수는 없으나, 직접 대관大官의 길상吉象(탐랑화록)을 취해 논단論斷하면 곧 가可하다.

命例解説:

			D C		
	거트 父	염상廉相	梁◎昌曲◎	살殺 官	
	己 노奴	庚 친遷	辛 질疾	壬 재財	
A	탐貪◎ 命	己酉年 여명女命	同	癸 자子	
	戊42~51관官		← C	武◎	C
A	음陰 命	→ B		甲 부夫	
43세	丁32~41전田		↘ D	陽 財	39세
	자부紫府	기機 41세	과破	乙 형兄	
	丙22~31복福	丁12~21부父	丙02~11명命		
					C

◎집을 사는 방위方位:

권동權東에 좌坐하여 록서祿西를 조朝, 부처夫妻에서 현상顯象
 록서祿西에 좌坐하여 권동權東을 조朝, 관록官祿에서 현상顯象
 북향北向에 좌坐하여 기남忌南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나쁘다
 (무곡 록祿은 서쪽에, 탐랑 권權은 동쪽에, 문곡 기忌는 남쪽에 있다)

- 1.생년기生年忌가 질액疾厄(명命的 육내궁)에 있어서, 득재得財를 주主하지만, 다만 재다신약財多身弱이다.
 - 2.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는 과기조科忌組이다.
 - 3.대운大運에 생년사화生年四化가 앉아 길吉함을 주主하며, 실질적으로 좋으며, 이는 그것이 선천정수先天定數이기 때문이다.
 - 4.대운大運에 해당 생년사화生年四化가 앉으면, 곧 기타 11궁위宮位의 동류자화상同類自化象은 모두 화입化入하는 것과 같아서 록입祿入、권입權入、과입科入、기입忌入이므로, 길吉함을 주主한다(이는 곧 만상귀일원萬象歸一元이다).
- 예例: 대명大命에 생년권生年權이 앉으면, 곧 전택田宅의 시동자화권상視同自化權象은 권입權入이 되므로 길吉하다. 대천大遷(본부本夫)에 생년生年祿과 또한 자화과自化科가 있다. 곧 전택자화록상田宅自化祿象은 록입祿入이 되어 길吉하다.(본대일선本對一線이므로 대한천이궁은 대한명궁과 같다)
- 다시 “래인궁來因宮”을 배합하여 풀이하면, 대부大父(본노本奴)는 곧 사기업에서 중개仲介를 한다는 뜻이다.(실제 사정實情: 토지중개土地仲介) 래인궁이 노복궁이므로 사기업에 근무한다는 뜻이다.

◎32~41대운大運의 대재기大財忌①본전本田에 들어가 ②시동자화권視同自化權을 만나고, ③자화록自化祿을 만나는데,

①본전本田은 명命의 육내궁六內宮이고 게다가 육음궁六陰宮이며, 따라서 이번 10年年 대운大運에서 득재得財를 하고, 게다가 득재得財를 많이 한다.

재기財忌가 육내六內+육음宮六陰宮에 들어간다.

②시동자화권視同自化權은 재財가 쾌속快速으로 들어옴을 주도한다.(권權의 속성)

③자화록自化祿으로서 삼상일물三象一物을 형성하며, 이곳에서는 득재得財를 가리킨다.

따라서 39세에 중개대금仲介獎金 3~4백만百萬 위안元; 41세에 7~8백만百萬 위안元.(이는 39세 중개요금을 합쳐 총결산한 것이다)

역주)대만 위안元은 환율이 대략 40을 곱하면 된다.

주註: 득재得財를 논하자면, 록祿과 권權은 큰 돈을 번다는 것을 주도하며, 과科는 적은 돈을 주도하고, 기忌는 곧 “현금現金”을 주도한다.

⊙42~51대운大運의 대관자화권大官自化權은 이번 10年年 대운大運에 정제正財를 얻음을 주한다.(즉 직업에서 얻은 재財)

⊙본재本財 임간기壬干忌가 본부本夫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 생생의 재財가 가는 최종적인 방향(구경설究竟說)은, 돈이 배우자配偶 신상身上에 쓰임을 나타낸다.

⊙본부本夫 생년록生年祿이 대궁對宮 본관자화록本官自化祿을 만나면, “록출祿出”을 형성하여 그 질質을 강화하지만, 오히려 또한 그 도道를 반反하여 향行한다는 의미意思이므로, 부처간夫妻間에 연분緣이 있지만, 단 배우자配偶의 연고緣故로 인하여 직업工作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

⊙여명女命이 만일 자녀궁이 갑간甲干이고, 대궁對宮 무곡생년과武曲生年科를 만나, “과출科出”을 형성하면, 이른바 사람이 도화桃花를 따라서 가는 도화이며, 이는 전택田宅(6내內)으로부터 과科가 출出하여 자녀子女(6외外)에 이르는 도화桃花이기 때문이다.

⊙생년기生年忌가 대궁對宮에서 자화기自化忌를 만나면, “기출忌出”이 된다.

⊙제왕절개 시진時辰을 논論하려면, 우선 생년기生年忌가 육내宮六內宮(가장 좋기로는 육음宮六陰宮)에 들어가야 하며, 다시 생년록生年祿, 권權, 과科가 떨어지는 궁위宮位를 살피고, 최후로 비로소 12궁十二宮 비궁사화飛宮四化를 살펴야 한다.

命盤解説

			자부紫府	명주命主는 “특별히 감성感性的인 여인”에 속함
무武◎ 자子	갑인년 여명女命		음陰 癸	→C “정신적인 외도外遇”를 대표
			甲 田	←C 외도外道, 이혼離婚 6내內→6외外로 과출科出, 사람이 도화桃花를 따라가는 도화 과科: 모호迷糊를 나타냄(정신면) 만일 과출科出이면 곧 “과감히 죽는 형 敢死型”인, 사람이 도화를 따라가는 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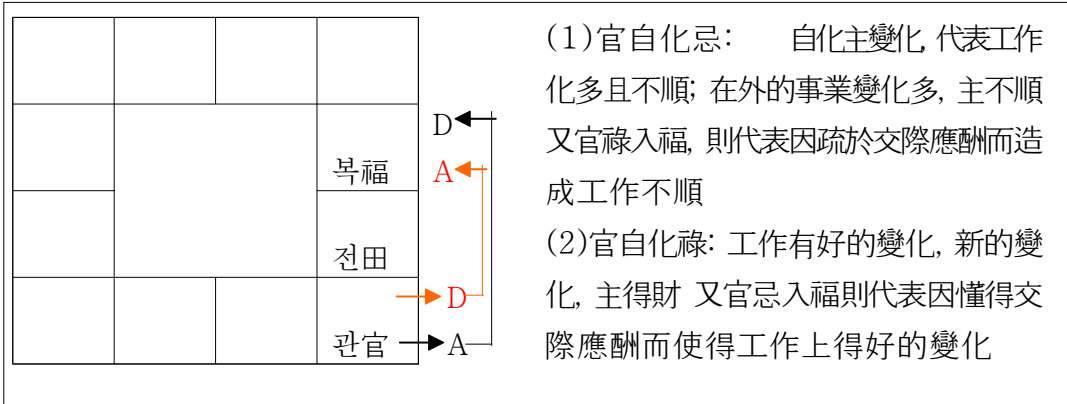
⊙래인궁來因宮이 복천부福遷夫이고 게다가 “기출忌出”을 형성하면 곧 “역수기 逆水忌”를 구성한다. 그 질質을 강화加強하지만 오히려 그 도道에 반反해서 행行한다는 의미意味이며, 절대로 기억할 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지 말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기수氣數가 가서 종종 應하는 명격命格은 기수氣數가 현顯現하여 이미 소진된 시간時間에 이른 것이다.

⊙복덕福德에 생년기生年忌가 앓고, 다시 자화기自化忌를 만나면, 부처夫妻의 대對待가 좋지 않음을 대표하며, 즉 이른바 “빈천貧賤한 부처夫妻는 온갖 일이 다 슬프다.”

⊙록祿과 기忌의 주종관계主從關係는, 비궁飛宮과 생년사화生年四化에서는 록수기주 祿隨忌走가 되고, 한편 자회自化에서는 기수록주忌隨祿走가 된다.

.....

.....
命盤解説



(1)관官자화기自化忌: 자화自化는 변화變化를 주주하며, 직업을 대표하고, 변화變化가 많으며 게다가 불순不順; 외부에서 사업 변화가 많고 불순不順함을 주주한다.

또한 관官화록祿이 복덕에 들어가면, 곧 교제접대에 소홀해서 직업이 불순不順해지는 것을 대표.

(2)관官자화록自化祿: 직업에서 좋은 변화變化, 새로운 변화變化가 나타나고, 득재得財를 주주.

또한 관官화기忌가 복덕에 들어가면 곧 교제접대를 이해해서 직업상 좋은 변화가 나타남을 대표.

⊙사봉삼기양의표四鳳三旗兩儀標의 예해例解:

관官이 자화기自化忌이고 관官의 화록祿이 전택(관官의 이웃궁鄰宮)에 들어가면, “서로 부채가 있음相欠債”을 주하며, 해석解釋은 “점면店面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수數 = 1 + 2)

⊙상례上例에서 관官자화록自化祿(혹은 자화기自化忌)이고, 아울러 관官화기化忌(혹은 관官화록化祿)이 복덕福德(관官의 격궁隔宮)에 들어가면, “대대對待가 있음”을 주하며, 즉 “길흉吉凶”이 있는 관계關係임(수數 = 1 + 3)

⊙역리易理 중中, 수數가 5를 넘으면 곧 정상正常으로 회귀함을 대표하며, 따라서 단결斷訣에서는 오로지 사봉四鳳에 닿아야만, 변화變化를 주주함(수數 = 1 + 4)

⊙복덕福德에 생년권生年權이 앓고, 다시 자화권自化權을 만나면, 해의解義는: 감敢히 벌여 감敢히 쓰는 형型이며, 금생금세生今世에 있다가, 또 금생금세生今世에서 없고, 필경 무無가 되며, 최종결과最終結果는 “무無”임을 대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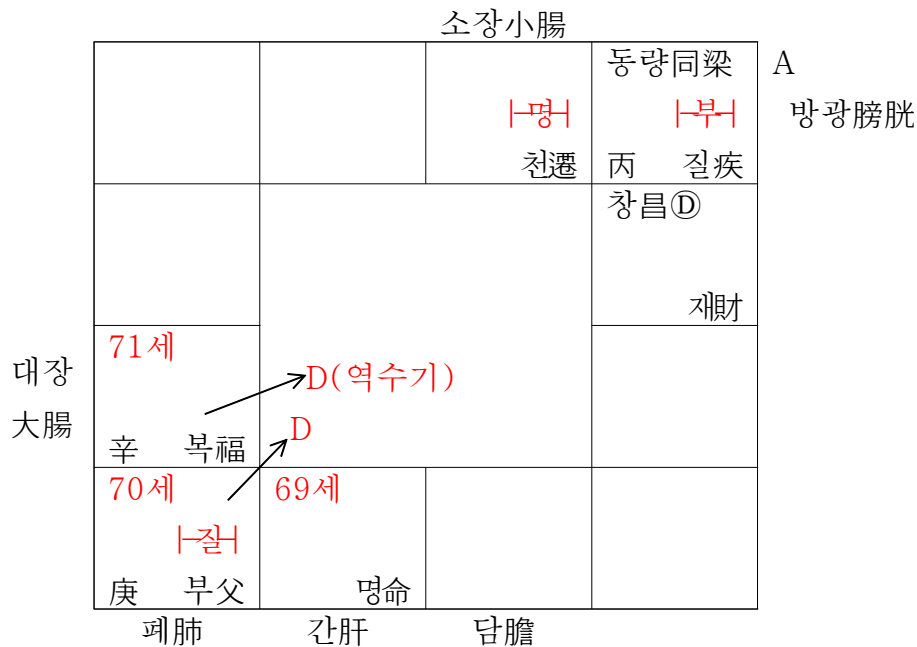
⊙명궁命宮에 생년록生年祿(연분緣份, 재財, 총명聰明함을 대표)이 앓고, 또한 자화록自化祿(그 질質을 가강加強하지만, 오히려 또 그 의義에 반反한다는 의미意思를 대표)이면, 이것은 “록출祿出”이 된다.

만일 대운大運이 변하여 대질大疾(본명本命)이 되면, 곧 십년 대운大運의 신체건강에 빨간 불이 켜진다는 의미이며, 록출祿出, 과출科出은 수명壽元과 유관有關하다. 이때 반드시 “노奴, 질疾, 전田”으로부터 교역交易에서 수명壽元을 살피며, 만일 증상證狀을 논하면, 곧 “궁宮에 의거하고 다시 별星에 의거하는” 원칙原則으로 해상解象한다.

⊙록祿이 명命이나 혹은 재財에 있으면, 재財가 있음을 주하지만, 단 재財가 새어나간다.

⊙만일 명궁命宮에서 “록출祿出”을 형성하면, 명주命主가 복福을 아까워하지 않거나 혹은 인연緣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命例解說



1. 증상론證狀論: 80~90%는 “궁宮에 의거하고 다시 별星에 의거하는”원칙原則으로 논단論斷.
2. 대질大疾에서 화출化出된 기운가 떨어진 궁위宮位로부터 증상症狀을 판단한다.
3. 본례本例는, 대질자화기大疾自化忌가 인궁寅宮에 떨어지는데, 인궁寅宮이 대표代表하는 것은 폐肺 혹은 흉강胸腔의 질병疾病이다.
4. 유년流年이 만일 연속連續 화기운化忌運으로 가면, 곧 최후最後 일년一年의 궁위宮位가 대표代表하는 증상症狀으로써 최종적最終的 결과結果를 결산結算하지만 단 매每 일년一年의 화기化忌 궁위宮位가 대표代表하는 증상症狀이 모두

출현出現한다.

⊙천동天同 혹은 천기天機의 화록化祿은 IQ智商가 높음을 주主; 탐랑화록貪狼化祿 역시 IQ智商가 높음을 주主하지만, 단 천동天同이나 천기天機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화상四化象이 형성形成하는 룝출祿出, 권출權出, 과출科出과 기출忌出은, 같은 별同星에 생년生年과 자화自化가 앓는 역량力量이 부동성不同星에 생년生年과 자화自化가 나뉘어 앓는 것보다 크다.

각 궁위宮位의 장부臟腑 배당

자오유주子午流注					오운육기五運六氣			
비	심	소장	방광		심포	심	비	삼초
위			신		방광			위
대장			심포		대장			소장
폐	간	담	삼초	담	폐	신	간	

2011/08/27

⊙궁상宮象을 합일습一하면, “길흉吉凶”상象이 드러나지만; “성신星辰”을 더해서 해석解釋해야 비로소 “길흉吉凶”상象을 온전히 서술敍述할 수 있다.

예例: 대천大遷+자화기自化忌 -> 길흉吉凶을 정하고, 다시 “별星”을 더해서 현상現象의 상세한 부분細節을 확인한다.

거문巨門: 계수癸水, 암성暗星이며, 대표代表하는 것은 비계飛階scaffolding; 맑지 않은 성질의 물水; 닢수溺水(낙수); 트럭卡車, 버력차砭石車(버력, 탄광에 버려진 돌, 사용례: 저런 버력을 입을 놈(벼락을 맞을 놈? 빌어먹을 놈?))

천기天機: 변동變動이 빠르다(주안라이주안치鑽來鑽去drilling), 대표代表하는 것은 오토바이摩托車, 비행기飛機, 한편 파군破軍은 컨테이너차貨櫃車, 파군은 계속 왕복, 반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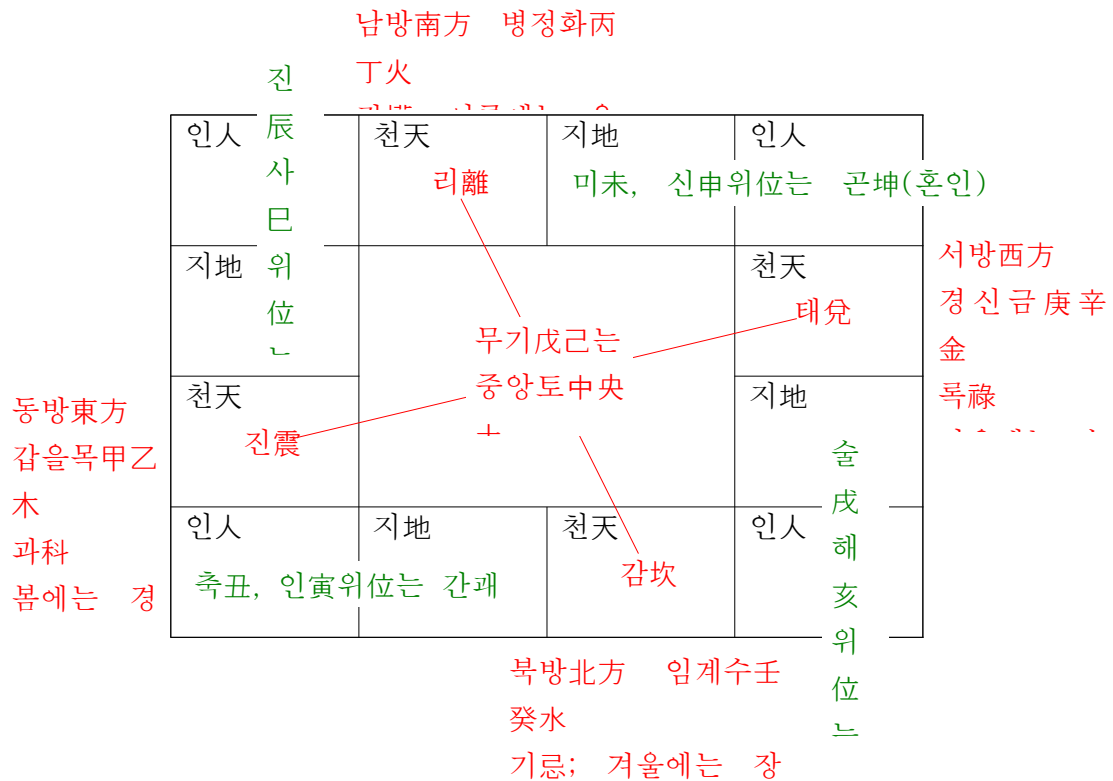
성신星辰: “오행五行”과 “음양陰陽”을 겹쳐서 현재있는 만사만물萬事萬物을 논술(오행五行, 이미 “후천적 논술後天的論述”에 속한다) 음양은 선천先天이다.

⊙별星은 (선천先天에서) 십이원十二垣에 깔려 있고; 성신星辰의 배열排列은 (후천後天에) 십이궁十二宮으로 떨어진다.

수數가 정定한 36위三十六位: 사화상四化象으로서 일관되게 천지인天地人 3반三盤을 꿰뚫는다(즉 사화四化로써 일관되게 36三十六을 꿰뚫는다)

자미紫微: 북두北斗 재왕성帝王星, 존성尊星, 재성財星, 고孤를 주로 하는 별星 (기토己土, 음토陰土)

○만일 명반命盤을 일태극一太極으로 간주하면, 곧 음양陰陽의 양의兩儀를 안에 품으며,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는 록권과기祿權科忌의 사상四象이며, 그리고而 삼재三才는 자위子位에서 개천開天하고(하늘을 열고); 축위丑位에서 벽지關地하면(땅을 일구면); 인위寅位



에 입인立人(사람을 선다).

진震태兌리離감坎은 사정괘四正卦
건乾곤坤손巽간艮은 사우괘四隅卦

토거중土居中, 토土는 가운데 거居한다:

정면해正面解, 가장 중요, 총사령總司令

반면해反面解, 가장 불중 중요, 사화四化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

⊙도화桃花를 증가增加시키는 작전법作法(부처夫妻 감정感情을 촉진할 수 있다): 주초와실臥室(침실)에서 서남방西南方(곤괘坤卦.혼인과婚姻卦)에 맑은 물淸水을 놓거나 혹은 원앙鴛鴦이 물에서 노는戲水 천수川繡(자수)를 놓는다.

⊙집을 사려고買房子 논論하는 길위吉位: 以선천명반先天命盤의 생년사화상生年四化象으로써 論斷좌귀조귀坐貴朝貴 혹은 좌기조기坐忌朝貴인지 논단할 수 있으며, 그중 “귀貴”가 가리키는 것은 “록祿, 권權”이다.

⊙인생人生에서 가장 중요한 일事: 명예와 이익, 단 이익 > 명예, 즉 록祿 > 과科

관록주官祿主의 비교比較:

①자미紫微. 작爵(관귀官貴)록祿의 별星. 입명入命하거나 혹은 관록官祿에 들어가서, 육길성六吉星이 상보相輔하면, 공직公職에 임명될 수 있다.

②태양太陽. 사士, 농農, 공상工商 모두 논論할 수 있으며, 하는 짓做이 있으면 얻는 형得型에 속한다(후천작위後天作爲)

③염정廉貞. 정태靜態 관록주官祿主(길흥吉凶을 나타내지 않으며, 단지 전업專業, 공작工作에 대해 하는做 정태靜態 논술論述

예예: 자紫파破청昌곡曲괴魁가 기축궁己丑宮에 앉아, 대궁對宮에 천월天鉞이 있으면, 이로공명主異路功名을 주주로 한다.

⊙재성財星이 입명入命하면, 재물이 있고有財, 수명이 있음有壽을 주로 한다.

⊙성신星辰은 단지有在명궁命宮에 있을 때만 비로소 개성個性을 논할 수 있으며, 기타 십일궁十一宮은 반드시 공간宮干의 사화四化를 살핀다.

.....

기機 재財 癸 명命		전당지재 典當之財	과破 전田
	C		명命 丁42~51관
51세		탐貪 전田 庚 질疾	음陰

1. 대재기大財忌 -> 입질入疾(명사의 6내內+6음陰), 득재得財를 주주함(기리는 과
과가 된다)
2. 대재록大財祿 -> 입전入田(록祿은 인인이 된다)
3. 대재大財에는 시동자화과이며, 곧 대재화기大財化忌인 결과는 반드시 대운을 살
핀다. 즉 본질本疾이 아니라, 대전大田이다.
4. 1+2를 합해서 사물행업事物行業을 논한다. -> 전당포

◎삼합三合: 명사, 재財, 관官이 가리키는 것은 시간時間

사정四正: 명사, 천遷, 자子, 전田이 가리키는 것은 공간空間

-> 이것이 곧 정확한 삼방사정三方四正이다.

◎격국格局: 격格은 공간을 가리키고; 국局은 시간 즉 국세國勢

◎일반적으로 성신星辰을 논명論命의 주체로 자미두수는 명사, 재財, 관官을 공
간으로 보는 것이지만 이것은 착오적錯誤的 해상解象이 된다.

◎두수 성신의 배열방식은 사정적四正的 방식이 드러나므로 소위 주성主星이 가
리키는 것은 자미계 6성 + 천부계 8성 + 좌우창곡左右昌曲이다.

예: 12궁에 자미성이 분포하는 분류는:

자오묘유子午卯酉: 자탐紫貪 조합, 이 네 궁은 사생四生 혹은 사패四敗의 지地,
따라서 도화桃花를 주주한다.

진술축미辰戌丑未: 자파상紫破相 조합, 이 네 궁은 사고四庫의 지地, 따라서 명
록名祿, 즉 명예와 녹봉祿俸을 주주로 한다.

인신사해寅申巳亥: 자부살紫府殺 조합, 이 네 궁은 사마四馬의 지地, 따라서 역
마驛馬를 주로 한다.

자파紫破와 자살紫殺의 비교比較

①명궁命宮이 자파紫破 혹은 자살紫殺에 앉으면, 모두 “화살위권化煞爲權, 위기
용爲己用”, 즉 살煞을 화化해서(바꾸어) 권權으로 하고, 자기가 쓴다는 것으로서,
이 때의 파군 혹은 칠살이 명사에 앉으면 “화권化權”으로 여긴다.

②자파紫破는 타인의 관념과 감정을 고려하는 조합에 속하며, 따라서 비록 “화살
위권化煞爲權”이라 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색을 살피는데, 다른 사람이 알
아차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③자살紫殺은 “밖에 나와 있으면, 임금의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있어서”, 다
른 사람이 알아차리더라도 거리낌이 없다.

예례:

①대자大子에 자살紫殺이 앉고, 궁간宮干이 을乙이면, 자미자화과紫微自化科인

데, 오히려 세상이 다 알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풍신형風神型(바람둥이)인 도화桃花이다.

화과化科가 있으면 도화桃花가 일어나기 쉽다.

②대자大子에 자파紫破가 앉고, 공간宮干이 을乙이면, 역시 자미자화과紫微自化科이지만, 가리고 숨는 도화桃花인 것이다.

⊙자부紫府가 동궁同宮하면, 고孤를 주초함(육친六親 방면의 고孤로 표현됨)。자미紫微와 천부天府는 각각 북두北斗와 남두南斗의 제왕성帝王星으로서, 소위 “왕불견왕王不見王”이므로, 동궁同宮하면 곧 제왕帝王은 서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고孤를 주초로 한다.

2011/09/02

1.命理學是“相對論”，不是“絕對論”。命盤相同者，人生榮枯未盡相同，因其所遇之人，事，物不同，也就是“客觀條件”不同所致，一般而言，對命主的影響： 객관조건>주관조건

2.명반에 나타난 상수象數의 길흉은, 득실이 종종 확연히 드러나지만 단 진정한 중점은 상수가 대표하는 함의涵義를 어떻게 전석詮釋하는가이며, 말하자면 “어떻게 해상解象하는가”이다.

3.걸출한 명리선생命理師은 반드시 당시의 시공배경時空背景으로써 상수象數에 대한 전석詮釋을 진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명례해설

무오년 여명		35세		37세	
B	살자紫			형刑	
	정05~14명 기①량	戊 父	己 福	庚 田	염과
	병15~24형 상 左				
을25~34부	임				
D	거日 昌 명	무탐①	동음② 曲	부 右③	
	갑35~44자	을45~54재	갑55~64질	계65~74천	

혼인의 6내궁: 명命, 재財, 부夫, 질疾, 전田,

혼인의 유무를 논하면,

1. 긍정肯定적 的 有有는, 본부本夫의 사화四化가 혼인婚姻육내궁六內宮에 들어가, 자화自化동조同組 혹은 선천先天상수조象數組를 만난다.
2. 상대相對적 的 有有는, 본부本夫의 사화四化가 혼인婚姻육내궁六內宮에 들어 가지만, 단 자화自化동조同組 혹은 선천先天상수조象數組를 만나지 못한다(즉 그 象象이 빈 것이다).
3. 35~44대한大限에서 보면, 대명大命(본자本子)의 자화기自化忌가 대표하는 것은:
 - a. 태양太陽화기化忌이므로, 늦게 자식을 얻는다. 득남得男
 - b. 기忌가 나타내는 것은 緣緣이 박薄하다. 따라서 도화桃花가 없는 편이며, 종종 “시작하면 바로 끝난다.”
 - c. 태양太陽관록주官祿主의 화기化忌이므로, 만나는 대상對象(혼인 상대), 사업事業 혹은 직업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보다 못하다.
 - d.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對象(이상형)을 만나지 못하고, 반기지 않는 사람만 온다.
4. 대명大命자화기自化忌이므로, 곧 대궁對宮을 논함: 대명大命+본전本田=기忌, 본형本兄에 있는 생년기生年忌를 법상法象하지만, 단 본형本兄에 자화自化가 있으므로 대복大福이 되며, 이 곳의 복덕궁위福德宮位는 당연 “샤오산小三(작은 마누라)”의 象象이다

역주譯註: 선천사화는 체體이고 자화自化는 용用이다. 따라서 자화가 있으면 선천 궁위가 아니라 대한(혹은 유년)궁위로 해석된다.

주註:복덕궁福德宮--> 복福을 누리는 궁宮(샤오산小三의 부처궁夫妻宮)

5. 대자太子(본천本遷)에 생년과生年科가 앉아 도화桃花를 주주로 한다. 이것이 우필右弼 화과化科이기 때문에 이는 샤오산小三(불륜녀)의 도화이며, 라인궁과 합하여 해석하면 곧 대상對象은 당연히 상사上司, 라오반老板(사장) 혹은 나이가 더 많다. 또한 라인궁에 자화가 있으므로 “본부本父”를 “대관大官”으로 보며, 일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따라서 결국 불륜 도화桃花의 대상은 근무하는 곳의 사장, 대표, 상사上司이며 자기 회사 외에 주요 거래처를 포함한다.

역주譯註: 좌우창곡左右昌曲은 주성主星이 아니라 보좌輔佐성星이므로, 보조 secondary라는 의미가 있다.

6. 대관화기는 본형本兄(6음궁陰宮, 이동異動이 주主)에 들어가므로, 35세에 직업이 변동함을 대표한다.

7. 대관에 시동視同자화권(태음화권)이며, 따라서 명주命主 자기가 권출權出을 형성하고, 권출權出이 질액(6내궁)에 이르므로 길خم이 주主이다. 따라서 35세 혹은 37세의 직업이동은 좋은 변동이다.

역주: 시동자화(향심력)는 자력自力 인소因素이고, 자화(이심력)는 타력他力 인소因素이다.

역주: 37세 대천大遷은 시동자화록(태양)이며 대한 명궁으로 들어가고, 또한 태양은 관록, 직업을 뜻한다. 자화기自化忌가 있으므로 쌍기가 될 우려도 있다.

8. 대부大夫 갑간甲干 사화四化는 록권祿權이 본관에 들어가고, 자화동조 혹은 선천상수조를 만나지 못하며, 갑간 과科는 본재에 들어가지만 역시 자화동조 혹은 선천상수조를 만나지 못한다. 화기는 본자本子에 들어가고, 비록 자화동조를 만나더라도 혼인의 6내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10년에는 결혼할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역주: 이 명반은 라인의 대궁에 선천화권이 있고, 따라서 선천상수조는 권기조權忌組이다.

9. 대자太子 화권이 본자(대명)에 들어가 자화기를 만나므로, 대자+본명=권權+기忌이며, 이는 도화가 급히 왔서 쾌속으로 얻지만 바로 가버리며 최후에는 무無이다.

10. 대부大夫+대자太자의 상수象數가 좋지 않으므로, 이번 10년 동안 명주의 개인생활은 차이가 뚜렷하다.

역주: 대부大夫는 권출權出이며 대자太자의 선천화과를 데리고 나간다.

.....

	무오년 여명	35세	37세
	삼자紫		형刑
B	정05~14명 기Ⓞ량	戊 父 己 福	庚 田
	병15~24형 상 左		
	을25~34부		
D	거日 昌 -명- 갑35~44자	무탐Ⓞ 을45~54재	동음Ⓞ 曲 -夫- 갑55~64질
			부 右Ⓞ 계65~74천

혼인의 6내궁: 명命, 재財, 부夫, 질疾, 전田, 노奴

11. 45~54대운은 대명大命에 생년록이 있으므로 곧 대질(본전)과 대자(본노)의 시동자화록이 모두 “록입祿入”으로 변하는 吉象이다. 한편 끊임없는 연기緣起를 대표하며, 두 개 궁위의 궁직 중첩은 모두 도화와 유관하고 따라서 두 곳의 록입祿入으로 도화를 공급한다.

Ⓞ복덕궁에 태극을 세우고, 만일 그 재백, 관록의 상수가 좋으면 이자 차이를 아우르는 재財를 벌 수 있음을 대표한다.

Ⓞ여명女命이 임신하는 상수象數는, 대질大疾 사회로부터 상象을 본다.

12. 대질 신간辛干에서 화化한 록권기가 본자本子에 들어가 이미 삼상일물三象一物(인사물人事物)을 이루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발생함을 대표. 응수應數는 상象이 떨어진 궁위의 본本, 대궁對宮(39세) 혹은 발사궁(40세)에 있다.

Ⓞ논명시에 소위 리리와 해홍는 당연 “논명하러 온 자”의 입장에 서서 논단해야 한다.

Ⓞ산명算命을 좋아하는 별의 비교:

태음, 진정한 명리命理의 별이며, 명리 연구를 반기고 산명算命을 좋아한다.

탐량, 오술五術의 별

천기, 오술五術의 별

Ⓞ성신星辰으로 보아 구재口才가 좋은 순서: 문곡>문창>거문

	거문 명		
	천수이벤陳水扁		
		천기	

구설시비를 초래하기 쉽다.

	천기 명		
	慧律法師		
		거문	

천기는 주동主動의 별로서 사마지에서 유명
流命이 태음자화기를 만나면 감정(애정)이
서툴러진다.

	林洋港		
천기 거문			

천기 명			
	다이애나黛安娜 왕비		
			태음

기음조합: 역마, 감정적 파동을 주하며 가장
꺼리는 것은 천기자화(시동자화포함)이며 그
화권, 화기는 상수가 더 더욱 나쁘다. 혼
도화가 노상路上에 있는 연緣이다.

중
인,

2011/09/03

천기天機의 해설 「命理學正解」참고

1. 천기天機가 자오묘유子午卯酉에서는 거문巨門과 동궁同宮하거나 혹은 대궁對宮으로서 학술學術, 변론辯論이 주주이며, 명命에 있으면 변재辯才가 막힘이 없다는 뜻이다.

2. 천기天機: 인자仁慈, 교화敎化의 별이며 생년록生年祿을 만나면 학술노선學術路線을 간다.

성신星辰은 완전히 사화四化의 영향을 받으므로, 즉 역량力量: 사화四化>성신星

辰

3. 기음機陰: 인신사해寅申巳亥(사마지지四馬之地), 역마驛馬를 주하고 파동波動을 주하며 혼인婚姻, 애정感情, 도화桃花에 불리하다.

가장 꺼리는 것은 천기天機의 자화상自化象(복祿, 권權, 과科, 기룬 모두 같다)이며, 게다가 태음太陰 자화기自化忌를 만나는 것을 꺼린다. 모두 파동波動을 주하며 애정感情에 대하여 불리하다.

⊙자미두수紫微斗數 고적古籍은 참고할 수 있으나 깊이 연구研究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는 그 논단論斷이 종종 양극화兩極化되어 성신星辰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서書에서 서술하는 것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명命+관官=과科(과갑科甲, 과명科名), 후천적後天的 상수象數
반드시 자아自我 노력努力이 있어야 비로소 공명功名이 있음을 대표한다.

		월鉞	
			을 명
		科	
	자과창곡 괴魁 己 관		

⊙염정廉貞: 음화陰火, 전기電氣 기기器機에 있는 소켓이며,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태양太陽: 양화陽火,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성신星辰이 대표하는 신명神明

자미紫微: 자미제군紫微帝君

천동天同: 토지공土地公(복덕정신福德正神)

무곡武曲: 토지공土地公(재백財帛)

⊙권權: 높이 솟음, 깨끗함, 짝 참(여명女命은 흉부胸部가 큰 것을 가리킨다).

⊙과科: 가늘고, 작고, 정교精巧하며, 좁다(태음화과太陰化科는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며, 심근경색 등이다).

- 록祿: 확대擴大, 확산擴散
- 기륵: 수속收束(끝맺음), 수렴收斂

무부살武府殺조합組合: 여명女命에 있어서는, 냉담한 얼굴을 한 도화桃花를 주로 한다. 정신精神을 한곳에 모으고, 본성本性을 드러낸다.

○취성종施性忠(1938.07.31), 무파상武破相 조합組合이며, 명命은 해궁亥宮에 있다.
남명男命, 명命에는 파군破軍이 있고 대궁對宮은 무상武相, 아내가 86年年 자살自殺하여 죽었다.

天祿 相存 1977年48岁 丁巳 運田宅 遷移 62~71	天擎 衆羊 1978年41岁 戊午 運官祿 疾厄 72~81	廣七天天天 貴殺鐵喜婁 1978年41岁 己未 運交友 財帛 82~91	地天劫馬 1977年48岁 庚申 運遷移 子女 92~101
巨右陀 門弼羅 1976年39岁 丙辰 運福德 交友 52~61	文墨天機 ● 紫微斗數 V.0.2.249 - 命理精研 姓名: shixi 陽男 水二局 命宮: 戊寅年七月初五日酉時 乾造: 庚 己 甲 癸 寅 未 子 酉 命主出生後2年7月4天38鐘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七赤 正印 偏印 正財 比肩 劫財 傷官 財星 1941 1951 1961 1971 1981 1991 2001 2011 自化顯示 →A →B →C →D		1969年31岁 辛酉 運疾厄 夫妻 102~111
紫貪天 微狼刑 1978年38岁 乙卯 運父母 官祿 42~51			天左火 同輔星 1970年33岁 壬戌 運財帛 兄弟 112~121
天太地 機陰空 1974年37岁 甲寅 運命宮 田宅 32~41	天文文天紅 府昌曲斜管 1973年36岁 乙丑 運兄弟 福德 22~31	太鈴 陽星 1972年35岁 甲子 運夫妻 父母 12~21	武破 曲軍 1971年34岁 癸亥 運子女 命宮 2~11
限: 2~11 癸亥限 12~21 甲子限 22~31 乙丑限 32~41 甲寅限 42~51 乙卯限 52~61 丙辰限 62~71 丁巳限 72~81 戊午限 82~91 己未限 92~101 庚申限			

응수應數하는 시간점時間點은 사화四化에 의거하여 논단論斷한다.

2011/09/09

명례해설命例解説. 임인년壬寅年 여명女命

D			
거 刑 40세 -자-	염廉상相	량梁 [㉠] -명-	살 43세 -명-
을64~73천	병54~63질	정44~53재	무34~43자
탐貪 51세 -자-			동 요姚
갑94~83노			기24~33처
음 曲 50세 -재-	임인년壬寅年	양녀陽女	무 [㉡] 45세
계84~73관	D	C	경14~23형
자 [㉢] 부 우右	C	C	양陽 창昌
기機	과 左 [㉣]	BD	
입토 전田	계	복	입
	부	신04~13명	
B	B		

1. 임의任意的 한 장 명반 중에서, 자화自化인 궁위宮位가 아주 많은(5개個 이상
 以上) 상의象意 해석解釋

정면해正面解: 명반命盤 주인主人이 생활이 다채롭고, 다변화多變化; 게다가 명
 반주인의 인생관人生觀이 다채로운 생활을 반긴다는 것을 대표한다.

반면해反面解: 불안정不穩定한 생활生活

주註: 명반命盤이 자화自化인 궁위宮位가 작을수록, 인생은 더욱 평온하고 인생
 관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2.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 권기조權忌組

(생태공간에는 록권祿權이 있다. 5:10공중)

논도화論桃花: 갑자기 오고, 이름없이莫名 오고, 끝냄結束도 갑자기突然

3. 명궁命宮에서 권출權出+과출科出(권과權科 동조同組), 서로 인과因果임. 따라
 서, 권출權出은 생년과生年科가 따라 나온다; 과출科出이면, 생년권生年權이 따
 라 나옴帶出.

4. 생년기生年忌는 형묘(전지재田之財)에 있고, 자화권自化權을 만남; 전택궁으로
 생년권을 법상法象하면 집을 산다는買房子 의미, 단 해당궁該宮이 다시 자화권自
 화權을 만나, 권출權出을 형성, 따라서 집에 세를 놓아房子出租 다른 사람別人에

게 준다.

5.명궁命宮 자화권기自化權忌이고, 다시 시동자화록視同自化祿을 만나므로, 삼상三象이 만나 한 인사물人事物을 이룬다는 설說을 구성하므로, 명반命盤 주인主人의 기도심企圖心이 강強(祿權)함을 표시, 매개媒介는 과科. 곧 신간辛干으로부터 화과化科가 떨어진 궁위宮位가 관록官祿(직업, 직장을 표시), 따라서 해상解象은 명주命主가 직장工作이 있어, 사업事業을 하려는 기도심企圖心이 강強함.

註: 명궁 자화록권은 자화록+시동자화권; 자화권+시동자화록을 포함, 모두 명주命主가 “기도심企圖心이 강強하다는” 것을 주주로 한다.

6.생년기生年忌는, 만일 재관財官을 논한다면 곧 득재得財를 주초한다. 자화권을 만나므로 생년권을 법상法象하면 득재의 내원來源이 전택(점포를 내거나 공장을 지어 사업)에 있음을 대표. 단 전택에서 권출權出을 만나므로 곧 생년과生年科를 대출帶出, 곧 부업父業을 계승함을 나타냄.

7.질액궁 자화기는 비기脾氣를 논論하자면 개성이 곧바르다; 단 자화기는 “기수록주忌隨祿走”법칙에 의거, 병간丙干 화록이 부처궁에 들어가므로, 곧 직성자直性子인 개성이 부처夫妻의 대대對待 상에 표현됨을 표시한다.

⊙논論비기脾氣: 질액궁에 생년사화 혹은 자화상自化象이 있는가 여부에 의거하여 논斷. 그 다음 질액궁 비궁飛宮 사화四化가 명천부질命遷父疾에 떨어져야 비로소 취상取象을 해서 논斷할 수 있다. 만일 없으면 곧 명궁의 득상得象 해석에 의거함.

8.본자本子에서 시동자화과를 만남은 부단不斷한 연기緣起를 표시. 자녀궁은 해당궁이 얻은 정태靜態(생년) 사화상에 의거하며, 모두 도화桃花를 주초하지만, 단 진정한 도화는 과科이고 그 다음은 록祿이다.

주註: 자녀궁 자화상이 사출射出된 방향은 육외에서 육내로 들어가므로, 곧 사람이 도화를 수隨(따라감)하지 않고 지나 가는 도화이다.

9. 본자 화과가 전택에 들어가 자화권과 생년권을 만나면(권과동조權科同組) 필연성국成局함을 주초하며, 응應하는 것은, 자전선인 대운大運이거나, 혹은 생년과로 법상法象한 대운大運, 즉 34~43과 54~63 대운大運에 도화가 있다.

10. 34~43대운의 대자太子인 을간 비궁과가 본전本田에 들어가 자화권, 생년권을 만나 성국成局됨을 주초. 응수應數하는 유년流年은 대자太子(발사궁), 40세才에 제1차 외도; 제2차 외도는 43세才, 유년이 대명大命(본자本子)에 앉아, 우필 시동자화과를 만남. 우필은 ‘다시 한 번再一次’ (좌우창곡은 수량數量을 의미한다.)

주註: 대명大命(본자本子) 시동자화과이면 곧 법상 생년과하면 부모궁에 있고 다시 좌보 자화과를 만나, 상象1 수數2이므로 도화가 끊이지 않음. 게다가 부모궁이므로 도화의 대상이 연기年紀(나이)가 더 많음을 대표.

44~53대운

D			
거 刑 40세 -자-	영廉상相	량梁㉔ -명-	살 43세 -명-
을64~73천	병54~63질	정44~53재	무34~43자
↑ 가운 C 탐貪 51세 -자-	A		동 요姚
갑94~83노	임인년壬寅年	양녀陽女	기24~33처
음 曲 50세 -재-	D		무㉔ 45세 B
계84~73관	C		경14~23형
자㉔부 우右	기機	파 左㉔	양陽 창昌 BD
임壬 前田	계 복	임 부	신04~13명
B		B	

11.대명大命(본재本財)에서 자화과自化科를 만나면, 본래 도화桃花를 논하는 것에
는 해당하지 않으나, 만일 있다면, 곧 재財와 유관有關하다.

12.44~53대운大運, 대자太子(본노本奴) 자화과自化科, 곧 도화桃花를 주주로 한
다.

13.44~53대운大運, 대명大命, 대자太子에서 모두 자화과自化科를 만난다; 생년과
를 법상法象해야 하는데, 대노大奴(본부本父)가 육외궁六外宮이므로, “머물지 않
는 도화留不住的桃花”임을 나타내고, 응수應數하는 유년流年은 자궁子宮으로서,
곧 47세 유명流命이 되거나 혹은 50세 7월月이 유자流子가 되며, 거취(갈라섬分
手)를 주주로 한다.

14.44~53대운大運, 대재大財에서 자화과自化科를 만나면, 이번 10년 재운財運이
평순平順함을 뜻하지만, 계간화기癸干化忌가 대자太子(본노本奴)에 들어가는 것
은, 대자太子 혹은 본노本奴를 막론하고 모두 육외궁六外宮이므로, 득재得財하지
못함을 주주로 한다.

주註 : 재기財忌가 육외궁六外宮에 들어가는 것은 파재破財를 주로 하며, 만일
천이 혹은 부모에 들어가 명命이나 혹은 질疾을 충하면, 곧 대파재大破財를 주로
한다.

15.44~53대운大運, 대재기大財忌가 생년기生年忌를 충하면, “극출기出忌”(소충
대小沖大)를 형성하며, 대파재大破財를 주로 한다.

주註: 묘궁卯宮(이심), 진궁辰宮(향심)이 모두 자화과自化科를 만나는 象으로
서, 동일상同一象에 속하므로, 곧 기氣가 진궁辰宮까지 뻗어나가延伸, 파재破財
하는 象이 묘卯에서 진궁辰宮까지 연속하여 출현하지만, 진궁辰宮이 그 기氣를
총결總結한다.

16.54~63대운大運, 대명大命 자화기自化忌, 대전大田(본부本夫)자화기自化忌(처전교역妻田交易, 생리사별生離死別을 주로 함), 동일상同一象에 속하기 때문에, 술궁戌宮에 있는 생년기生年忌를 법상法象하며, 여기를 유년流年, 유월流月로 논단한다.(57세. 59세 8월)

17.59~63대운大運, 대명大命(본질本疾)자화기自化忌, 공간宮干 병丙 화록化祿이 대전大田(본부本夫)에 들어가서, 두궁兩宮을 사이에 두므로, 사봉삼기양의표四鳳三旗兩儀標 이칙理則에 의거하면, 변화變化를 주로 하며, 해상解象은 신체에 좋지 않은 변화變化가 있음을 주한다. 이는 자화기自化忌 때문이다.

⊙여명女命은 명命에 도화桃花를 띠면 감성적感性的 여성女生이 되며, 애정感情, 결혼생활婚姻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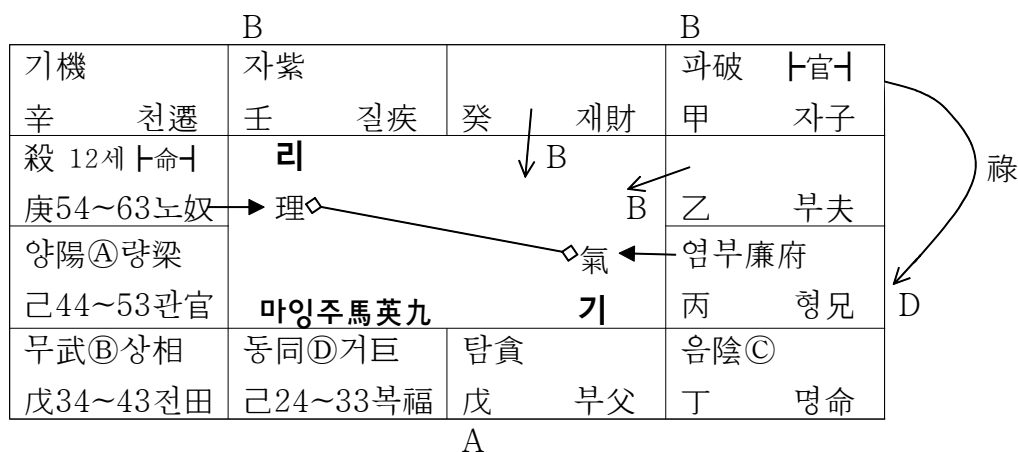
남명男命이 명命에 도화桃花를 띠면, 연애 이야기를 좋아하는 감각이 있다.

⊙여명女命이 만일 본망本命 자녀궁子女宮에서 흉상凶象을 보면, 부녀병婦女病(비뇨생식기질환)으로 직단直斷할 수 있다.

⊙남녀명男女命을 논해서, 자녀궁에 흉상凶象을 보더라도 반드시 대명大命 혹은 대질大疾을 배합해야 비로소 의외意外로 논할 수 있다. 즉 대명大命(본자本子) 혹은 대질大疾(본자本子)일 때

⊙논명論命하는 요령은 먼저 논명論命하러 온 자의 비기脾氣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즉 본질本疾과 본명本命으로부터 먼저 관찰觀察을 시작한다.

⊙록출祿出, 권출權出, 과출科出은 단지 비길상非吉象이며, 결코 특별히 엄중嚴重하지 않다; 단지 기출忌出이 있으면, 삼광三光을 데리고 나가므로 요주의要注意. 단 사실상事實上, 궁宮이 파破하는 것이 삼길三吉이 출出하는 것에 비해 더욱 꺼린다.



1.54~63대운大運, 대관大官 자화권自化權으로서, 이번 10년 직업 운이 좋고, 권

력權力을 장악함을 주로 한다.

2.대관大官 자화권自化權이 대궁對宮에서 생년권生年權을 만나면 권출權出을 형성하며, 집 안에서 권력權力이 없는 것과 유사有似하다(없다고 논論할 수 있다).

3.대관대관大官에서 날아간 록祿이 본형本兄(대천大遷)에 들어가 자화기自化忌를 만나면, 쌍기雙忌를 이루어 대명大命을 충한다.

응수應數하는 유년流年은 진술辰戌 혹은 축궁丑宮에 있다.

4.대명大命(본노本奴)이 라인궁來因宮이고, 대궁에 있는 자화自化를 만나서, 곧 궁宮이 파破한다(깨진다).

라인궁來因宮은 리理를 말하고: 라인來因의 대궁對宮은 기氣를 말한다. 무극이태 極無極而太極

5.라인來因이 노복奴僕으로서, 리理를 말하므로, 곧 중생眾生을 대표한다; 대궁對宮 자화기自化忌는 기氣를 말하며, 곧 불순不順함을 대표, 합승하여 하나로 하면, 곧 명주命主의 불순不順함은 중생眾生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대표(선거選舉에 불리).

응수應數하는 유년流年은 진술辰戌 혹은 축궁丑宮이며, 그중 축궁丑宮은 위법위位法位에 의거하여 얻는 것이다. 대관大官의 복덕궁인 병간丙干 화록化祿이 축궁丑宮에 들어가 천동天同의 기氣를 만나며, 이곳 역시 복덕궁(본명)이다.

2011/09/10

⊙해상解象의 이칙理則

만일 자화과自化科가 있으면, 곧 생년과生年科를 법상法象하여 연기緣起하고 연멸緣滅하는 것을 본다. 생년과生年科가 명命의 육내六內 혹은 육외宮六外宮에 떨어지는 것으로서 취산聚散, 득실得失, 길흉吉凶을 논하거나 혹은권과일조權科一組이면, 해당宮該宮 공간宮干 화권化權이 명命의 육내六內 혹은 육외宮六外宮에 떨어지는 것을 살펴 길흉吉凶을 논단論斷한다. 같은 이치로, 록기일조祿忌一組의 이칙理則도 서로 같다.

⊙명궁命宮으로 개성個性을 논하며, 명궁命宮 사화상四化象이 명천부질命遷父疾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명주命主의 개성個性을 논한다.

쌍상雙象의 정의定義

(1)A궁宮에서 화化한 쌍상雙象이 B궁宮에 들어간다.

(2)A궁宮에서 화化한 단상單象이 B궁宮에 들어가며, B궁宮에 단상單象이 있다.

⊙논명論命의 원칙原則: 사事를 논하는 것은, 재관財官이 중심重心이고; 한편 인人을 논하는 것은, 도화桃花가 중심重心이다.

1.록권祿權: 현재의 사회社會는 순식간에 만변萬變하고, 다원화多元化 되었으며,

실력實力으로 승리를 얻는 사회구조이다. 「초과업무, 다업종」에 종사함을 대표한다.

2.권과權科와 권기權忌의 차이는 과科의 유무有無에 있으며, 과科는 전문지식專業知識의 유무有無를 대표한다.

3.래인궁來因宮의 대궁對宮에 만일 “자화상自化象”이 있으면, 래인궁來因宮이 “궁파宮破”(궁이 깨짐)임을 대표한다. 자화自化는 “소일상少一象”(하나 더 적은)을 대표하며; 시동자화視同自化는 “다일상多一象”(하나 더 많은)을 대표하고, 모두 생년상生年象을 법상法象하며, 이것으로 궁파宮破된 상象의 유래처來處가 어디 인가를 이해한다.

4.궁파宮破는 상파象破(목출祿出, 권출權出, 과출科出, 기출忌出, 그중 기출忌出이 가장 엄중嚴重)에 비해, 흉상凶象이다.

			발사궁 -질- 갑 형묘
疾			기름 양陽Ⓐ 부父
	-명- 42~51관官		

예例: 대질大疾화기가 본부本父에 들어가 생년록을 만나면 쌍기雙忌를 형성하며, 비록 최후에는 생년록生年祿이 존재하나, 단 대질화기가 본질本疾을 충하면, 명주命主가 42~51대운에서, 신체건강에 문제가 생김을 대표하고, 응수應數하는 유년流年은 발사궁發射宮(중궁中宮) 혹은 상象이 떨어진 궁위 및 그 대궁(진辰, 술궁戌宮)이다.

言 理理 來因宮 疾			
		言 氣氣 → 忌	
		부父	

예例: 래인궁來因宮은 질액疾厄이며, 대궁 부모宮에는 자화기가 있어 궁파宮破가 형성되고, 상이 더 적어지는(少一象) 궁파宮破이며, 이곳 질액宮疾厄宮은 부모父母의 질액疾厄으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상수象數는 통상通常 “명주命主”가 “유복자遺腹子”임을

대표한다.

주註: 래인궁來因宮은 리理를 말하고, 질역疾厄은 신체身體를 대표

래인來因의 대궁對宮은 기氣를 말하고, 자화기自化忌는 무연無緣임을 대표

합승하면 하나이며, 곧 “신체身體와 무연無緣임”을 대표

별도로, 가령 대궁對宮이 자화권自化權이면, 곧 그 부모父母가 노록勞碌하는 명命이며, 몸소 친히 나서서 일을 한다事必躬親.

.....

◎자미두수 양대원칙兩大原則

(1)본궁本宮, 대궁론對宮論(리理와 기氣를 말함)

(2)하도河圖가 대표하는 것은, 수數 격格, 명命; 한편 낙서洛書가 대표하는 것은 국局, 세勢, 운運이다.

◎낙서洛書가 대표代表하는 함의涵義

(1)이사위견二四爲肩은, 도화桃花를 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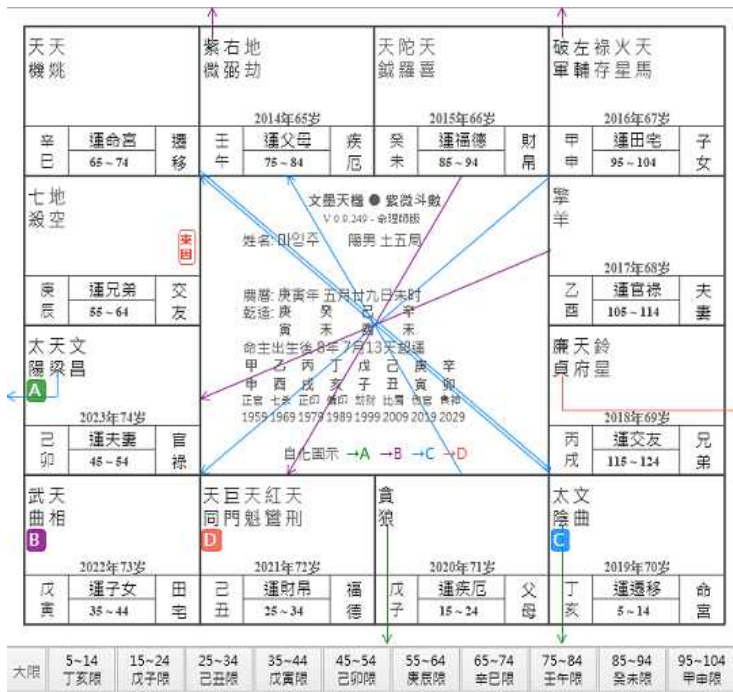
(2)육팔위족六八爲足은, 수원壽元을 논한다.

(3)대구리일戴九履一은, 학업學業, 사업事業을 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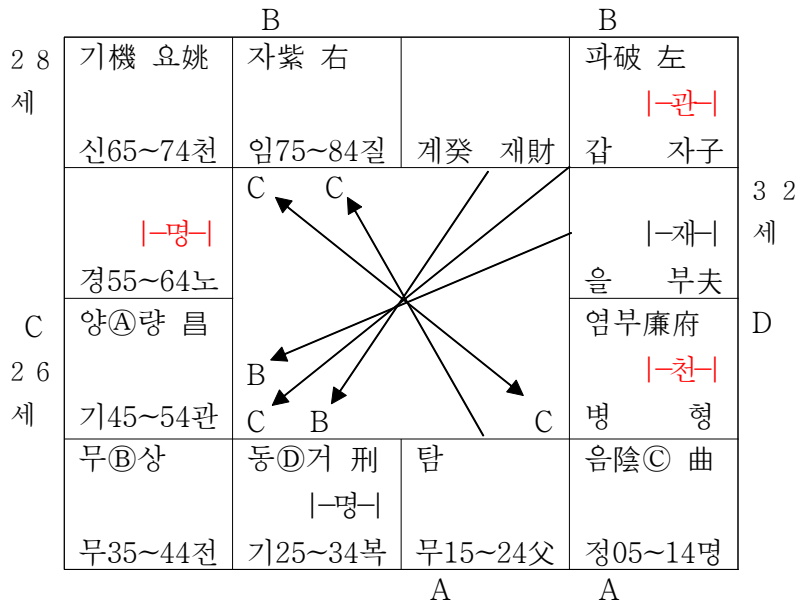
역주)흠천문 자미두수는 명명과 조선朝鮮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자학, 즉 성리학性理學을 기초로 새로이 건립한 술수術數 체계이다. 이전 시절에는 도교道敎가 크게 성행했지만, 새로이 등장한 지배계급은 성리학을 내세운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본本과 대對의 소통을 논하며 임금에게 하루에 세 번 경연에 나서도록 요구한다. 조선은 사대부들의 힘이 막강하였고 따라서 리理보다는 기氣를 더 중시하므로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이 우세하게 된다.

◎하도河圖를 이용하면 10년 대운大運 안에 처處한 생태공간生態空間을 판독할 수 있다.

◎낙서洛書를 이용하면 상관相關된 사건事件이 발생發生하는 시간점時間點을 판독할 수 있다.



경인년 5월 未시, 마잉주馬英九(전 대만 총통)



명례해설命例解説

1.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는 권기조權忌組이며, 이 한평생 만나는 인사물人事物이 기대한 것이 아님에도 시간이 이르면 사건이 곧 (급작스럽게) 발생發生함을 대표한다.

2. 본명本命 태음생년과太陰生年科가 시동자화과視同自化科를 만나 과출「科出」을 형성하고 따라서 과과의 본질本質을 강화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 도道에 반反하

여 행行한다는 의미意味가 있고, 해상解象하자면, 풍도風도가 좋고佳, 말하는 것이 극히 우아하여斯文, 사람들에게 온량溫良하고, 공손하며恭, 검소하고儉, 양보讓한다는 감각感覺을 주지만 단 종종 표현表現이 너무 지나쳐서過頭, 아주 허세를 부리고 티를 내는裝模作樣 것으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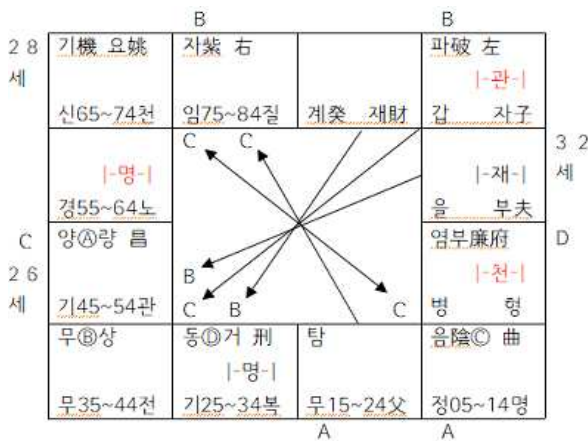
3.질액궁疾厄宮 자화권自化權은 성격脾氣이 충동적이고(행위行爲를 사리킴); 의식형태意識形態가 뽕뽕하고高漲, 강렬強烈(사고방식을 가리킴)함을 나타낸다.

4.명궁命宮에 태음성太陰星이 있으며, 태음太陰은 모계母系가 주이고, 여성女性의 별이다.

정면해正面解: 여인女人과의 인연緣을 얻고; 여인女人의 도움을 얻는다(할머니祖母, 모친母親, 자매姉妹, 딸女兒, 사회衆生의 여성女性을 포함).

부면해負面解: 행동거지行爲舉止가 여인女人의 상相이다.

5.태음太陰이 명궁命宮에 있는 남명男命은 조모祖母의 연緣을 가장 잘 얻고(조모祖母가 가장 총애하는 자손孫), 또한 문곡文曲은 구재口才가 좋음을 나타내며, 다시 “시동자화과視同自化科”를 만나면, 곧 공자님 말씀에 말을 교묘하게 잘하고 낮빛을 곱게 꾸미는 자는 어진 이가 드물다(“교언영색巧言令色, 선의인鮮矣仁”). 별도로, 자화록自化祿은 인연人緣을 얻는다는 뜻이다.



6.관록궁官祿宮에 생년록生年祿이 있으면, 사업事業이 순풍에 돛을 단 듯함을 대표하며, 또한 자화과自化科를 만나면, 과갑科甲, 과명科名을 나타낸다. 별도로, 본명本命 명궁命宮에 생년과生年科가 앉으면, 관록궁官祿宮 자화과自化科가 “과입科入”으로 바뀌며, “공명功名이 있음”을 대표한다.

7.전택궁田宅宮에 생년권生年權이 있으면, 부동산不動産이 있게 됨을 대표하고, 돈이 있으면 부동산不動産을 산다. 집안의 배치가 잘 사는 티를 내고, 화려하게 차린다.

8.복덕궁福德宮에 생년기生年忌가 있으면, 복福이 있어도 누릴 수가 없다.

9. 혼인婚姻은 반드시 먼저 유무有無를 논해야 비로소 길흉吉凶을 논할 수 있다. 부처궁夫妻宮에 시동자화권視同自化權이 있으면, 부단不斷한 연기緣起를 대표하지만, 단 연기緣起 중에 파모破耗가 따른다. 이는 인위人位이므로, 또한 배우자配偶가 상반上班이 됨을 대표한다. 자화自化가 있고, 따라서 본부本夫가 대명大命 혹은 대재大財로 변할 때, 결혼結婚을 주도하며, 본부本夫로부터 대운大運과 유년流年을 직단直斷할 수 있다.

10. 25~34대운大運, 본부本夫가 대재大財로 바뀌면, 이번 10년 내에 결혼結婚함을 대표한다. 결혼하는 유년流年은 묘유궁卯酉宮 혹은 사해궁巳亥宮(위법위位法位)이고, 아울러 생년권生年權인 궁위宮位를 법상法象하면, 인신궁寅申宮이다. 따라서 26, 28, 31, 32, 34는 모두 결혼이 가능하다. 사실事實, 28세才에 결혼結婚하였다.

역주)사해궁巳亥宮은 25~34대운의 부관선夫官線이다.

⊙동성애同性戀 여부를 논단하려면, 반드시 명궁命宮과 자녀궁子女宮을 같이 참고해야 한다.

11. 라인궁來因宮이 노복궁奴僕宮(중생위衆生位)이고, 대궁對宮에서 자화기自化忌를 만나면, 궁파宮破가 형성되며(생년기生年忌를 법상法象하며, 기忌가 복덕福德에 있으면, 복기福氣가 없음을 대표), 흉상凶象이다. 단 반드시 대운大運을 배합해야 길흉吉凶을 논단할 수 있다.

12. 55~64대운大運, 대명大命이 라인宮來因宮에 앉으면, 곧 중생衆生과 무연無緣임을 대표한다.

⊙교체하는 운運의 좋고 나쁨을 보려면, 반드시 관록官祿과 노복奴僕으로부터 논단論斷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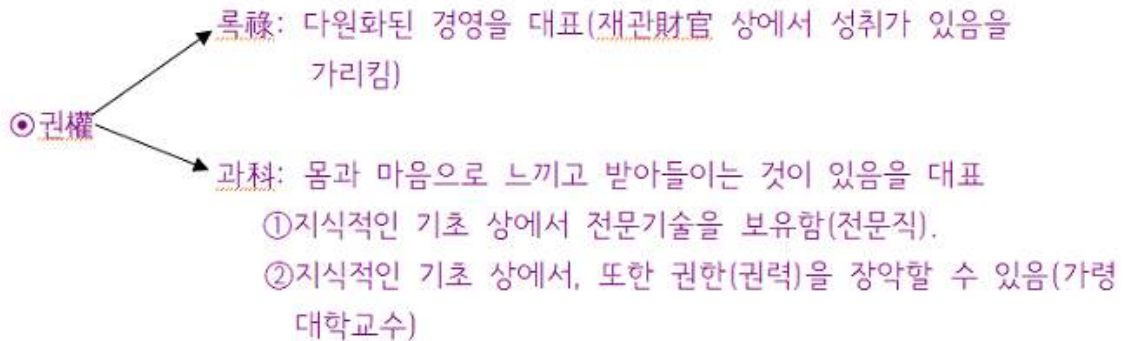
13. 55~64대관大官, 시동자화과視同自化科와 자화권自化權을 만나서, 10년十年 내 직업이 순조로움을 대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대관大官 갑간甲干의 록祿이 대천大遷(본형本兄)에 들어가 자화기自化忌를 만나 쌍기雙忌를 이루어 대명大命을 충한다. 해상解象 순서次序와 사건발생의 시간순서時間順序; 비궁록飛宮祿이 대명大命을 비추어 길움을 주사로 한다. 이때 진술궁辰戌宮은 28세의 부관선夫官線이다. 그 다음, 쌍기雙忌가 대명大命을 충하며, 이때의 진술宮辰戌宮은 2012 명천선命遷線이고, 또 대천大遷(본형本兄) 병간丙干 자화기自化忌는 “사봉삼기양 의표四鳳三旗兩儀表” 이칙理則에 의거, 화록化祿이 본복本福에 들어가 생년기生

기륜: 봉급생활자 혹은 현금매매(소매업 등),
무자본 생업生業(막노동 등)에 종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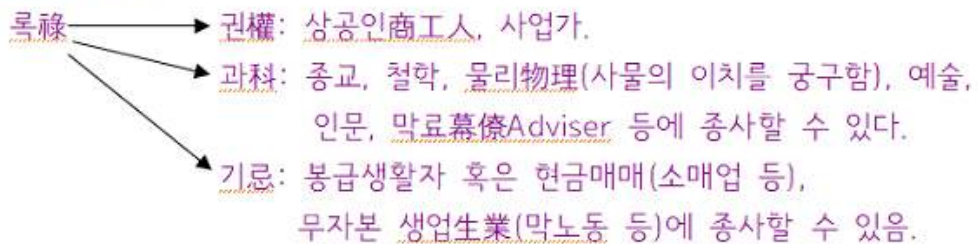
록祿: 다원화된 경영을 대표(재관財官 상에서 성취가 있음을
가리킴)

2) 권權

과科: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음을 대표
①지식적인 기초 상에서 전문기술을 보유함(전문직).
②지식적인 기초 상에서, 또한 권한(권력)을 장악할 수 있음(가령 대학교수)



◎재관財官을 논함:



혼인도화婚姻桃花 논단

예:

			권權 부夫

D

부처궁에 생년권生年權이 있고 다시 자화기自化忌를 만난다.

상象을 풀이하는 순서는 우선 생년生年(사화)을 풀고, 다시 자화自化를 풀면, 사건 발생 시간의 전후 순서가 되는 것이다.

①생년권은 이미 있는(已有) 것을 논하며, 권權은 자변수自變數이므로 곧 변화가 있음을 대표한다.

②자화기自化忌는 불순不順하고 연緣이 박薄하다.

③합해서 하나가 되면, “돌변갱신突變更新”을 대표하며, 그런 다음 “다시 길흉吉凶을 논하며”, 최후로는 “생년기를 법상法象”해서 상의象意를 궁극적으로 추구한다.

상의象意: 해당 궁의 사람은 영구히 상주常駐할 수 없으며, 곧 백두해로白頭偕老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병 재財
			염①과
	병술년		자子
거양巨陽		동①음	
복福		경 명命	

복福
↓
록

D

예: 라인궁來因宮은 재백궁이며, 명궁에는 생년록이 있어 투자재投資理財로 인하여 재록財祿, 복록福祿을 얻는다는 것을 대표한다.

별도로, 명궁 자화기自化忌는, “사봉삼기양의표四鳳三旗兩儀表” 이칙理則에 의거하면, 경간庚干 화록이 복덕에 들어가 라인來因을 충하므로, 곧 명주命主의 수명이 인신궁寅申宮인 재록성財祿線을 넘어갈 수 없음을 대표한다. 명주는 40세, 음력 12. 27 서거하였다.

주註: 자화기自化忌는 기수록주忌隨祿走가 되며, 따라서 “생년록+자화기”가 “쌍기雙忌”를 형성함에 따라 조성되는 기복起伏이 크고, 변화變化가 커서 생긴 불순不順함이 라인궁來因宮을 충해서 궁宮이 파괴되는 까닭에

⊙생년록이 자화기를 만나면; 생년과가 자화기를 만나는 것과 아울러 생년기가 자화기를 만나는 것은 모두 “불리不利”하다고 풀이하지만, 단 해상解象은 당연히 이 칙理則에 의거해야 하므로, 즉 우성 생년상生年象을 풀고, 다시 자화기自化忌를 푼다. 이를 합해서 하나로 해서 득실을 논한다.

⊙생년과가 자화기를 만나는 상의象意: 점차 다가가는 방식의 교체로서, “느낄 수 없는 변화”에 속한다.

⊙생년기가 자화기를 만나면, 흉상凶象이다.

.....
⊙혼인에 명분名分이 있는가? 혹은 동업 장사에 내 이름을 걸 수 있는가?

예: 관록궁에 생년록生年祿, 권權이 얹고 자화과自化科를 만난다. 해상解象하는 이칙理則은, 자화과自化科를 만나기 때문에, 곧 생년과生年科를 법상法象하고, 생년과生年科가 떨어진 궁위를 살펴 논단論斷한다. 만일 생년과生年科가 명命의 육외궁六外宮에 떨어지면, 곧 동업 장사를 할 때 이름을 걸지 않는 것이 좋다.

⊙생년과生年科가 명命의 육외궁六外宮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음蔭하는 격으로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여 과科를 득得하여야 한다.

⊙생년과生年科가 명命의 육내궁六內宮(특별히 명命, 질疾)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음蔭하는 격이다.

사화상四化象의 진일보 해설

록祿: 연기緣起, 새롭게 사귀는 인人, 새로운 사事, 물物을 대표한다.

권權: 자변수自變數(숨은 뜻: 상천上天에 속살지기肅殺之氣가 있음), 연변緣變

과科: 사모함(애련함), 무한한 회상(이른바 “번뇌지심煩惱之心”, 외부 사람에게 털어놓는 말 못할 고충이 되지는 못함(외부 사람과 말할 필요는 없다).

기忌: 과보果報, 이른바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고, 토소는 토소로 돌아간다”

⊙만일 과科 상에서 “한번 마시고 한번 쪼는 것이 모두 정해진 수가 있다.—飲一啄皆有定數”를 이해할 수 있으면, “지명知命”하는 현상現象이 나타날 수 있어서, 곧 “심념心念이 전화轉化하면, 즉 능히 오수의공傲數之功이 있다”. 「오傲」는 초월적이라는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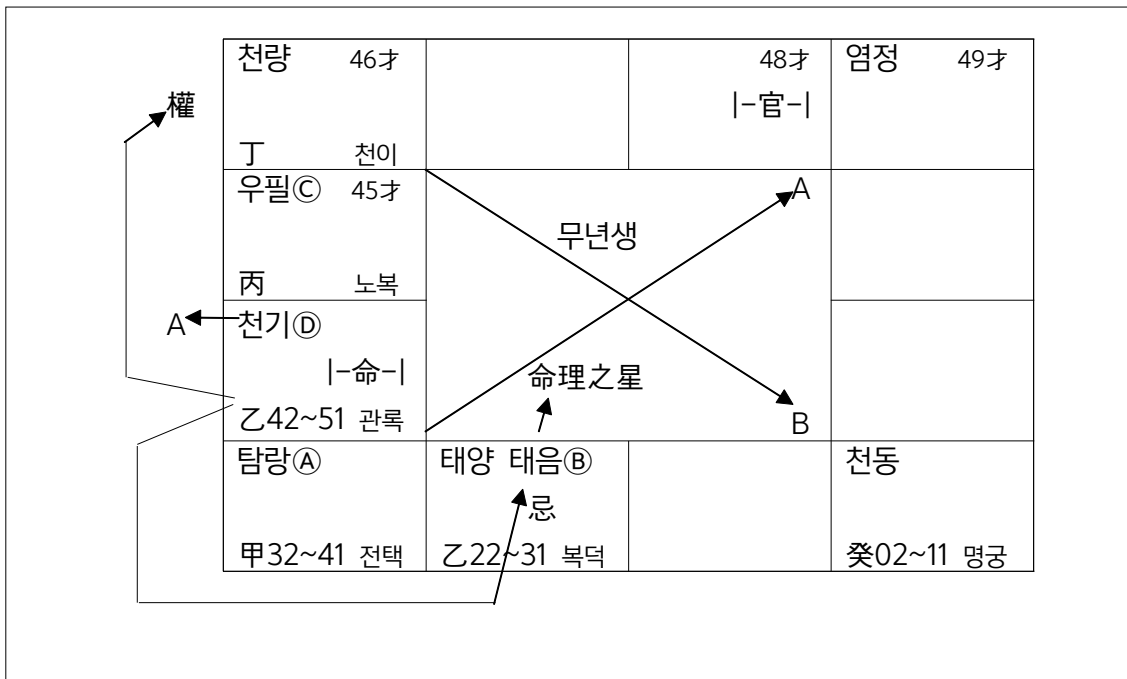
◎역학易學의 관점에서 보면, 사화상四化象의 순서는 당연히:

록祿 --> 과科 --> 권權 --> 기忌

기起 승承 전轉 합습

따라서 심념心念의 전화轉化는, “지명知命”의 경계境界에 도달하며, 즉 오수의공傲數之功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즉 이른바 “개명改命, 조명造命”이고, 간단히 말해서, “내려놓음放下”를 깨달아야 하며, 곧 화기化忌이더라도 여전히 무엇을 만나더라도 편안히 지내고隨遇而安,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넘겨버린다從容度過, 즉 화기상化忌象의 불순不順이 없는 것이다.

◎상수象數: 권權이 대표하는 것은 업業; 과科가 대표하는 것은 장障



명례해설命例解説

1. 대명大命 화권이 본명本命을 비추면, 십년十年간 사업事業이나 직장에서 권한을 장악할 수 있거나, 전문기술을 얻어 발전한다. [시동자화권視同自化權을 만나면, 성국成局을 대표한다. 응수應數하는 해는 상象이 떨어진 궁위宮位 혹은 생년권生年權을 법상法象하며, 생년권이 떨어진 궁위는, 즉 46 혹은 48才. (46세는 상이 떨어진 궁위, 48세는 생년권을 법상한 궁위)]
2. 본명本命, 본관本官, 대명大命, 데관大官에 생년기가 앉고 다시 자화기自化忌를 만나면, 오술五術, 물리物理, 철학哲學, 종교宗教, 예술藝術 학습에 대해서, 종종 특별한 흥취가 있으며, 게다가 종종 성취成就가 있다.
3. 관록宮官祿宮에 생년기生年忌가 앉아, 반드시 직업이 있으며, 샐러리맨 족이

다.

4.래인궁來因宮이 질역疾厄에 있어서, 자립격自立格으로서, 몸으로 노심勞心, 노력勞力한다는 뜻이다.

5.대명大命에 생년기生年忌가 얹고 자화록을 만난다. 생년기生年忌는 불순不順함을 대표하고, 이미 있는 것을 대표하며, 반드시 과기법過忌法을 이용하고, 생년기生年忌가 얹은 대운 혹은 유년을 지나서, 피운避運한다. 자화록自化祿을 만나면, 해당궁 화기化忌를 찾는데, 기忌가 복덕福德에 들어간다. 자화自化이므로, 기수록주忌隨祿走이며, 득록得祿의 래원來源이 태음太陰(명리命理의 별星)임을 대표.

2011/09/17

명례命例:

			- 子 - 壬 女命	아이를 출산出産
자미 천부			- 命 - 전택	

B

1. 여명女命의 명궁이 대한자녀로 바뀌어, 이번 10년 동안 여아女兒를 양육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과 관련이 있다.
2. 임간壬干 시동자화권이 본천本遷에 들어가는데, 자미紫微의 화권이므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논하자면 응당 여생女生이다.
3. 대자大子の 시동자화권인데 화권化權은 자변수自變數이며, 따라서 무중생유無中生有, 즉 아이를 낳는 것이다.

명례해설

논명할 때 중점궁위

천동① 권기조 辛 관록	무곡⑧ 천부 壬76~85노복	태양④ 태음③ 癸66~75천이	탐랑 甲56~65질액
파군 문곡 庚 전택	A ← B	A →	천기 → A
좌보			거문 乙46~55재백
근 복덕	A ←		자미 문창 → C
염정		칠살 천요1~2술-	천상 1~2술- 23세 丙36~45자녀 25세 유부流夫
戊 부모	己06~15女命	전랑 우필	→ 논명할 때 중점궁위
		戊16~25형제	丁26~35부처

1. 명무정요命無正曜는 개성이 침잠沈潛하고 자기 정서를 쉽게 표현하지 않음.
2. 질액궁은 성질脾氣를 나타내는데, 자화록이면 성질이 좋지만 단 화기가 대명大命을 충하므로 성질이 나쁘다. 이를 합하면 성질이 오락가락 알 수 없으므로 그 저선底線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다만 질액궁이 자화록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성질이 좋다.
3. 생년록과가 천이에 있는 것은 외부 인연이 좋다. 외부에 나가 발자취를 남길 명이다. 태양은 관록주이므로 직장에서 특별히 이성연이 있다. 태음은 명주命主 본인을 나타낸다. 생년과가 앉는 것은 곧 풍정風情이 있음을 표시하며, 다시 자화과를 만나 곧 풍정이 만종萬種임(이루다 형언할 수 없음). 래인來因(전택은 육내궁)을 합해 풀이하면 남성연男性緣을 얻고 아울러 풍정만종風情萬種(이루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은 “긍정적 유유”에 속한다.
4. 생년권이 노복에 있어 사귀는 친구가 종종 재간이 있고 재능이 화려하다. 무곡 화권이므로 종종 편재偏財방면의 재간 있는 친구가 있다. 다시 자화기를 만나 곧 해당 궁의 사람은 영구적으로 상주할 수 없다. 즉 우정友情이 오래 가지 못한다.
5. 생년기가 관록궁에 있어 반드시 직업이 있으나 월급쟁이이다. 래인(전택)을 합하여 풀이하면 근무하는 곳이 종종 공장이거나 혹은 점포에서 하는 장사, 부동산 회사 등등이다.
6. 부처궁 시동자화권은 사귀는 남친이 재간이 있고 성질이 강하며 과단성이 있다. 이 남친은 혼인을 논할 수 있다. 시동자화권은 부단한 연기緣起 중에서 파모破耗가 따르고 게다가 부단不斷하게 혼인 연분이 있다. 하지만 변화 중에 파모破耗가 따른다.
7. 본부에 우필이 앉아 만일 사화가 충동하면 종종 2~3번 매화梅花가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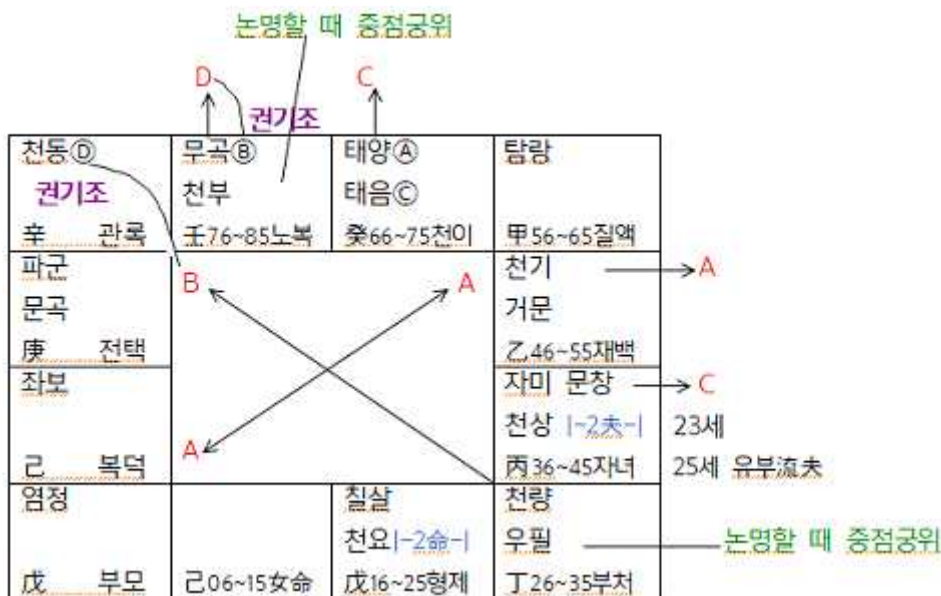
8. 본부에 시동자화권이 관록에 들어감은 결혼 대상이 곧 종종 직장에서 사권 사람이다.

9. 본부 시동자화권이 대궁 본관 생년기를 만나 선천상수인 권기조와 평형을 이루므로 성국成局이 됨. 다시 라인 전택궁을 합해 풀이하면 곧 은성隱性적 처전교역 妻田交易이 되므로 하늘이라도 어쩔 수 없다.

처전교역妻田交易

「처전교역妻田交易」은, 「비궁체계 飛宮體系」에 속하는 술어이다. 「비궁체계」 안에서 혼인을 논하는데 비교적 많이 쓰이고 아울러 참고를 하게 된다. 원시 함의가 가리키는 것은, 「전택궁」과 「부처궁」에 「상象」의 왕래가 있어, 「교역交易」, 「교감交感」을 산생한다는 것이다. 본명반 부처궁의 화상化象이 전택궁에 이르거나, 혹은 본명반 전택궁에 있는 화상이 부처궁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 가령 화상이 룽권과 祿權科이면 대개 길흉하다고 논할 수 있으며, 성혼成婚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만일 화상이 기류이면, 종종 선천 혼인연의 존재를 나타내지만 「생리사별」의 유감이 있다. 단 실제 명반 가운데에는, 부분적으로 「생리」(생이별)가 없고, 게다가 「사별」도 없으며, 대신 직업, 사업으로 인해 「두 곳에 분거分居」하는 등등 「취소리다 聚少離多」(같이 있는 시간은 짧고, 떨어져 있는 시간은 길다)가 있다. 이 이치는 확대될 수 있어 「대한부처궁」 화상이 본명반이나, 대한반의 「자전」선에 들어가는 등등이 있다.

「처전교역」의 이치는, 명궁에 태극을 세우면, 노복궁이 제8위인 파패위破敗位, 생사위生死位가 되는 것에서 유래한다. 사람의 수원을 논하려면 노복궁인 제8위를 참고하여야 한다. 다시 궁직의 전환에 근거하면, 부처궁에 태극을 세우고 명궁을 1로 할 때, 전택궁은 부처에 태극을 세운 것의 제8위인 노복궁은 사망위가 되며, 이 때문에 우리가 칭하기를 「처전교역」이 혼인의 사망위가 된다 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생리사별生離死別」……등등이 된다.



10. 본자本子 자화과는, 자녀가 어릴 때 예의가 바름을 나타낸다. 도화를 논하자면 이 사람이 도화가 있으며, 이는 분위기mood를 추구하는 도화이다. 본자 병간화권이 재백(대대위對待位)에 이르면, 도화가 종종 기혼자임을 나타낸다.

11. 재백 자화록은 돈을 벌려고 바쁨을 나타내지만, 단 이재理財를 잘하지 못한다. 재 재백의 기룬가 천이에 들어가 본명을 충하면, 외부에 나가 창업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음을 나타냄.

12. 본부本夫 시동자화권은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며, 응수應數는 26~35대운에 있다. 달리 생년권을 법상法象하면 응수는 16~25대운에 있다. 만일 16~25대운 중에 결혼하면, 26~35대운이 여전히 변화를 주하므로 곧 16~25대운에는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다. 즉 조혼은 나쁘다.

13. 16~25대운은 대명大命에 칠살이 앓고 천요天姚(조숙함을 주초)가 있어 이른바 “중매 없이 스스로 배우자를 부른다.”

14. 본자가 16~25대운에 대부大夫로 바뀌며, 궁직이 중첩된 상의象意는 속도위반 결혼奉子成婚을 주한다. 자화과를 만나면 변화가 있음을 주초한다. 여기에 다시 병간화권이 재백(대자)에 더해지면 더욱이 속도위반 결혼奉子成婚이 확정된다.

15. 결혼하는 해를 판단.:

(a)본부本夫에 자화가 있어 대운을 결정할 수 있다(16~25 혹은 26~35), 게다가 유년流年에 직접 응應한다.

실제 사실: 24세 결혼

(b)본부本夫에 자화自化가 있으면 대운大運이 결정되고, 한편으로 대부大夫는 유년流年을 결정하므로, 유년은 23세 혹은 25세(이때 술궁戌宮은 25세의 유부流夫, 즉 “위법위位法位”의 원칙임.)

(c) 16~25세 대운, 대부화록이 본관에 들어가 생년기를 만나, 쌍기가 본부本夫를 충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흉상凶象을 주초함. 응수應數하는 유년은 상이 떨어진 궁위(사해궁) 혹은 발사궁(술궁). 해궁은 24세이고 술궁은 25세의 유부流夫, 따라서 25세 이혼.

16. 56~65대운, 대전(본부)에 시동자화권이므로 전형적인 처전교역妻田交易이다. 대부大夫(본노本奴이자 부지질夫之疾, 파패위破敗位)에 생년권이 앓고 자화기를 만남. 합해서 논하면, 부부가 생리사별한다.

부지질夫之疾(부夫的 제8위)은 파패위이므로 배우자가 병病으로 사망.

아울러 처전교역이 일어나는 사해선巳亥線과 파패위인 형노선이 같은 권기조權忌組로써 평형을 이루어 연동聯動되므로 타격이 훨씬 크다.

생년기生年기가 만나는 사화상四化象

- ①생년기가 자화기를 만나면 기운이 지나가도 생기生機가 없으므로 흉상凶象이다.
- ②생년기가 자화록을 만나면 기운이 지나가면 생기生機가 있음을 대표하며, 록기는 같은 조組이므로 “옛것이 가고 새것을 맞이함”을 대표한다.
- ③생년기가 자화권을 만나면 권기는 부동조로서 상象이 둘이므로 (a) 이미 있는 것이 계속 진행하거나 (b)자화권은 돌변, 새로 증가增加함을 나타내므로, 생년권을 법상해서 떨어진 궁위로부터 득실, 길흉을 논한다.
- ④생년기가 자화과를 만나면 위와 같이 과거는 부동조로서 상象이 둘이고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존재함을 대표해서 (a)이미 있던 것의 계속 진행이나 (b)점차적인 갱신(감각 상에서 새로운 인사물人事物이 출현한다는 느낌이 없음)으로서, 무감한 방식의 갱신에 속한다.

부夫 재財	형兄 자子	명命 부夫	부父 형兄
자子 질疾	P51그림		복福 명命
재財 천遷			전田 부父
질疾 노奴	천遷 관官	노奴 전田	관官 복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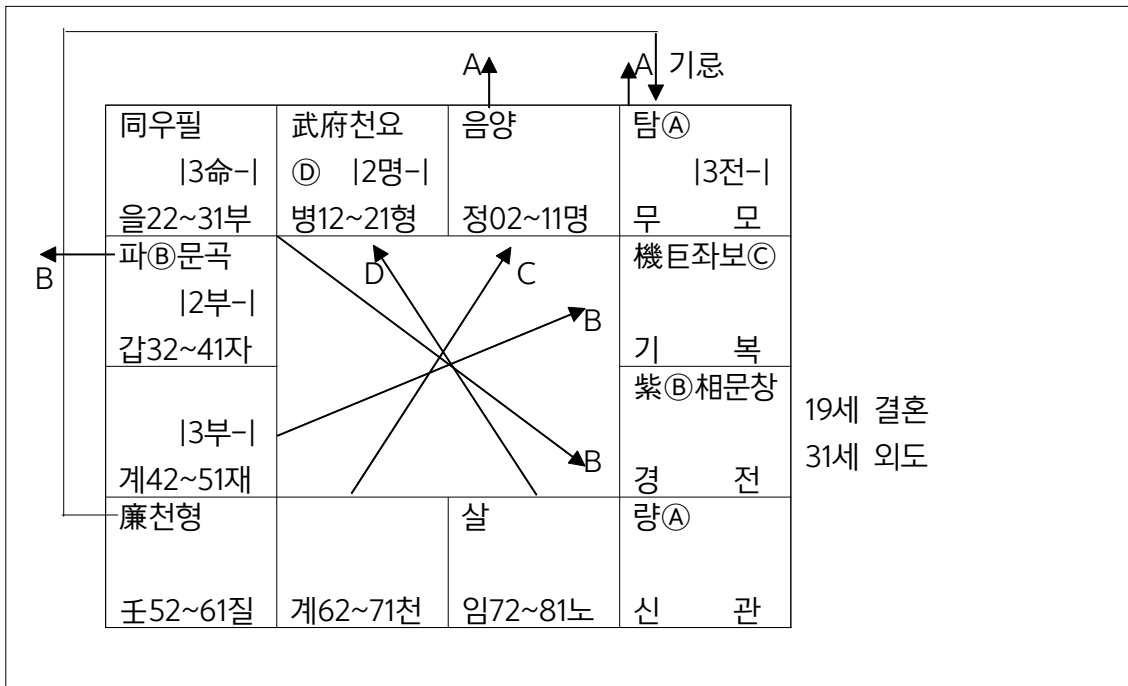
- ◎존재存在, 존유론存有論을 기초로 해서 배우자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곧 부처궁에 태극을 세울 때 “혼인 6내궁”은 즉 명命, 부夫, 재財, 질疾, 노奴, 전田임을 알 수 있다.
- ◎복덕이 비록 혼인 6내궁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다만 복을 누리는 궁위이며, 따라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궁위이다.
- ◎혼인을 논단하거나 혹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도화의 이칙은 다음과 같다.
 - (a)본부本夫 사화가 혼인 6내궁에 떨어지면 혼인할 명임을 나타내므로 즉 그 상象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인사물人事物이 있다.
 - (b)만일 다시 자화自化 동조를 만나거나 혹은 선천상수조(용신조)를 만나면 필연 성국成局하는 상象을 표현하므로 직접 대운과 유년을 추단한다.
 - (c)만일 본부本夫 사화가 혼인 6내궁에 들어가지만, 단 자화 동조나 선천상수조를 만

나지 못하면 곧 “그 상象이 공허함”을 나타낸다.

(d)해상解象할 때는 반드시 당시의 시대배경에 대한 해설을 배합하여야 한다.

명례해설

- 1.본명에 태양, 태음이 있으며, 이곳에서 태음은 명주 본인을 가리키며, 자화록은 명주의 인생관이 낙관적이고 표현적임을 나타낸다. 인연이 좋고 도화가 있다.
- 2.여명이 태음 자화록이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을 좋아한다.
- 3.명궁 공간 정간화권이 부처에 들어가므로, 배우자를 단속하려 하지만, 그러나 본부本夫에 시동자화권이 있어 배우자를 다스리지 못함을 나타내며, 따라서 부처 간 다툼이 있기 쉽다.
- 4.본관에 생년록이 얹어 직장상에서 인연이 좋음을 나타내고, 일이 바쁨을 주초한다.



- 5.본전에 생년권이 얹어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산다.
- 6.본복에 생년과가 얹어 누릴 복이 있음을 표시하며, 이는 계획성적인 복福 누림이다.
- 7.본형에 생년기가 얹어 명주가 자매(무곡)에 대해서 빚진 감이 있고 최대한 메꾸려 한다.
- 8.본부에 시동자화권이 있어 부단히 연기緣起가 되며 변화 중에 파모破耗(여기서는 혼인을 말함)가 있다.

9.부처 을간 확기가 명에 들어가 남편이 단속하기 좋아하며, 자화록과 쌍기를 형성하여 혼인에 기복이 크고 변화가 큼을 나타낸다.

10.본자 자화권은 성욕이 강함을 나타냄. 본자 갑간화기 입명은, 자녀가 명주에게 들라붙음을 나타내며, 자화록을 만나 쌍기를 이루므로 자녀와 연분이 없음을 나타내고, 따라서 이혼 후 자녀 부양은 아버지에게 귀속된다.

11.본자 자화권이 대궁 생년권을 만나 권출權出을 형성하며, 이는 육내로부터 육외에 이르는 도화이고 따라서 사람이 도화를 따라서 간다.

12.본재 시동자화권은 용감이 돈을 벌거나 혹은 전문기술로써 득재한다.

13. 22~31, 32~41 과 42~51대운은 모두 자화권을 얻는 상으로써 생년권을 법상하면 생년권은 전택에 있다. 30년의 권출을 형성하여 즉 30년간 가운이 좋지 않다.

14. 본천 시동자화과는 밖에 나가면 순리함을 주조한다.(태음화과는 명주가 밖에 있을 때 풍정風情이 있다는 것이며 다시 자화록을 만나서 곧 밖에 나간 사람의 인생이 다채롭고 다양한 모습임을 나타낸다)

15. 22~31대운 대명(본부) 시동자화권, 대부(본재) 시동자화권은 동일한 자화상自化象으로서 반드시 생년권으로 법상해야 하며, 생년권은 술궁이므로 유년은 31세이다.

16. 22~31대운에 대부화기가 본부에 들어가 자화록을 만나고 대전으로 올라가므로. 따라서 13부- + 13田- 비궁기+자화록으로 쌍기를 형성, 응당 31세의 유부는 처전 교역이 된다,

17. 혼인이 좋지 못한 상의 역량: 처전교역 >> 대부 총 본부 혹은 대부 총 본명

18. 혼인이 좋지 않은 상은 권기조. 한편 혼인에 좋지 않은 궁은 처전교역이다.

19. 자오궁이 기출을 구성, 형우겁재兄友劫財(무곡성은 재백주)

2011/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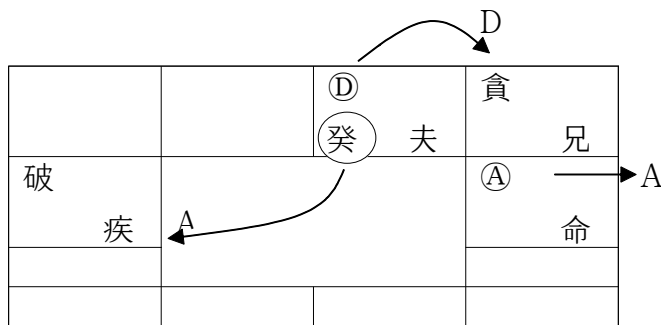
<一>래인궁來因宮에 함축된 의의

기화氣化한 생명生命이 떨어진 궁위宮位가 라인宮來因宮이다(즉 생명生命의 래원來源)

요점:12궁에서 생명사화를 해상解象하는 함의涵義, 반드시 라인宮來因宮을 배합해서 해석解釋

②음양의陰陽義: 태극이 아직 음양으로 나뉘지 않았을 때를 혼동지상混沌之象이라 한다. 음양으로 나뉘었을 때, 즉 라인宮來因宮의 본궁本宮과 대궁對宮이 싱립한다.

i. 라인궁來因宮에 가령 생년사화가 앉았을 때는 반드시 록출祿出, 권출權出, 과출科出 혹은 기출忌出이 되어, “상象에 파破가 있는” 것이 되므로, 곧 록출祿出은 생년기生年忌를 데리고 나간다; 권출權出은, 생년과生年科를 데리고 나간다; 과출科出은 생년권生年權을 데리고 나가며, 기출忌出은 생년록生年祿을 데리고 나가며, 그 상의象意를 푼 것이다.



예례: 길흉을 말하기 전이라는 전제前提하에서 록출祿出을 푼다.

명궁命宮 록출祿出은 생년기를 데리고 나가며, 명주命主가 지니치게 낙관樂觀함을 나타낸다. 자아의식自我意識이 높다. 록출이 생년기를 데리고 나가서, 부처궁夫妻宮에서 배우자가 배합됨을 나타낸다.(여기에는 길흉吉凶을 말하지 않는다)

ii. 라인궁來因宮에 생년사화生年四化가 없지만, 단 대궁에 자화 혹은 시동자화상視同自化象이 있다.

만일 대궁對宮이 자화상自化象이면, 생년상을 법상法象하며, 인생에서 결소缺少를 보거나 혹은 어떠한 상相을 보게 된다.

만일 대궁이 시동자화상視同自化象이면 생년상을 법상法象하며, 인생에서 여러기 모양으로 상相을 보게 된다.

⑥하락河洛의 이치

i. 만일 라인궁이 질액(6)이면 하도의 1.6공중○[의거하여 즉 별도로 한 개 레이궁을 명궁(1)으로 한다. 기연왕래氣言往來이므로, 곧 라인의 대궁 역시 병입되고 즉 명천부질 사궁四宮이 되며, 이 사궁이 명주 일생의 생태공간을 대표한다.가령 이 궁 중에 생년사화가 앉아 있어서 이처럼 사궁 중에 생년사화가 있으면 곧 직전 취상을 하고 명주 평생의 용신“用神”으로 한다. 이 생태공간이 명주의 재관과 성향을 파악하는 요점이다.

ii. 만일 이 네궁에 사회상 혹은 시동자화상이 있으면 곧 명주 일생의 해당 궁으로부터 속박을 당한다. 예례: 무보궁자화록父母宮自化祿, 대표 부모의 건강이 명중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iii. 명천부질 네 궁 중에 명부질은 모두 인위位이다. 명주 평생이 “사람들과 사이를 트는 것與人打交道” 위주가 된다.

iv. 같은 이치로, 대운 명궁의 하도수로 이번 10년 대운의 하도수로 이 10년 대운의 생태공간을 추산할 수 있다.

<二> 생태공간상生年四化象의 함의涵義

㉔ 생태공간상生年四化象은 육양궁六陽宮에 많이 떨어질수록, 귀를 주(主貴)(많을수록 좋다), 명주命主가 이성적임을 주조한다

㉕ 생년사화상이 육음궁六陰宮에 많이 떨어질수록, 부를 주(主富)(많을수록 좋다), 명주命主가 감성感性적임을 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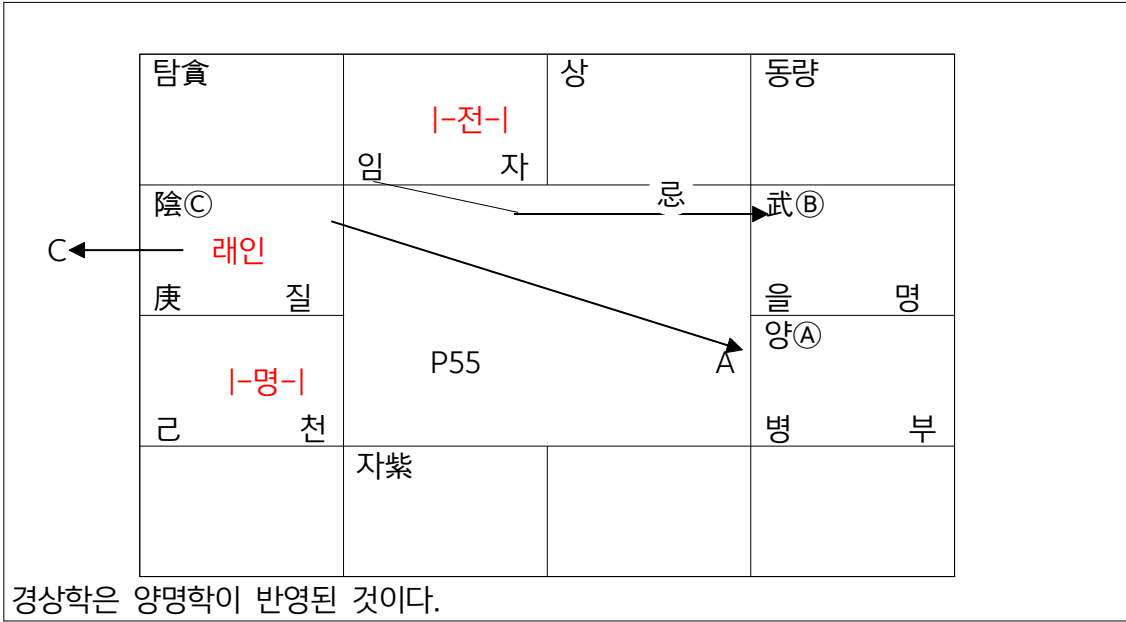
㉖ 생년기生年忌가 육내궁六內宮에 들어가면(가장 좋은 것은 명전질命田疾), 재財가 있고 고庫가 있는 팔자가 된다.

㉗ 생년기生年忌가 육외궁六外宮에 들어가면, 공수래空手來, 공수표空手去의 팔자이다.

㉘ 생년사화가 떨어진 궁위가 “재천위상在天爲象”으로서 현상現象에 속하고 길흉을 논할 수 있다. 길흉을 논할 수 있음은; 진일보 전화하여 “재지성형在地成形”을 이루므로, 즉 물상物相을 이룬다.

① 생년권의 공간은 을간이고 곧 을간에서 나온 화권중 어느 궁위로 떨어졌나로부터 “재지성형在地成形”이 대표하는 함의涵義를 추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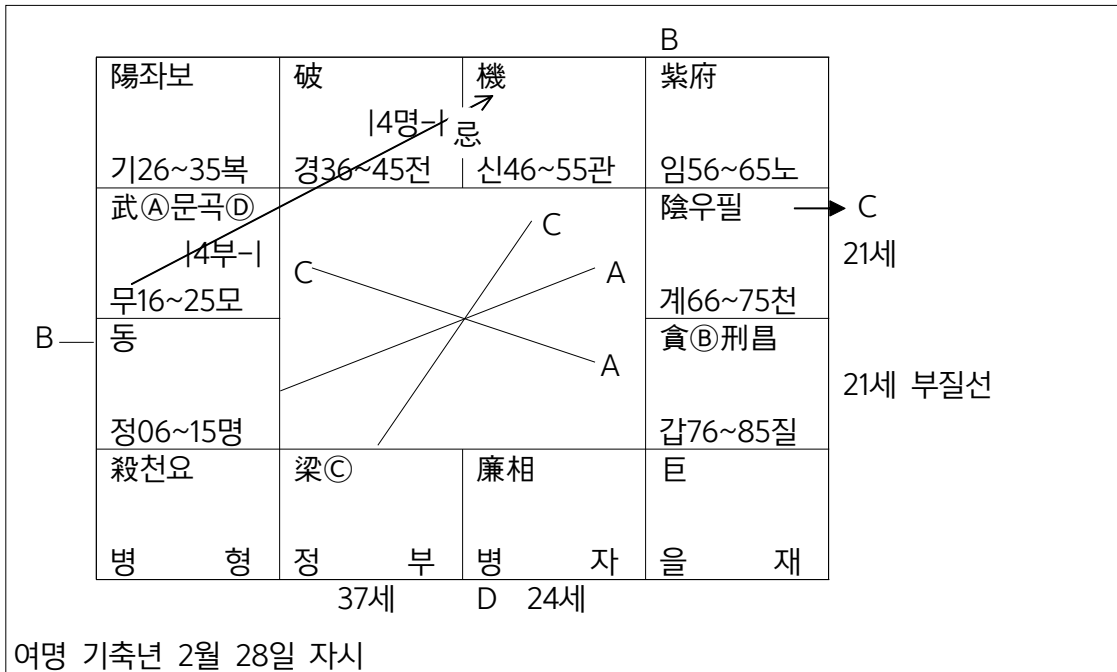
② 경상학鏡相學은 역시 을간乙干的 대궁인 기간己干에서 발동하여, 기간화권己干化權이 어느 궁위에 떨어졌는가로부터 “재지성형在地成形”의 대표적 함의를 해독한다. 이번 例此例: 부모궁이 록출祿出이므로, 이 궁위의 사람은 항구적으로 상주할 방법이 없음을 나타낸다,



◎명命 복福 질疾 교역交易에서는 건강健康을 보고
노奴 질疾 전田 교역交易에서는 수원壽元을 판단한다.

명례해설

1. 16~25대운, 대명에 생년 록기가 않는다, 대궁에서 생년권을 만나 “三象成一인사물”(삼상일물), 게다가 대명(本父)에서 녹출이 형성됨. 따라서 해당 궁의 사람은 영원히 상주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성국成局이 되고 응수하는 해는 진술궁이며 21세의 부질선이다. (사실 : 21세 상부喪父)
2. 본부 자화과는 변화를 주한다. 직접 응하는 대운은 45~55세. 별도로 본부 정간사화에서 그 화권이 본명에 들어가 자화권을 만나 성국, 응한 大運이 6~15세. 단 묘궁과 진궁이 모두 시동자화록으로서 동일한 속성, 즉 왕왕 결혼대운은 16~25세.(처음 시작 이 본명 부처임)



- 유년流年을 정하는 것은 곧 축궁 혹은 진술궁이 응수, 그 중 술궁이 생년권을 법상 해서, 생년권이 떨어진 궁위(사실 24세 결혼, 술궁은 24세의 유부流夫, 위법위)
- 36~45대운. 대부(本父) 무간화기가 본관에 들어가 본부本夫를 충해 흉상이다. 응수하는 유년은 축미궁, 37세에 남편이 차량사고로 사망. (천기는 차량이고 천량은 법률 위반)

명례해설

대표 정재正財				
B	陽 재- 신 관	破문창 임76~85노	機①보필 계66~75천	紫②府문곡 갑56~65질
B	武 경 전 同	남명 을묘년 4월 진시 A		陰③ 명- 을46~55재
	기 복 殺			梁④ 관- 무 부
		C		D

1. 라인궁이 재백으로서 명의 육내궁이므로 자립격이다.
2. 재백궁이 기출출을 형성하므로, 자본이 들지 않는 장사를 해야 한다.
서비스업 혹은 샐러리맨이다. 그 중 태음자화기이고 태음은 재백주財帛主이며, 화기를 만난 즉 제2선 인원으로 물러서야 하므로 회계를 맡게 되었다.(총무과 둘째 라인)
3. 기출출이므로 생년록을 데리고 나가며 생년록의 상은 포기하고 반드시 생년기인 궁위에 의부依附해야 한다고 주해註解한다. 이는 재물에 대한 순조롭지 못한 기氣가 명주의 외부에서의 인연人緣에 영향을 준다.
◎논명할 때는 응당 먼저 유용귀체由用歸體, 즉 용으로부터 체로 회귀해야 한다. 그런 다음 유체기용由體起用, 즉 체로부터 용을 일으킨다. 이어서 체용합일體用合一을 한다.

⊙두 번째 라인궁來因宮은 반드시 하도河圖의 규칙에 비추어 그것이 떨어지는 궁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명주命主 평생의 생태공간生態空間은, 하도河圖와 라인궁來因宮을 투과하여 확정한다.

(a)만일 이 생태공간生態空間 내에 생년사화生年四化가 있으면, 곧 “긍정적肯定的 有用”인 생년사화상生年四化象에 속한다.

(b)생태공간生態空間에 소재하는 네 궁宮의 궁위속성宮位屬性(인人, 사事, 물物)으로써 명주命主의 평생 作爲가 어떠한가를 판단한다.

巨④ 財		來因 丁 夫	
	丁亥年		同③ 命
陰① 遷			
	機③ 官		

1.생년천간은 정丁이며, 따라서 라인궁來因宮은 부처宮夫妻宮이고, 수數=30이다.

2.하도河圖의 “삼팔위붕三八爲朋”에 의거하면, 두 번째 라인宮은 노복奴僕이며, 곧 명주命主의 평생 생태공간生態空間은 부관형노夫官兄奴가 된다. 그 중 세 궁위는 인위人位에 속하므로, 명주命主가 평생 사람들과 교제交際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3.부관형노夫官兄奴 중에 생년과生年科가 있어, “긍정적肯定的 有用”에 속하며 평생 직업, 사업이 평순平順함을 나타낸다.

4.생년生年 록권과祿權科를 삼합三合에서 만나므로, “귀격貴格”에 속하지만, 단 전제는 학력學歷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낙서洛書의 응용법칙

대구리일戴九履一(관록, 명궁 交역交易)공작工作, 사업 論論

좌삼우칠左三右七(부처, 천이 交역交易)출외인연出外人緣, 이성연異性緣 論論

이사위견二四爲肩(형제, 자녀 交역交易)도화桃花, 양성관계兩性關係 論論

육팔위족六八爲足(질액, 노복 交역交易)수원壽元 論論

명례해설

C

		기機◎ 丁 재財	
	정유년丁酉年 남명		음陰(A) 夫
同◎ 官	男命		
			巨◎ 命

- 1.라인은 재백으로서 육내공이고, 당연 자립격이나, 단 생년록은 부처에 있고, 재백은 부夫의 대대위對待位이므로, 따라서 타립격他立格, 즉 “자립격이나 단 타립격을 함유”
- 2.이 명수는 역시 귀격貴格. 생년기가 육내六內, 특히 명命, 전田, 질疾이면 길吉하다.
- 3.재기財氣가 입명入命하므로 유재有財, 유고有庫라는 뜻이나 단 절검節儉한다.

◎자화상自化象이 이른바 “생년상을 법상法象”한다는 의미는 최후에는 반드시 생년生年으로 회귀한다는 것이고, 게다가 금생금세今生今世에 작위作爲한 것이 선천先天 정수定數 중으로 되돌아간다.

◎전통적으로 자미두수를 추산하는 중점은 십이궁의 비궁사화를 투과하여, 본명반으로 돌아가 길흉을 논단하지만, 사실 단지 명주命主의 운세만을 추산할 뿐, 명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섞어 넣지 못한다.

◎사화상四化象은 두수의 용신用神이고 자화상自化象 혹은 시동자화상視同自化象은 시간적 관념을 갖추므로 두수 용신用神 중의 용신用神이 된다.

이칙理則: A궁의 비궁사화飛宮四化가 B궁宮(이곳은 상象이 있는 공간空間임을 대표)에 들어가서; 자화自化 동조同組 혹은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 동조同組를 만나면, 현상現象이 필연必然 발생發生함을 대표한다. 응수應數하는 시간점時間點은 자화상自化象이 소재所在하는 궁위宮位 혹은 생년상生年象을 법상法象해서, 생년상生年象이 떨어진 궁위宮位(이곳은 시간時間이 이르렀음을 대표), 따라서 묘용妙用은 바로 “자화상自化象”이 있는 궁위宮位 상상에 있다.

		A 32세 D		
	陰 己36~45田	貪 庚46~55官	巨同 辛56~65奴	武◎相 壬 遷
29세 大命	廉Ⓐ左曲 戊26~35福	DB		陽Ⓓ梁刑 癸 疾
		C		殺右昌 Ⓜ 財
	丁16~25父			35세
	破Ⓑ 丙06~15命	姚 丁 兄	紫 丙 夫	機 乙 子
		A		

1.라인은 재백이고, 수數=5이며, 하도河圖 “오십동도五十同途”에 배합하면, 곧 별도의 라인공은 “전택”이다.

2.위로부터, 평생의 생태공간生態空間은, 재복자전財福子田에 있으며, 그 중 본자本子에 향심력자화기와 이심자화록이 쌍기雙忌를 이룬다.

따라서 평생 합작승夥를 하면 안되고, 도화桃花가 있으면 안된다.

3.본복本福에 생년록이 앉아, 평생 돈이 있기만 하면, 자신의 생활 품미品味가 끌어 올려진다. 아울러 라인인 재백이기 때문에, “록출祿出”이 되며, “라인공”과 합쳐서 해석하면, 자아의 향락享樂을 잘 안다는 것이다.

4.질액에 생년기가 앉아, 명수의 6내이고, 육음궁六陰宮이므로, 득재得財, 득다得多를 주초한다.

5.천이궁에 생년과가 앉아 출외하면 평순平順하다는 뜻이다. 출외하면 득재得財하고 아울러 여성 귀인貴人이 돕는다(무곡은 여성女星이고, 화과는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일면一面의 연緣을 품은 사람이다).

6.생년과가 명수의 6외궁에 있는 것은 “타음격他蔭格”에 속한다. 한편 명수의 6내궁에 있으면 “음인격蔭人格”에 속한다. 본례의 명주는 “타음격他蔭格”에 속한다.

7.생년권이 본명에 있어, 명주가 재간이 있고, 재능이 있다는 뜻이다. 성강性剛하고 과결果決하며, 행동력이 강하다(파군화권). 대표하는 함의涵義는 전문기술로써 돈을 번다는 것이다.

8.라인공은 재백이고, 생년과가 명궁에 있으므로, 곧 “화기생재和氣生財”를 주초한다.

9. 26~35대한, 대명大命에 생년록이 앉고(대명大命+본복本福=록祿), 향심자화과를 만나, 10년 동안의 운세가 모두 길상吉祥함을 나타낸다.

10.결혼 연령의 판단:

①유체기용由體起用, 본명에 생년권이 앉고, 대궁 본천에 생년과가 앉으며, 자화기를

만나 삼상일三象一을 구성하는 인사물人事物로 말하자면, 매개는 생년록에 있어, 라인 재백 혹은 전택이 될 때, 결혼의 시간점을 논단할 수 있다. 따라서 대운大運은 26~35세, 유년流年은 곧 27, 29, 33 혹은 35세이다.

②유용귀체由用歸體, 본부本夫 병간丙干 사화로 드러난 상象을 본다. 그 중 화록은 본노本奴에 들어가 자화록을 만나 성국成局이 되는데, 생년록을 법상하면, 생년록이 떨어진 궁위는 정定히 26~35세 대운이다. 다시 26~35세 대운의 대부大夫 병간 사화로 유년을 정하면, 곧 32, 29, 35세이다.

③체용합일體用合一, 유년이 중첩하는 해인 29, 35세가 결혼하는 유년流年이다.

11.시험운이 좋고 나쁜 것의 판단, 금년 28세이며, 26~35세 대운에 앉아 있다. 대관大官에는 시험에 가장 유리한 생년과가 앉아 있고, 자화기를 만나며, 대궁에는 생년권이 앉아, 삼상일三象一을 구성하는 인사물人事物로 말하자면, 매개는 생년록에 있으며, 응수應數하는 유년은 (27), 29, 33세이고, 부관夫官을 위법위位法位하면, (25), 31세 역시 가可하다.

주註: 시험을 통과하는 요건은 시험운에 실력을 더한 것이다.

⊙자녀궁과 질액 혹은 천이의 교역交易은 흉상凶象이며, 의외意外로 논한다.

12.대질(본자)의 향심자화기+자화록은 록기祿忌(쌍기)로서, 매개는 권權이다. 을간의 화권이 본질에 들어가 생년기를 만나 성국成局이 된다. 권기權忌이며, 따라서 의외意外로 확정한다. 의외의 응기應期는 29세(위법위位法位) 혹은 34세이다.

13. 29세의 유월流月은 2, 6, 8월이고, 중점重點은 8월에 있다.

14.“천인합일天人合一”로 본 이 의외意外의 상해象解는,

①해궁위亥宮位는 동시에 본자本子, 대질大疾, 유질流疾이 되어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구성한다. 그 중 본자本子和 유질流疾이 “천인합일”을 이루며, 곧 해석의 중심은 “대질大疾”에 있다.

②해궁위亥宮位는 동시에 대질, 유질, 유월명流月命이 되어 천지인 삼재를 구성하고, 그 중 대질과 유월명이 “천인합일”을 이루며, 곧 해석의 중심은 “유질流疾”에 있다.

⊙기氣는 무한하게 늘릴 수는 없으며, 반드시 논단論斷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즉 기氣를 늘리는 것을 쉬거나, 중단中斷할 줄 알아야 한다.

B	동同형刑 丁 전田 破 29세 이혼 丙 복福	무부武府 戊82~91관官	일월⑧	탐貪⑨ 庚62~71천遷 기機⑩거巨姚 辛52~61질疾 자상紫相	34세 재혼 B
	乙 부父	무자년 9月 신시申時 女		卜夫夫 壬42~51재財	
A	염廉右◎창昌 甲02~11명命		살殺좌左곡曲 甲22~31부夫 25세 결혼	량梁 癸32~41자子	36세 이혼

명례해설

- 1.본명 명궁이 얻은 것(廉右◎昌)에 생년사화 상을 더하고, 라인궁의 음양陰陽(左曲)의義를 합하면 본명이 先天에서 얻은 것이 된다.
- 2.본명에 생년과右◎가 앉아 風情바람끼가 있으며 총명하다. 우필의 화과는 貴人의 화과를 대표하므로 이는 貴氣귀태가 나는 도화이다.
- 3.본명궁자화록은 총명하고 인연이 있고 도화가 있는 염정화록(육육肉慾 도화) 관골(광대뼈)이 높다는 표시.
- 역주)염정은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종법제도宗法制度를 대표하므로 염정화록이면 고전미가 있고 염정은 정신(조상신. 삼신할매)을 대표하므로 염정화록은 기분이나 분위기 발동하게 되며, 따라서 육체적 욕망은 아니다. 그러나 염정은 어느 정도 격激한 면이 있다. 걱정적인 사랑.
- 4.위의 해를 합하면 명주는 도화가 따르는 명이고 인연이 있고 이성연을 선택하고 고른다.
- 5.본천에 생년록이 앉아 외지로 나가 발자취를 남기는 명이다. 탐랑화록은 재예才藝로써 득재得財함을 주한다. 라인이 관록이라는 것과 합해서 해석하면 곧 명주의 직업. 사업이 좋고 재예적인 직업에 종사하기 적합하다.(록. 과) 예를 들면 가수, 방송진행자(MC), 정교한 물품(시계. 보석) 고급음식점 등 오락사업이다.
- 6.본질에 생년기가 앉아 어린시절 신체가 좋지 않다. 개성이 직선적이고 성난 표정이며 또한 자화록을 만나 쌍기를 형성하며.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크고 변화가 커서 '맑은 날에 구름이 끼더니 갑자기 비가 퍼붓는' 스타일에 속한다.

주)명궁에서는 명주의 본성을 볼 수 있고 한편 질액궁은 명주의 성깔(의식형태가 바뀌어 향동으로 나타는 것이 비기脾氣이다)이 나타나며, 따라서 명궁은 선천, 질액궁은 후천의 개성을 나타낸다.

7.본노에 생년권이 앞서서 사귀는 친구가 종종 재간이 있고 재화才華가 있는 사람이다. 단 붕우와 다툼이 나고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태음화권은 재간이 있고 재화才華가 있는 친구가 종종 여성이다. 라인궁 관록과 합하면 곧 전체적으로 사귀는 친구 중에서 재간 있고 재능 있는 자가 종종 직장에서 사귀는 여성 친구라는 것이다.

8.본명 명궁에 생년과 앞은 것은 곧 本夫의 자화과 상이 “과입科入”된 것으로서 얻는 것이 있고 깃하며 배우자가 있다는 상수象數를 나타낸다.

⊙처전교역妻田交易은 생리사별生離死別를 주하며 흉상임.>>大夫의 기가 本夫를 충함.

논단하는 관건은 “궁위전환”에 있다.

9.本夫의 시동자화과는 변화가 있음을 대표하며 따라서 22~31대만에 결혼한다.

주註: 만일 본부에 자화상이 없다면 곧 본부 혹은 대부 공간宮干에서 비궁사회를 날린다. 혼인육내궁에 떨어지는가 여부를 살피고 만일 혼인육내궁에 들어가면 배우자가 있는 상에 속한다. 가령 다시 자화동조 혹은 선천상수조를 만나면 곧 “긍정적 有”인 상으로서 반드시 배우자가 있다. 응수하는 대운, 유년은 상이 떨어진 궁위 혹은 생년상을 법상한 궁위라고 논단한다.(둘 중 하나가 대운으로 정해지면 다른 하나가 유년流年인 경우가 많다)

10.본재화기本財化忌가 본부本夫를 충하는 것은, 결혼 후 배우자가 나를 좋지 않게 대한다는 표시. 다시 더해서 본재 화과가 본부本夫에 들어가서 곧 과기조科忌組를 형성해서 점차적인 갱신更新에 속하며, 부처夫妻 대대對待는 매황유하每况愈下, 즉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형편이 날로 악화됨을 대표.

11. 22~31대운, 대부大夫 임간화기가 본부本夫를 충하며, 유년流年으로 바꾸면 곧 25세 유명流命이 된다. 가장 좋은 것은 기운이 충한 것을 지나서 결혼해야 한다. 별도로 대부大夫 자화권은 결혼 후 부처夫妻가 쟁집爭執, 마찰을 일으킴을 대표

12. 32~41대운, 대부大夫에 생년기가 얹고 자화록을 만나 시공時空을 모두 갖춘 상象이며, 쌍기雙忌를 형성해서 기복起伏이 크고, 변화가 큼을 대표

주註: 25세 결혼, 29세 이혼, 34세 재혼, 36세 다시 이혼.

13.만일 다시 결혼하려면 32~41대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림이 좋다. 42~51대운에 이르러야 대부大夫에서 흉상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14.이상의 논단에서 “처전교역”이 보이지 않고 단지 大夫에서 나타나는 흉상일 뿐으로서 이혼이 가장 많다.

◎부처궁의 사회상에서 논단하는 것은, 결혼을 생각하고 사귀는 것이다.

◎자녀궁의 사회상으로부터 논단하는 것은,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사귀는 것이다.

◎과료가 대표하는 숫자는 “3”이다.

15. 종사하기에 적합한 직업을 논하는 것은, 명궁 우필생년과+천이 탐랑 생년록에 다시 라인궁(관록궁)을 합해서 해석하면 곧 “도화桃花 사업”이다.

16. 本子 화기가 본천本遷에 들어가 본명을 충하고 생년록을 만나 쌍기를 형성한다. 이는 명주가 만나는 도화가 좋지 않음을 대표. 단 본천에 생년록이 있어 비궁상 해상 원칙에 의거하면 록출이라도 최후에 생년록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吉함을 주초함. 다시 라인궁을 합해서 풀이하면 도화의 대상이 대개 직장에서 알게 된 이성이다.

17. 32~41대운, 대관에 시동자화록이고, 화록의 방향은 질액궁으로 사입射入하는데, 이는 명사의 육내궁이며, 공작工作에 이동異動이 있음을 주초. 자화록과 생년기를 만나 기복起伏이 크고 변화가 큼을 대표. 생년록을 법상하면 생년록이 떨어진 궁위는 신궁申宮이고, 곧 이 변동은 41세가 지나기를 기다려야 사업이 비로소 안정되며, 이때의 신궁申宮은 41세 유년流年의 유관流官이다.

18. 42~51대운. 대관에 생년과가 앉고 자화록을 만난다. 래인이 관록이므로 본관 화과가 대관에 들어감을 대표(이는 선천의 운세임). 약간의 명성이 있고 명성으로 인해 得財.

19. 42~51대운. 대관 화과가 본관에 들어감. 명성이 있음을 대표.(선천의 운세)

20. 42~51대운. 대재와 본관의 궁직이 중첩. 이번 10년간 대운에서 얻은 財는 직업에서 얻은 財. 즉 正財. 대재의 천기기가 질액(6내궁이자 6음궁)에 들어가서 많은 재물을 얻음을 主.

◎이른바 “상출象出”이 가리키는 것은 “육내궁六內宮”에서 飛到“육외궁六外宮”으로 날아가야 비로소 진정한 “성출象出”로서 주흥主凶

예례: 전택궁田宅四 화상化象 입入자녀子女는 “상출象出”, 흥상凶象임.

자녀子女 사회상四化象 입入 전택田宅은 “상출象出”이나, 단 비길상非吉象 이상 양자兩者 모두 “도화桃花”라 함.

◎논명論命할 때, 주관조건主觀條件은 명주命主 생신팔지生辰八字에서 얻은 명사와 운運이며, 객관조건客觀條件은 명주命主 주변周邊에 왜재하는 세계世界の 변화變化를 가리킨다. 따라서 반드시 동시에 주관조건主客觀條件을 장악해서 논단論斷해야 비로소 완전한 논명論命

◎“재천위상在天爲象; 재지성형在地成形”, 재천위상在天爲象은 선천先天의 현상現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길흥吉凶이 있다. ; 재지성형在地成形은 곧 이미 이루어진 물상物相으로서, 길흥吉凶을 논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재지성형在地成形은 재천

위상在天爲象을 완전 전석詮釋하는데 쓴다.

예례: 본노本奴에 얹은 생년권生年權은 태음화권太陰化權. 이는 “재천위상在天爲象”이라 하며, 가리키는 것은 명주命主가 맺은 여성친구女性朋友가 종종 재간이 있음을 주주. 진일보해서 말하면 “재지성형在地成形”을 이용해 이 상수象數를 완전히 해석하는 것으로서, 방법方法은:

본노本奴 기간己干화권化權 입입본천本遷; 본노本奴의 대궁對宮 본형本兄 을간화권乙干化權 입입본자本子(합과위습夥位)

(이 양자兩者는 곧 “경상학鏡相學”적 사용使用)

따라서 “재지성형在地成形”의 해석解釋은:

- ①기간화권己干化權 입입본천本遷, 가리키는 것은 재외在外 혹은 국외國外에서 알게 된 여성봉우女性朋友
- ②을간화권乙干化權 입입본자本子, 가리키는 것은 합작습夥하는 것은 여성봉우女性朋友
- ③종합綜合해서 말하면, 종종 재외在外에서 국외합작國外습夥이 이루어진 것은 여성경영자女性老闆

2011/10/08

갑진년甲辰年 9月 사시巳時 여명女命

창昌 己03~12명命	기機 庚	紫破⑥ 辛 복福	壬 전田
양陽④ 戊13~22형兄	D		府曲姚 癸 관官
무武③살殺 丁23~32부夫	A		陰 甲 노奴
A 동량同梁우右 丙33~42자子	相 丁43~52재財	巨左 丙 질疾	염廉①탐貪 乙63~72천遷

명례해설

논명의 순서는 먼저 “유용귀체由用歸體”이고 다시 “유체기용由體起用”이며, 따라서 궁위는 “체용관계”를 이용해서 논단한다.

○궁위의 “유체기용由體起用”은, 본명 12궁에서 비출飛出한 사화四化 착상着象으로부터, 이하 應하는 착상적着象的 대운大運으로 길흉을 논論

1. 본부本父 화록 入本형本兄인데, 비궁상飛宮象을 해상解象하는 이칙理則은 순서와 사건발생의 시간時間 전후이다.

본부本父의 비궁록飛宮祿이 시동태음자화권을 만나고 다시 생년기를 만나, 삼상성일 인사물三象成一人事物을 말해서 성국成局하므로, 현상이 필연 발생함을 나타낸다.

해상解象: 부모와 자기의 형제자매가 유연有緣임을 주하지만, 단 형제 사이의 연분은 약한 편이며, 종종 하늘도 어쩔 수 없다. 부모의 자매가 형제보다 장수長壽하거나 혹은 형제가 거의 없다.

2.본부화기가 본자에 들어가 자화록을 만나 쌍기를 형성, 해당 본자本자가 대부大父로 바뀔 때, 즉 43~52대운, 본부本父+대부大父=쌍기. 즉 43~52대운에 부모에게 흉상凶象이 있음을 주한다.

3.대부大父 병간비궁사화는, 곧 대부大父 자화록을 형성하므로, 생년록을 법상하면, 생년록이 떨어진 궁위는 해궁, 따라서 기氣가 사궁巳宮에 모인다.

4.대부大父병간과기가 본명本命, 본천本遷에 들어가, 과기조科忌組를 형성, 선천상수조 과기조와 평형을 이루어 성국成局, 사건이 필연 발생함을 대표. 응수應數하는 궁위는 사해궁巳亥宮이다.

5. 3과 4를종합하면 곧 사궁은 부모의 흉상凶象에 응하는 중점궁위重點宮位이며, 43~52대운大運에 의거하여 유년流年을 논단하면, 곧 응하는 것은 49세의 流父 혹은 50세 유명流命이 된다.

6.대명 정간화기가 본부本父를 충하여, 역시 부모가 흉상凶象을 본다는 것을 주한다. 게다가 정간화기가 본질本疾에 들어가고, 또한 자화권을 만나 성국成局임을 표시하며, 현상은 필연 발생한다. 응수應數하는 궁위는 곧 상이 떨어진 궁위 혹은 생년상을 법상해서, 생년상이 떨어진 궁위, 즉 자오진술子午辰戌의 궁이며, 그중 진궁과 사궁이 상연相連하는 까닭에 응기應期는 49세이고, 유월流月은 곧 4, 10 혹은 5월이며, 만일 유명流命이 50세이면, 곧 3, 4 혹은 9월이다.

7.결혼結婚을 논하면, 본부本夫에 생년과가 얹어, 혼인하는 상象이 있음을 주한다. 본부本夫 정간 사화가 혼인의 대운을 결정하므로 곧 화록이 본노本奴에 들어가, 시동자화기를 만나, 즉 자화동조自化同組의 상이 되고 게다가 본노本奴가 혼인의 육내궁이며, 따라서 응應하는 대운大運은 13~22 혹은 73~82이다. 화권이 본자本子에 들어가, 논단할 필요가 없는데, 본자本子は 혼인婚姻 육내궁六內宮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과가 본부本父에 들어가고, 화기는 본질本疾에 들어가, 과기조科忌組를 형성해서, 즉 선천상수조에 평형平衡을 이룬다. 응應하는 대운大運은 53~62이다.

8. 응수應數하는 대운에는 결혼이 불가능한 편이며, 따라서 궁위宮位를 써서 대운을 결정하며, 곧 본노本奴에서 응應해 나오는 궁위는 진술자오辰戌子午가 된다. 본부本父, 본질本疾에 응應해 나오는 궁위는 곧 자오인신子午寅申 등 4개 궁위 곧 만일 명주命主가 13~22대운에서 결혼하지 못하면 다음 하나가 결혼하는 대운 즉 33~42대운이다. 33~42대운大運은, 대부大夫 시동자화권이 또한 본질本疾(혼인육내

궁)이므로 따라서 결혼년을 자궁子宮, 즉 33세로 직단할 수 있으며(사실, 33세 결혼), 유월流月은 곧 가능한 것이 2, 8 혹은 4, 10월월이다(응應하는 것은 진술辰戌 혹은 자오선子午線 상이다).

⊙자녀의 유무有無를 논술하려면 자녀子女, 복덕궁福德宮을 보라. 여명女命이면 곧 반드시 질액궁疾厄宮을 살핀다.

9.본질本疾에 시동자화권이 있어서, 생년권을 법상法象하면, 생년권이 떨어진 궁위는 복덕福德이다. 즉 선천에 유자녀有子女인 상수象數를 나타낸다. 본질本疾 병간에서 화과가 본명本命에 들어가 시동자화권을 만나 자화동조自化同組를 이루어 성국成局이 되며, 현상現象이 필연 발생함을 대표한다.

10.본질本疾 병간의 과기科忌 쌍상雙象은 본명本命과 본천本遷에 나뉘어 들어가, 과기조科忌組를 이루고, 선천상수조와 평형平衡을 이루어 성국成局하며, 현상이 필연 발생함을 나타낸다. 과기科忌의 매개는 록祿으로서, 본자本子の 자화록自化祿이 된다.

11.복덕궁에 생년권이 앉아 “재지성형在地成形”의 경상학鏡相學에 의거하여 보면 정간화권丁干化權이 자녀子女에 들어가 유자녀有子女인 상상을 나타낸다.

역주)경상鏡相학은 말 그대로 거울상을 본다는 것으로 대궁에서 같은 사화를 날려 본다는 것이다. 이는 본대일선本對一線이므로 본궁과 대궁은 동등同等하다는 관점이다(철학적으로는 양명학陽明學의 정신을 나타낸다)

12.상술上述한 것을 종합하면, 유자녀有子女인 명命으로서, 지금 유년流年은 48세, 곧 가장 빠르기로는 50세 유명流命이 본명本命에 앉아, 만나는 것은, 유자流子(본자本子)와 유질流疾(본질本疾)의 병간丙干에서 발사하여 성국成局하는 상象(이곳에서는 주로 인궁을 살피는데, 자녀가 무無에서 유有로 바뀜을 대표), 곧 그 사람에게 인공수정을 권고했으며, 유월流月이 1, 7, 4, 10월월, 그 중 7, 10월월일 확률이 높은 편이다.

역주)병간의 과기科忌 쌍상이 명천선에서 성립하여 선천상수조와 평형을 이룬다. 한편 자녀궁 천동자화록은 대궁 임간 천량 시동자화록이 날아와 록출祿出이 되므로 무자녀인 상이다. 그러나 같은 병간인 질액에서 천동화록이 들어오므로 다시 유자녀인 상으로 변한다. 유월을 보자면 인궁이 자녀궁이고, 유명流命이 사궁이므로 유자流子인 병간이 1월이다. 따라서 가능한 달은 자전선 1, 7월과 과기 쌍상이 성립하는 4, 10월이다. 이 중에서 화록을 발사하는 7월(게다가 임신을 뜻하는 壬干임)과 선천록이 있는 10월이 유력하다.

13. 43~52대운, 대관大官(본명本命)에서 시동자화권 상象을 얻어, 부단한 연기緣起를 주초하고, 아울러 권權을 장악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관록궁이 가장 반기는 것이

화권化權을 만나는 것이며, 따라서 이번 10년 안에 승진升遷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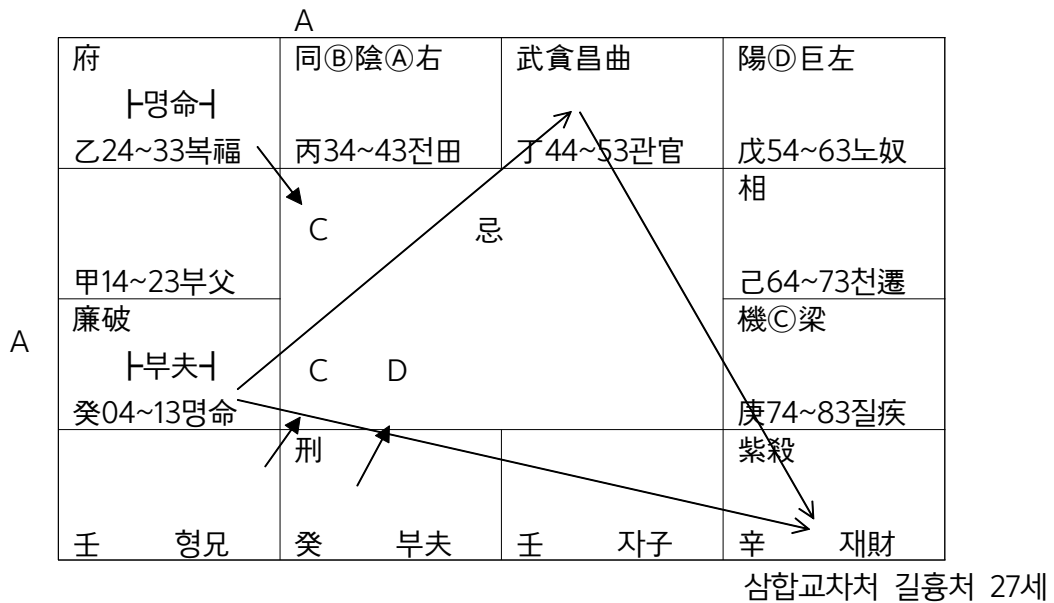
14. 43~52대운, 대관大官에서 화化한 祿, 기忌가 본부本夫, 본관本官에 나뉘어 들어가며, 그중 화록은 본부本夫에 들어가 본관本官을 비추고, 화기는 본관本官에 앉는다. 따라서 쌍기雙忌로 논論하지는 않으며, 단지 기복起伏이 크고, 변화變化가 큼을 주하며, 따라서 동動하면 할수록 좋아지고, 응수應數하는 유년流年은 발사궁發射宮 혹은 상象이 떨어진 궁위宮位, 즉 사巳, 묘卯, 유궁酉宮으로서, 50세 혹은 52세에 승진升官함을 주한다.

역주)승진은 실제로는 화권이 주이므로 생년화권이 있는 52세가 유력하고 대한관록 기간己干 화권인 탐량이 비추는 50세 역시 유력하다.

기간 무곡화록과 문곡화기는 하나는 주성이고 하나는 보성이므로 쌍기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선천화과가 있으므로 삼상일물로 작용한다.

명례해설命例解說

정유년丁酉年 5월 묘시卯時 여명女命



1. 본부本夫 시동자화권은, 부단한 연기緣起를 대표하지만 그러나 혼인연姻緣(부처夫妻)의 연緣이 박薄하며, 생년가를 법상하면, 생년기가 떨어진 궁위에서 진일보한 해석이 가능하며, 곧 부단한 연기緣起와 노복궁이 유관하며, 노奴는 부지질夫之疾이며, 따라서 배우자의 신체건강 혹은 의외意外와 유관하다.

③모궁에 자화록(기)이 있고, 만일 해당궁 공간에서 비출한 기(록)이 떨어진 궁위와 해당 궁이 삼합관계를 이룬다. 곧 삼합의 교차처인 궁위는, 이 상象이 대표하는 시간

과 공간으로 논할 수 있다.

2.사실事實: 27세에 남편을 상실喪失하고, 2子1女가 있다.

3.본부本夫에 시동자화기는, 화기 방향이 관록으로 사입射入해서, 종종 결혼의 대상이 직장 상에서 사권 사람임을 대표한다.

4. 24~33대운에, 대부大夫 계간 자화록이고, 화기는 본관에 들어가며, 대부大夫(본명)과 삼합관계를 이루며, 곧 삼합교차처인 궁위는 해당궁이 길흥처이며, 응수應數는 27세才, 이 해에 상실喪失한다.

5.재혼再婚을 논하면, 29세에 축궁에 앉아 본부本夫 시동자화기가 있어, 기회機會가 있지만, 단 화기는 곧 가장 좋지 않아서, 별도로. 31세 유명流命이 묘궁에 앉아 자화록을 만난다; 한편 유부流夫는 축궁에 앉아 자화기를 만나므로 곧 길흥이 반씩 섞이며, 따라서 여전히 마땅치 않다.

만일 참으로 31세에 재혼하려면, 응당 “과기법過忌法”을 이용해서 화기가 조성하는 불순不順을 피해야 하며, 곧 8월 하순 이후가 좋겠다고 권고한다(사실: 31세 재혼)

6.결혼년을 논하자면, 본부本夫의 시동자화기는 변화가 있음을 대표하며 대운이 44~53세로 직론할 수 있고, 혹은 생년기生年忌를 법상하면, 생년기는 신궁申宮에 있고 54~63세 대운이다. 기氣는 왕래한다고 하므로, 곧 인궁寅宮은 14~23세 대운의 대부大夫이다. 혹은 본부本夫 화록이 본명에 들어가서 자화록을 만나 성국成局이 되므로, 현상이 필연 발생함을 대표한다. 4~13세 대운 혹은 24~33세 대운의 대부大夫로 정할 수 있다. (사실: 17세에 결혼, 유부流夫는 마침 본부本夫 시동자화기인 궁위이다)

곧 본부本夫에 수반하는 불순한 기氣는 배우자의 신체 건강 상에 응한다.

7.본전本田에 생년록권이 있고 자화록을 만난다. 이 한평생 부동산이 있음을 대표하고, 본전本田 병간화권으로써 부동산 취득 방식을 볼 수 있다.

생년록권이 있고 다시 자화록이 있으므로, 유생년유자화有生年有四化가 되므로, 이미 현상이 필연 발생함을 대표한다. 이 상수象數를 평형시키려면, 즉 반드시 화권을 찾아 해상解象을 해야 한다.

화권인 천기는 질액에 들어가서, 조업을 계승하거나 혹은 스스로 부동산을 구매한다. 게다가 록권이 착상錯象이므로(즉 자화동조自化同組가 아님), 따라서 보유하는 부동산은 2필筆 이상이다.

8. 44~53대운, 대부화기大夫化忌가 본전本田에 들어가(처전교역妻田交易), 원래는 부처夫妻의 생리사별을 뜻하지만, 단 본전本田에 생년록권과 자화록이 있으므로, 비궁상飛宮象 해상解象 이칙에 의거하면 곧 대부大夫+본전本田=기름가 자화록을 만난다 다시 생년록권을 만난다. 최후에 생년록권이 있으며 따라서 그저 남편 집을 떠

아서 자녀와 같이 살게 되었다.

⊙재관을 논하면, 응당 먼저 정향定向을 해야 하며, 방법은: 하도로써 “생태공간生態空間”을 정하고, 연후 대운 역시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이 대운 10년의 재관財官 방향을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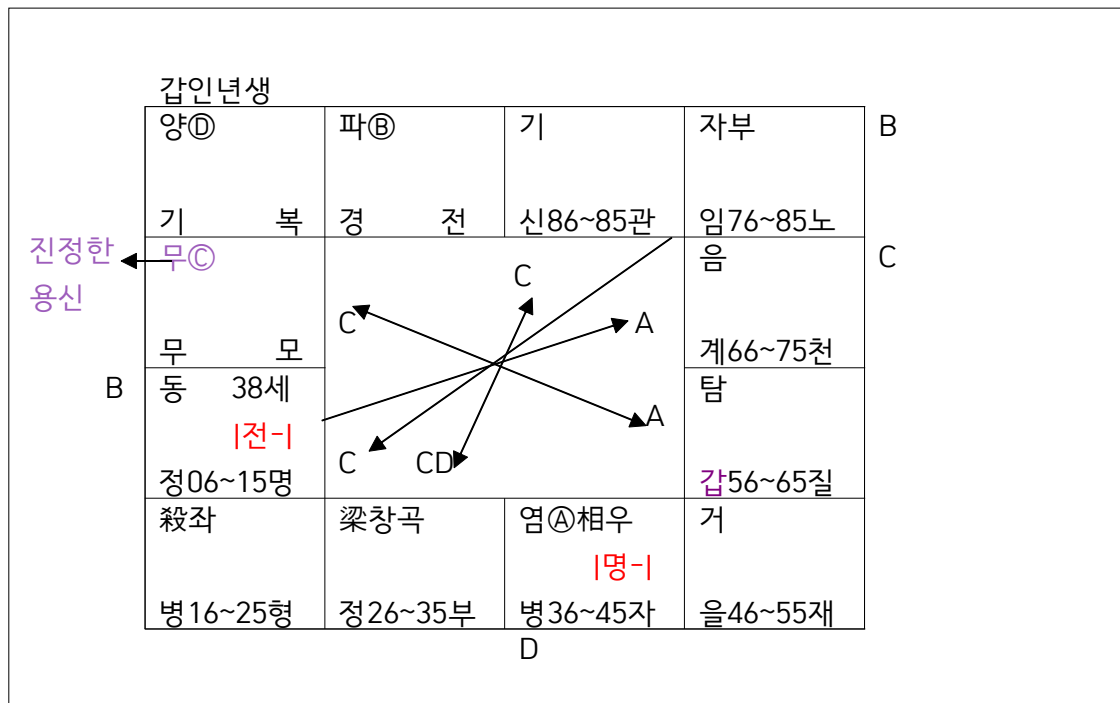
9.본례本例: 라인공來因宮이 관록官祿에 있고, 대궁에서 부처夫妻 시동자화기를 만나서, 곧 라인공來因宮 관록官祿이 하나 더 많은(多一) 상象이며, 생년기를 법상하면 노복奴僕에 있다. 따라서 선천에서 배우자 연緣이 박薄하며, 결혼할 대상對象의 신체건강이 종종 좋지 않다(노奴: 부지질夫之疾)

2011/10/14

명례해설命例解說

1.라인來因은 질액이며 일육공중一六共宗에 속하고, 따라서 평생 생태공간生態空間은 명천부命遷父疾이며, 그 중 본부本父에 얽은 생년과가 있고, 따라서 생년사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년과이다. 대궁 본질本疾 시동자화과와 함께 “과출科出”을 형성한다.

2.자녀궁에 생년록이 얽아 자녀를 낳은 후부터 복록福祿, 재록財祿, 식록食祿이 비로소 밝게 드러난다.



3. 36~45대운, 대질大疾 시동자화과기이므로 쌍상雙象은 이미 “의대意對”(뜻이 맞음)를 이루어 성국成局하므로, 직접 시간에 應應할 수 있으며, 응하는 것은 축미표

未와 진술궁辰戌宮이다(진궁에 있는 생년과를 법상法象하기 때문)

4. 36~45대운, 대재大財 화기가 본부本父에 들어가 시동자화록을 만나며 (자화동조를 형성하여 성국成局하며, 현살이 필연 발생) 쌍기雙忌를 이루어 본질本疾(대부大夫)를 충하여 대파재大破財를 주 한다. 단지 “부작위不作爲”법法을 이용할 수 있으면 즉 이 쌍기가 조성하는 대파재大破財를 피할 수 있다. 말하자면 “투자이재投資理財”하는 행위行爲를 하지 않는 것이다.

5.본재本財 을간화기가 본천本遷에 들어가, 자화과自化科를 만나서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가 과기조科忌組임) 성국成局하며, 본명本命을 충해서, 평생 투자이재投資理財에는 적합하지 않고, 따라서 “종신終身 상반격上班格”(샐러리맨격)이다.

6.래인궁來因宮은 질액궁疾厄宮이며, 6내궁六內宮이므로, 자립격自立格이다.

7.본부本父에 생년과가 앉는데, 무곡화과이며, 그 중 무곡은 재백주財帛主이고, 화과化科는 계획성이 있음을 뜻하므로 하나로 합하면, “계획성計劃性인 이재理財”가 되므로, 직업은 “회계會計”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부모궁은 “공교위公敎位”이고 과科는 과갑科甲, 과명科名, 공명功名을 대표하며, 더 나가서 “면허證”을 취득한다. 따라서 무곡생년과가 부모궁에 앉으면, “회계사會計師 시험에 응시”한다고 볼 수 있고, 응수應數하는 기산은 대운大運을 배합해야 알 수 있다.

주註: 자격증이 없는 직업이 만일 위와 같은 상수象數를 얻었다면 곧 “지명도知名度가 높은” 유명 인사라는 것이다.

8. 36~45대운, 대관大官에 생년과가 앉고, 시동자화록視同自化祿을 만난다. 대궁이래인궁來因宮으로서, 곧 다일상多一象(상이 하나 더 있음)이며, 생년록을 법상하면 생년록이 떨어진 궁위는 자녀궁이므로, 즉 정위定位(자기 자리 정하기)는 “합작合作해서 얻는 재財”이다.

주註: 과科의 특질特質은 평형平衡이다.(생년과가 자화과를 만나고 남은 것이 자화록이므로 생년록을 찾아 평형을 구한다)

9.“재천위상在天爲象, 제지성형在地成形”을 이용해서 시험운의 좋고 나쁨을 보면(여기서는 “회계사會計師”를 가리킴), 곧 대관大官이자 본부本父 무간화과가 본자本子에 들어가고, 비궁과飛宮科가 자화기自化忌를 만나며, 다시 생년록生年祿을 만나, 삼상일 인사물설을 구성하여 성국成局한다. 현상이 필연 발생함을 대표하며 응수應數하는 궁위는 상이 떨어진 궁위 혹은 발사궁이다. 진辰과 자오子午의 궁宮이다.

10.대관에 생년과가 앉고 자화록을 만나, 유생년유자화有生年有自化이므로, 곧 현상이 필연 발생한다. 응수하는 궁위는 자화궁위自化宮位이므로, 진궁辰宮 혹은 생년록을 법상하면, 생년록이 떨어진 궁위는 자궁子宮이고, 기氣는 왕래한다고 하므로 따라서 자오궁子午宮이 된다.

11이상을 종합하면, 응수應數하는 궁위는 진辰, 자오궁子午宮이며, 곧 36~45대운인

39세(辰) 혹은41세(午)이다.

◎단상單象은 단지 상의象意를 해설할 수 있다면, 요령은 “궁상합일宮象合一”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쌍상雙象은, “의대意對”를 이루고 게다가“성국成局”이 되므로 길흉吉凶, 득실得失, 취상聚散, 유무有無 등등의 문제가 있게 된다. 따라서 쌍상雙象은 실제 있는 상象이다.

역주)쌍상은 흠천문에서 물대物對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물대物對라고 하면 오해를 사기 쉽다. 쌍상이 아니라 삼상성물三象成物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쌍상은 처음부터 물物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 조건에서 의대意對가 성립하면 마치 물物처럼 실제 존유存有하는 象일 뿐이다. 물리학적으로 말해서 쌍상은 아직은 파동상태이고 이것이 특정 상황에서 물질상태로 되는 것이다.

◎“본명에 생년권이 얹고, 본천에 생년록이 얹는”과 “본명에 생년록이 얹고 본천에 생년권이 얹는” 구별은,

본명에 생년권이 얹으면, 본신本身이 재간能幹이 있고, 재화才華가 있다. 자아自我 본신本身의 역량으로 재록을 얻을 수 있다. 본천에 생년록이 배합되면, 곧 외지로 나가면 더욱 좋음을 대표한다.

본명에 생년록이 얹으면, 그저 명주命主 본인이 똑똑하고 인연이 있으며 성격이 좋다는 것이다. 본천에 생년권이 배합되면 곧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이 재간이 있고 재능 있는 사람임을 대표하고, 그 역량에 의지해야 비로소 명주命主가 재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록성祿은 허록虛祿이며, 권과기權科忌가 있어야 비로소 실록實錄이다

록祿은 연기緣起이며, 반면에 권과기權科忌는 곧 유물有物이다(이것이 곧 “연기유물緣起有物“이다)

생년록生年祿은 하늘이 당신에게 복福을 누리라고 준 록祿이지만 그러나 권과기가 배합되어야만 비로소 능히 어느 곳에서, 하늘이 당신에게 누리라고 한 복福인 록祿을 얻을지 알 수 있다.

논단방법: 먼저 생년록을 찾고, 그런 후에 생년록이 떨어진 궁위로부터, 동궁同宮을 살펴, 본대궁本對宮에서 생년 권과기權科忌를 만나는가 여부를 보고, 그 다음은 이웃궁鄰宮을 보고, 다시 다음으로 삼합에서 생년 권과기權科忌를 만나는지 여부를 살펴라.

만일 록권祿權, 록과祿科 혹은 록기祿忌이면 된 것이다. 이러한 요령에 의거하여 상象을 풀이한다.

별도로, 하도河圖로 회귀해서, 라인궁來因宮과 아울러 하도河圖에서 날아가 떨어진 본명本命의 생태공간生態空間을 이용해서,

록권祿權, 록과祿科 혹은 록기祿忌의 조합이 되는가 여부를 본다.

역주)예를 들어 복덕궁이 라인궁이면 복덕 11=1이고 일육공종이므로 복덕궁선과 질액궁선이 생태공간(사대가합)이 된다. 다시말해 재복과 부질의 네 궁이 생태공간이다. 일본말로 나와바리(繩張り)인 것이다.

◎상술한 이칙理則에 의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록祿은 사령司令의 조합이라는 것이고, 곧 명주命主 평생의 재관財官의 방향을 논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 조합의 함의涵義는:

(a)록권祿權: 재간있고 재화才華가 있음을 초한다; 전문기술을 써서 재물을 도모한다; 권력이 있음을 주초하며, 애써 노력함을 주초하고, 지출이 있음을 주초한다.(어느 정도 돈을 쓸 곳이 많음을 뜻하고 본인 스스로가 지갑을 잘 여는 성격이다)

종사하는 직업을 논하자면; 다원화多元化되고, 여러 업종을 통합한다(속칭 문어발식).

(b)록과祿科: 전문지식이 있음을 주초하며, 문교文教, 학술學術, 종교宗教, 철학哲學 혹은 오승五術과 아울러 자연과학 계열의 직업에 종사한다(격국이 좋으면 대개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직으로서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이다).

(c)록기祿忌; 샐러리맨족이며, (자영업을 한다면) 현금 매매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조고맛감 샷기 광대 네 마리라 弄弄

12. 36~45대운에, 대명에 생년록이 있고, 대천大遷에 생년권이 았아, "재천위상在天爲象, 재지성형在地成形"을 이용하면 곧 대천 경간庚干 화권이 부모궁에 이르므로, 인신引伸해서 혹시 파군생년권이 다시 명반 용신用神인 무곡생년과를 만난 것과 같이 간주할 있고, 곧 10년 대운大運의 재관방향이 세무, 혹은 회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이공과理工科로 논하자면, 곧 기계와 유관하다.

13.집을 사는 시간점時間點을 논하자면, 36~45 대운에 대명大命, 대천大遷에 생년록祿, 권權이 았고, 아울러 대전大田이 다시 자화권, 시동자화록이므로, 곧 대전大田이 동시에 권입權入과 록입祿入이 된다. 이 대운 내에 반드시 부동산이 있음을 대표하며, 이는 곧 이른바 "시절인연時節因緣"이다. 곧 집을 사는 시간점은 대전大田이 았은 묘궁과 유궁이거나, 혹은 생년록권을 법상法象해서 생년록권이 떨어진 궁위인 자오궁이다.

14.만일 "유용귀체由用歸體"로 보면, 곧 대전大田 정간이 자화권과 시동자화록의 상象을 보아서, 쌍상이 이미 의대意對를 이루어 성국成局하므로, 전택에 좋은 변화가 있음을 대표한다. 다시 대궁對宮 자화과를 만나, 곧 삼상성일 인사물 설說을 구설하며, 이때 매개는 기륜로서 전택에 았은 즉 해석은 부동산을 얻은 것으로서, 즉 집을 산 것이다..

주註: 삼상성일인사물 설說은, 현상이 필연 발생함을 대표하고, 아울러 매개는 곧 이른바 상수象數인 물상物相을 얻는 것으로 해석

15. 36~45대운, 대관大官에 생년과가 앉아, 시동자화록을 만난다; 대명大命에 생년록이 앉으므로, 곧 대관大官의 시동자화록이 변하여"록입祿入"이 되므로, "유득有得, 길吉"이다.

16. 결혼의 시간점을 논하자면, 본부本夫 시동자화과이므로, 대운은 26~35로 직단할 수 있거나, 혹 법상 생년과하면, 곧 56~65대운 혹 36~45의 대부大夫이다. 별도로, 본부本夫 정간화권이 본명本命에 들어가 자화권을 만나, 곧 대운은 6~15이거나 혹은 26~35, 혹은 생년권生年權을 법상하면, 곧 36~45이다. 36~45대운은, 대명大命에 생년록권이 앉아, 곧 본명이 록입, 권입의 상수를 얻어서, 감응적 역량리 강하며. 따라서 36~45대운에 결혼한다고 논단.

17. 36~45대운, 대부大夫가 시동자화과를 만나, 유년流年을 직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술궁戌宮리 유명流命, 유부流夫 혹은 유재流財가 될 수 있다. 사실事實: 37세 결혼. 별도로, 화과化科는 "결혼하는 짝궁對象이 사람이 소개해서 사귀었다는" 뜻이다. 최후로, 본부本夫에 시동자화과상이 있어, 결혼하는 대운大運, 유년流年, 유월流月의 하나 혹은 둘 이상이 반드시 축궁에 응하며, 즉 1월에 결혼한다(사실事實: 37세 1월 결혼)

18. 임신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딸은 대질을 살핀다; 아들은 대자大子를 살핀다. 임신 시간점은, 36~45대운, 대질大疾 신간辛干이 시동자화기상을 얻어 성국成局, 곧 응수하는 궁위는, 축미진술궁(사정위四正位, 변화를 주초)

다만 신간辛干 문창화과는 아들, 문곡화기는 딸을 낳음을 주초하며, 게다가 과가조科忌組의 매개는 록祿으로서, 신간辛干 거문화록은 여아女兒를 주한다.

19. 38세 유명流命과 본명本命이 중첩되므로, 곧 38세 유자流子는 본자本子에 감응하고, 생년록이 자화기를 만나 유생년유자화有生年有自化인 상수象數로써 성국成局하며, 현상이 필연 발생함을 대표. 병간丙干 염정화기는, 비록 염정이 정화丁火이지만, 단 1~4의 생수生數 중에 있으며, 따라서 아들을 낳음을 주초(법상하면 태양화기). 응應하는 유월은 11월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38세 11월에 임신했다면(을해궁 태양화기), 응당 아들을 임신한 것이다. 또, 十月에 임신했으면, 곧 대응하는 유월流月爲은 술궁戌宮이고, 탐랑이 독좌하므로 역시 남자 이이를 낳는 것에 應할 것이다.

주註: 생남생녀生男生女를 논하면, 단지 성신星辰의 천강天干이 생수生數이면, 즉 1~4이면, 곧 그 천간 속성을 막론하고 모두 아들이다. 오로지 성수여야 비로소 성신 천간의 음양속성으로 남녀를 논한다.

역주) 이 논리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이면 남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병간의 염정화는 법상하면 태양화기로서 남성이다. 아나면 38세 자녀궁에 남성인 염정선천화록이 있으며 임신할 달수에 따라 선천상수가 바뀌지는 않는다.

20. 36~45대운, 대천화기가 본천을 충한다. 밖에 나가면 흉상凶象을 본다. 다만 신

체수상身體受傷을 조성하는가 여부는 반드시 대질에서 흉상을 보는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곧 차량사고이지만 명주 본인의 신체에는 상해가 없다.

21. 39세의 자전선(축미선)은 과기조科忌組로서 성국成局이 되며, 아주 쉽게 입덧을 하므로 태胎를 안정시켜야 한다; 생산生産 시에 우주 어렵다. 과기科忌는 질질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명女命은 대질大疾의 비궁사화로부터, 명命, 노奴(복福?), 질疾에 들어가는가 여부로서 임신을 논단하며 동시에 시간을 결정한다.

여명女命이 적혼년령이고, 만일 유년流年 혹은 유자流子와 본자가 중첩되면, 생남生男 혹은 생녀生女를 논단할 수 있고 시간을 알 수 있다.

22.본질本疾 시동자화과는, 성격脾氣이 좋다는 뜻이다. 비록 대궁에서 생년과를 만났으나, 과출科出을 형성한다. 곧 겨우 명주 본인이 부친배들에게는 예의를 다하지만, 사석에서 친지들을 만나면 괴팍한 성격의 일면을 드러내게 된다.

2011/10/15

을사년 남명 陳Chen 교수

		D	C	
천동 우필 -명- 辛42~51재	무곡 천부 요	음ⓐ양	탐랑	
파군 -명- 庚52~61질	임32~41자	쫓22~31부처	갑12~21형	A
47세	B		천기ⓐ거문 좌보 을02~11명	
己62~71천	A		지미ⓒ천상	
엄정 형 곡		칠살 창	병 부모	
무72~81노	己82~91관	戊 전	천량ⓐ 丁 복	

나 이미 떠났다고 대답하라 기나긴 죽음의 시절 꿈도 없이 누웠다가 흠먼지 재를 쓰고 머리 풀고

명례해설

1. 본명 명궁에 생년록이 앓고 자화록을 만난다(래인궁). 상1수2象一數二, 따라서 이 생년록은 허록虛祿이 아니고 실질적 록이다.

⊙ 대관화기가 본관을 충해서 직업환경에 변동이 있음을 주하며 가령 직장을 바꾸거나 사무실을 옮긴다. 결코 흥이 아니다. 단지 대관화기가 본명 혹은 본질을 충해야

비로소 흥이라 할 수 있다.

⊙ 출국 유학을 논하는 것은, 대관이 형노선에 들어갈 때이다.

2. 42~51대운에서, 대관에 생년록이 얹고 자화록을 만나면 직업상에서 새로운 연기緣起가 있음을 주하며 새로운 직장일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직업에 투입함을 대표한다. 상1수2象一數二이며 따라서 새것과 옛날 직업이 동시에 진행됨을 나타낸다.

⊙ 논명하는 원칙은 우선 명반이 대표하는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각개 대운이 나타내는 길흉은 명命의 본질로 되돌아간다.

명의 본질: 본명 명궁이 얻은 생년사화 및 라인공과 하도河圖에서 나온 명주 평생의 생태공간(놀이터)

3.본명에 천기생년록이 얹고 자화록을 만나(해상순서, 먼저 "생년". 다음에 "자화") 천기

①지혜를 주主 + 화록, 총명하고 지능지수가 높음

②종교의 별, 인자한 마음을 갖춤, 종교나 철학, 교육과 관련

③학술의 별, 학술이나 교육의 별에 종사할 수 있음.

④무형적 변동상(두뇌가 좋고 두뇌 움직임이 빠르다)

예: 천기 생년기가 다시 문창 혹은 문곡자화기를 만나면, 종종 신경질, 정신병을 주하며 八字가 가볍다(輕).

⊙기거機巨조합: 말재주가 나쁘지 않으며 변론하는 재능이 장애가 없다.

양거陽巨조합: 말재주가 좋으며 설득력이 있다.

4.본명 명궁에 기거機巨 조합이 얹으며 곧 해석의 중심은 천기에 있는데, 천기가 생년록을 얻고 게다가 자화록이기 때문이다.

5.라인공은 본명 명궁이며 하도 일록공중에 의거하면 곧 일생의 놀이터는 명천과 부질이고 그 중 본명에 생년록이 얹고 한편으로 본부本父에는 생년과가 얹는다. 재관을 논하자면 곧 록과조祿科組로서, 이름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는 뜻이므로 문화교육이나 학술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외에 명천부질 등 4개 궁위는 올로지 록祿과 과科만을 드러내므로(즉 본명에 자화록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궁위에는 자화상自化象이 없다), 이 "록과"로 얻은 재록은 명주 본인이 이룬 것이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얻은 재록은 없다.

6.지금은 42~51대운으로 대명大命은 본재本財이며(수數5), 오와 十은 동도이므로 곧 재복자전이 이번 10년의 놀이터이다.

7. 42~51대운의 대천(본복)에 생년권이 얹아 권력을 장악함을 주하며 저문기술로써 득재하고 게다가 열심히 고생스럽게 일하고 지출이 많다. 또한 시동자화권을 만나 권입權入이 되며 또한 본재, 본복이 모두 명의 6내궁이므로 득재를 주하고, 길하다.

8.대부大父(본자) 자화기이고, 이번 10년 대운의 놀이터가 재복자전이므로 곧 단지 이 4개 궁위에 자화 혹은 시동자화상이 있지만 하면 즉 명주가 이번 10년간 자화 혹은 시동자화상인 궁위에 속박됨을 대표한다.

상象의 풀이: 이번 10년간은 학생적 연고緣故(본자本子)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없다. 주로 책임감 때문이다(대부大父).

9.지금 42~51대운에서 논명의 중심은 생년권에 있다. 삼합에서 대관 생년록을 얻으며 따라서 생년권이 주이지만 생년록을 배합해서 이번 10년 명命의 체體를 구성한다. 그리고 대명大命의 사화는 곧 이번 10년의 용用을 대표한다.

10. 42~51대운, 대재 기간己干 문곡화기가 명命의 6외궁에 들어가므로 곧 이재理財에 투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본노本奴는 6외이며 육음궁으로서 손실이 크다는 뜻이다). 샐러리맨이 좋다.

11. 42~51대운, 대관에 생년록이 얹고 자화록을 만난다. 한편 대관화과가 본부本父에 들어가 생년과를 만나 곧 대관 + 本父 = 과科로서 공명功名을 주한다. 이 상수象數는 비궁과가 생년과를 만나서, 이는 동조同組이자 동류同類가 "물이유취物以類聚, 유이군분類以群分"을 형성하여 성국하며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함을 대표한다. 감응하는 시간점은 진술辰戌궁 혹은 사궁巳(록祿이 감응하는 호처好處, 병간화록)

주: 록은 연기緣起를 대표하며 별도로 한개의 전문직의 개시를 나타낸다.

12. 42~51대운, 대관화권이 대천(본복)에 들어가 생년권과 시동자화권을 만난다. 위와 마찬가지로 "물이유취物以類聚, 유이군분類以群分"을 형성하여 나와 같은 직업으로 득재함을 주하며 득재가 많다(화권이므로)

13. 42~51대운, 대관화기가 본부本夫에 들어가 자화과, 생년기를 만나 최후에는 생년기가 존재하므로 곧 이 생년기가 생년록 상에 의부依附한다(래인來因이 본명이므로). 해상解象: 직업상에 곤란이 있을 때 배우자가 지원한다.

⊙명命, 노奴, 질병의 교역交易은 신체건강 상에 문제가 나음을 주한다.

(병간은 본명의 부질선이고 대한의 형노선이다)

14. 52~61대운, 대질에 천량 생년권이 얹고 시동자화권을 만나 성국하며 신체건강 상에 문제가 나음을 주하며 시간을 직단直斷할 수 있고 사해巳亥궁에서 응한다.

사궁 같은 것은 면역계통 궁위이며 따라서 동량同梁 성조로 질병 증상을 바로 논할 수 있다.

주: 해궁은 삼초경三焦經을 주하며 별에 따르면 천동(상초), 천량(하초)이며 게다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초에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

역주)이는 중국측 견해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해궁은 간경肝經이 옳다. 상초는 천상이고 하초는 파군이다. 화과는 나이가 들면 신체기능의 쇠퇴를 의미하며 명반상 본명 부질선에 파군, 천상이 마주 보고 화과가 있으므로 질역궁 대운 52~61에 삼초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질액의 대궁 부모궁 병간 염정화기가 삼초경에 해당하는 신궁申宮을 충한다.

- 15. 본재화기가 본전(52~61대운의 대재)에 들어가 득재를 주하며 득재가 많다.
- 16 52~61대운, 대재화기가 본명에 들어가 득재를 주하며 득재가 많다. "록수기주祿隨忌走"의 이칙에 의거하면 대재록이 대관에 들어가 탐랑이 독좌하므로 곧 오술五術 사업으로 득재함을 주한다.

주: 탐랑, 천기는 모두 오술의 별이다.

- 17. 52~61대운, 대관화기가 본부本夫에 들어가 본관을 충해서 발사궁 혹은 상이 떨어진 궁위에 응하므로 즉 인寅(대관 신申의 대궁), 축표궁(화기가 떨어진 미未의 대궁)이다. 응하는 유년은 57(丑) 혹은 58세(寅)이며 직업을 바꾸게 된다.

- 18. 52~61대운, 대천 병간에 생년과가 앉아 마침 이 대운 생태공간(놀이터)의 진정한 용신의 하나이며, "재천위상在天爲象, 재지성형在地成形"의 이칙에 의거하면 이 생년과는 재록財祿을 대표한다고 논단한다. 즉 대천 병간은 문창화과이고 아울러 대명 경간은 태음화과이므로, 이 자미생년과가 얻는 물상物相은 명리命理 사업에 종사해서 얻는 소득이라 해석할 수 있다.

주: 태음은 명리命理의 별이고 문창은 재財이다.

역주)52~61대운의 생태공간은 명천, 부질이므로 선천록, 선천과가 있으며 록과祿科는 전문지식에 의한 득재를 뜻한다. 또한 52~61대운의 관록궁 파군화권이 대명에 들어와 실행력을 주한다.

2011/10/22

女命 蔡英文 병신년 7월 사시

A	무곡 昌◎	태양	천부 姚	B
	파군			천기◎
	癸 복	甲 전	을83~92관	태음
	천동Ⓐ 右	A A		丙73~82노
	壬 부	C		자미 曲
刑 56세			탐랑	
노			丁63~72천	
후03~12명			거문 左	
			명	
			戊53~62질	
관	염정◎	천랑	천상	
庚13~22형	칠살	庚33~42자	己43~52재	
	후23~32夫			

명례해설

⊙일반대중은 통상 산명算命은 하지 않으며 산운算運을 한다.

⊙산명算命은 곧 반드시 명사의 본질을 살펴야 한다. 이른바 명사의 본질은 본명 명궁, 생년사화 및 하도와 라인궁에서 얻은 평생의 생태공간에서 얻는다.

1.본명 명궁은 빈 궁(무주성)으로서, 명주의 개성이 가라앉는 편이고 외부세계의 느낌이 마음에 와닿기 어렵다.

2.본명 명궁 시동자화과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잘 융화됨을 주한다.

3.천형이 명궁에 독좌해서 명주가 법률, 종교에 흥미가 있음을 주하며 종종 고독함으로 인해 자기를 성취한다.

4.본질本疾의 시동자화과는 유머감이 있는 좋은 성격임을 주한다.

5.본부本夫에 생년기가 얹은 것은 배우자가 있는 상상이지만, 단 연분은 박하다.

6.본노에 생년권이 얹고 자화권을 만나 "권출權出"을 형성하므로 비길상非吉象이며, 반드시 대운의 궁직을 배합하여 길흉을 논해야 한다.

7.선천상수조는 권기조이다. 록권과가 모두 생년기와 동궁하거나, 대궁 혹은 이웃궁, 삼합위에 없고(화과 제외), 생년권이 때마침 본명 생태공간(형노 부관) 중에 있고 또한 "권출"을 이루므로 화권이 "강하게 머리를 내민다고" 논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확실히 권기조로 정해진다.

8. 53~62대운, 그 생태공간은 명천 부질이다. 오로지 생년록이 이 네 궁 중에 떨어져 있으므로 해상解象하자면, 대전(본부本父)에 생년록이 얹아 본질本疾을 비추므로 즉 중생眾生의 록이 대명大命을 비추는 것이다.

주: 대전(本父)에 생년록이 얹아 곧 반드시 "라인궁"(노복)을 배합해서 해석한다.

본질을 비추고 본질에 시동자화과가 있어 대전의 등급이 "大命"까지 올라간다.

역주)게다가 거동巨同의 감정(애정)조합이고 좌우左右가 포진한다.

9.본복에 생년과가 얹아 누릴만한 복이 있음을 주하고 계획성있는 행복享福이 되며 미리 앞당겨 쓰지 않는다.

10.본부本父에 생년록은 천동화록으로서 부친과 연분이 있으므로(천동은 남성男星), 공교公教 혹은 "know-how"를 써서 재물을 도모하는 직업이다.

女命 蔡英文 병신년 7월 사시

		D		B	
A	무곡 昌◎	태양	천부 姚	천기◎	태음
	파군	甲 前	을83~92관	丙73~82노	자미 曲
	癸 복	A A		C C	탐랑
	천동◎ 右	C		C C	丁63~72천
壬 부				거문 左	
刑 56세				-명-	
-노-				戊53~62질	
후03~12명				천상	
-관-	염정◎	천량			
庚13~22형	칠살	庚33~42자		己43~52재	
	후23~32夫				

11. 본복에 생년과가 앉고 자화록을 만나며 더하여 본부 생년록이 앉으며 자화과를 만나 록과祿科의 상수象數가 평형을 이루어 成局하며 금리 차이로 인한 재물을 번다는 표시이다. 즉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이자를 벌지만 파산하지 않는다.

주: 부모궁은 차대위借貸位, 즉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궁위이다.

12, 53~62대운, 대질화기가 본명을 충해서 신체건강에 문제가 나타난다. 응수하는 궁위는 상이 떨어지는 묘유 혹은 발사궁인 사궁이다.

주: 여명이 탐랑, 무곡 혹은 파군화기를 만나면 유방에 문제가 나타남을 주한다.

발사궁이 사궁이고, 사궁은 면역계통의 궁위이며 직접 별의 성질로써 질병의 증상을 논한다.

역주)묘궁은 대장, 유궁은 위장을 나타내며, 탐랑은 생기生機이므로 탐랑화기는 기능 불량을 뜻한다.

13. 본자에 시동자화록과 본전의 자화기는 쌍기를 구성하며. 기복이 크고 변화가 큼을 주하고 평생 도화桃花의 연분이 박薄하다는 뜻이다

14. 53~62대운, 대명에 본질(수數 6)이 앉고 하도 일륙공종을 배합하면 곧 이번 10년의 생태공간은 명천 부질의 네 궁이다. 그중 본부本父에 생년록이 앉고 다시 시동자화과를 본다. 본父가 바로 대천大遷이며 따라서 선천 기수氣數(선천록)가 대명(이번 10년 운세의 체體)을 비추므로 길하다.

15. 유체기용由體起用, 대명에서 보면 곧 대명이 시동자화과이고 게다가 대명화록이 본명을 비추어 모두 길함을 주한다.

16. 유용귀체由用歸體, 53~62대운, 대관이 시동자화과로서 직업에서 좋은 변화가 있음을 주한다. 아울러 이 시동자화과는 화과의 기氣가 본노 태음성에 들어가고 또한 자화권과 생년화권을 만나 성국成局하며 대관화과의 길상한 기운이 필연 발생함을 나타낸다. 즉 대관+본노=비궁과+자화권+생년권이다. 응수하는 유년은 寅申 혹은 생년과를 법상한 사궁巳窟이다.

역주)2016년 병신년 타이완 총통 당선. (선천화권을 만나는 해이다).

17. 인묘진 3궁위가 모두 시동자화과의 상이고 게다가 사궁에는 생년과가 있으므로 곧 연속 4년의 유년 윤세가 평순하며 그중 과첩는 과명첩명을 주한다.

◎진행하는 윤세의 좋고 나쁨은 대관과 대노로부터 논단하며 그중 대관은 명주 본인의 주관조건(선천윤세)을 주하고 대노大奴는 곧 명주의 객관조건(후천윤세)를 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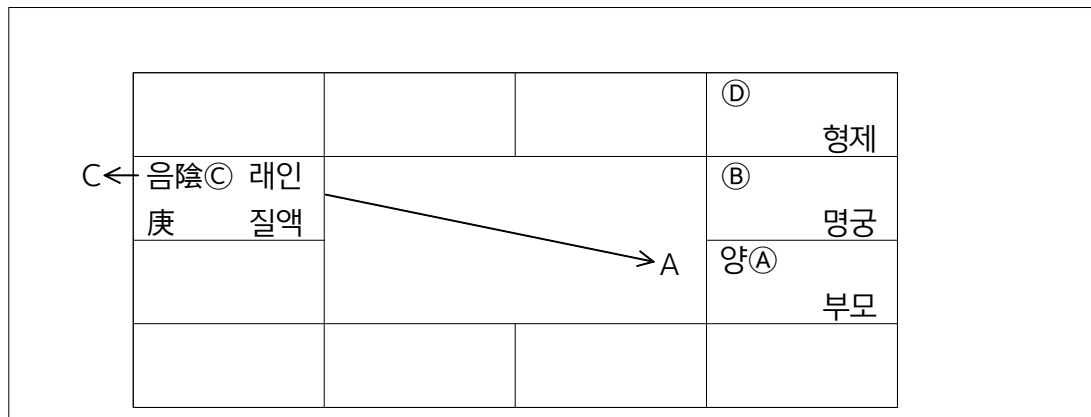
18. 53~62대운, 대노에 시동자화과이고 대노화록이 본질(대명)에 들어가 대궁 본부本父(공명위)의 생년록을 만나 성국하며 대노화록의 길상이 필연 존재함을 나타내고 응수하는 유년은 진술(상이 떨어진 궁위) 혹은 생년과를 법상한 사궁이다.

역주)2012년 임진년 총통 선거에서는 탈락하였음.

주: A---사화---> B일 때 B의 대궁 B'에 동류의 생년사화가 있으면 성국成局하며 A궁 사화상四化象의 기수氣數가 대표하는 인사물人事物이 필연 발생함을 나타낸다.

대노+본질=비궁록+자화과; 본질에 자화가 있으므로, 이것이 변성되면

대노+대명=비궁록+자화과, 윤세가 온통 길상함을 주한다.



1.생년록이 라인궁(질액)의 대궁에 있으며, "록출祿出"이 이루어진다.

2.라인에 생년과가 앉고 자화과를 만나며, "과출科出"이 이루어진다.

3.선천상수조는 상해象解에 의거하면, 권기權忌 혹은 과기科忌이다

역주)권權은 명궁이고 과첩는 라인궁이다. 역자의 의견으로는 라인궁이 우선이다. 다만 제1대한에서는 BD조처럼 보일 수 있다.

4.본질에 생년과가 앉고 자화과가 있으며, 대궁 본부本父에 생년록이 앉을 때, 해상解象하는 요령은 본질本疾의 화과는 불변이며 동動하는 것은 본부本父의 생년록으로서, 평생 직업이 하나로 끝나지 않음을 나타낸다(부모궁은 재관財官을 논할 때, 공명위功名位가 된다).

馬英九마영주 전 타이완총통		경인년생	
	B		B
기機 천요	자紫 우필		파破 좌보 -관-
辛65~74천이	토75~84질액	계 재백	갑 자녀
살殺 라인 -명-	C C		-노-
庚55~64노복			을 부처
C 양ⓐ량 昌	B		염부廉府 D
己45~54관록	C B		병 형제
무ⓑ상	동ⓓ거 천형	탐	음ⓒ 문곡
戊35~54전택	기25~34복덕	무15~24부모	정05~14명궁
		A	A

- 만일 단순히 명반에 나타난 것은 곧 차이잉원蔡英文의 명반에 비해 못하다.
이유: 본명에 생년과가 얹고 자화과를 만난다. 한편 본관本官에 생년록이 얹고 자화과를 만나며 본복本福에 생년기가 얹지만 본복本福은 육내궁이므로 득得임을 주한다.
- 본명에 생년과가 얹아 풍도風도가 좋고 말씀이 극히 우아하고 시동자화과를 만나 "과출科出"을 형성해서, 그 질質을 강화하지만(매우 고상함) 그러나 오히려 그 도道를 거슬러 행함(매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밈)의 의미가 있다.
- 본관에 생년록이 얹고 자화과를 만나 곧 평생 시험운(考運), 사업운이 좋다.
- 래인궁이 노복궁이므로 곧 평생 생태공간은 부관 형노이다.
- 래인궁의 대궁에 자화가 있으므로 곧 일상一象이 소멸消滅된다. "래인來困이 말하는 이치에 의거하면 대궁은 기氣를 말하며, 이칙理則으로 상象을 풀이하면 곧 중생에는 불순한 기氣가 따라온다.
◎이기상수理氣象數에서 수數는 최후의 길흉을 나타낸다.
◎자화自化는 금생금세今生今世의 조화造化(자금 생생에 짓는 행위)이며, 전세前世의 인연과보因緣果報와는 무관하다.
◎관록궁은 운세를 논하는 궁위이다.
- 이상의 상수象數는 "유체기용由體起用"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 55~64대운, 대관화록이 본형本兄에 들어가며(본형에 자화기이고 따라서 대천大遷으로 제승提昇upgrade됨), 곧 해상解象은,
|-관-| --록祿이 비춤--> 본노本奴, 자화기를 만나 곧 변성되기를, |-관-| --쌍기

雙忌가 충함--> 본노(大命)

감응하는 궁위는 진술辰戌 혹은 신궁申宮이거나 혹은 생년기를 법상하면 축미丑未 궁이다.

8. 본관에 생년록을 얻고 자화과의 상을 만나고, 아울러 본명은 생년과를 얻고 자화록의 상을 만나면, 곧 두 궁에 “상수평형象數平衡”을 이루어 성국成局이 됨을 주하며 관록운이 줄곧 길상吉祥하다.

9. 55~64대운, 대질大疾(본명)의 권기權忌가 본복本福에 들어가서 생년기生年忌를 만난다. 명命, 복福, 질疾의 교역交易을 이루어 질액疾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만일 질액에서 흉상凶象을 보고 노복의 흉상이 더해지면, 종종 수명과 유관하며 곧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 종종 50%의 생존율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응수應數하는 시간점에 세상을 떠난다.

(이는 중요한 경험법칙이다).

역주실제 馬英九는 현재 74세로 건강하다.

2011/10/29

D	자살紫殺 -명- 기44~53재백	경34~43자녀	신24~33부처	-관- 임14~23형제	A 47세
	기량◎좌보 -명- 무54~63질액	己亥年 남명		염파곡◎刑 -관- 계04~13명궁	
	상상 53세			우필	
	정64~73천이	무◎탐◎찬요	동음同陰	갑 부모 부府	
거일巨日	-재- 정 51세 관록	병 전택	을 복덕	A	

명례해설

1.본명 명궁에 생년기가 앉아 명주가 시종 회재불우懷才不遇(기회가 있어도 만나지 못함), 사여원위事與願違(하는 일과 바라는 것이 다름), 불순不順한 감각이 있으며, 라인궁과 합해서 해석하면 재기財忌가 입명入命해서 재財가 있고 고庫가 있는 명이지만 단 절검節儉하는 성격이다.

◎선천적으로 재財가 있고 고庫가 있는 명命.

(a)본재의 기륵가 본질本疾에 들어간다. 그러나 재다신약財多身弱이다.

(b)본재의 기륵가 본전本田에 들어간다. 유년(제1대한)은 가운家運이 좋지 않다.

2.본명 명궁에 생년기가 얹고 자화록을 만나서 록기조를 이루고 성국成局한다. 평생의 명과 운의 기복이 크고 변화가 크다.

3. 44~53대운, 대관(본명)에 생년기가 얹고 자화록을 만나 이번 10년 안에 직업운세 기복이 크다. 생년기가 얹기 때문에 반드시 라인공과 합해서 풀어야 하고 라인이 재백이며 따라서 10년 내 직업운세가 전재錢財적 연고로 인하여 기복이 크고 변화가 큼을 대표한다.

4.대관이 문곡생년기를 얻고 또한 천형이 있으며 다시 자화록을 만나 곧 쌍기雙忌로 논한다. 관비官非, 소송, 투옥의 흉상을 주한다. 응기應期하는 유년은 묘유卯酉 혹은 생년록을 법상한 축궁丑宮이다.

5.라인공은 재백궁이며 일평생 주요한 일이 돈을 번다는 것임을 대표한다.

6.본관에서 무탐조합을 얻으며, 그 대표하는 함의는,

①횡발橫發, 투자 혹은 투기 또는 사기편취가 모두 가능하다.

②어린 시절에는 발달하지 않아서 40세 이전에는 발달하디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발달했다가 일찍 망한다.

③발달한 후에 반드시 베풀어야 하며(즉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복택福澤과 수원壽元에 영향을 미친다.

7.사실 47~51세, 크게 돈을 벌었다. 51~53세 내선內線 교역(내부자 거래)으로 인하여 3년형을 선고 받고 항고 중이다.

8.만일 법원이 아직 감옥형을 내리지 않는다면 곧 상수象數는 반드시 감옥형을 받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상수象數:

1)54~63대운에 대명大命에 생년과가 얹아 해액解厄을 주한다.

2)54~63대운, 대관에서 화化한 록과祿科가 대명大命에 들어가 시동자화과를 만나고 다시 자화기를 만나며 최후로는 생년과를 만난다.

a. 대관화과가 시동자화과를 만나면, 해상解象은 해액의 상象이 필연 발생함을 주한다.

b. 대관화록이 자화기를 만나면, 해상解象은 기복이 크고 변화가 큼을 주한다.

c. 최후로 생년과를 만나면 곧 해액을 주하며, 라인공과 합해서 해석하면, 라인來因이 재백이므로 곧 돈을 가지고 해액한다는 뜻이다.

주)천량록天梁祿은 즉 흥바오紅包(뇌물, 보너스) 록祿을 대표한다.

d. 응수應數하는 해는 54세의 2 혹은 8월(辰, 戌)(통상 8월) 혹은 58세이다.
 9.부모궁은 문서궁이며 게다가 내선內線 교역궁交易宮이다. 44~53대운, 대재大財 (본관)에 생년록, 권의 쌍상이 앉아 이미 의대意對(물대物對)를 이루어 성국成局임을 나타내며 이번 10년 안에 득재得財하고 득득이 많음을 주한다. 또한 대재 丁干 화록.권이 본전本田에 들어가 자화록을 만나며 따라서 대재화록.권이 대질(부질선)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뀐다. 명주 본인니 내선교역內線交易(내부자 거래)의 재財를 얻는다는 뜻이다.

◎대자太子와 질액 혹은 천이가 교역交易하면 의외意外를 주한다.

10. 44~53대운, 대질화기가 본명에 들어가 자화록을 만나 성국임을 나타낸다. 다시 생년기를 만나 명주의 신체건강에 문제가 있음이 확정되며, 유궁酉宮에 응해서 방광에 문제가 나타남을 주한다.

역주)유궁酉宮은 위장을 주하며 염정화기는 암癌을 대표한다.

11. 본명 명궁이 생년기+자화록의 상수象數를 얻어 곧 74~83대운에 본명이 대질로 바뀔 때 수원壽元을 직단할 수 있다. 응수應數는 묘유궁 혹은 생년록을 법상해서 축궁이 되며 즉 75, 77, 83세이다.

12. 54~63대운, 대노大奴에서 생년기+자화록의 상수를 얻어 쌍기를 형성하며 라인來因과 합해서 해석하면 즉 생년기는 재백에서 온 것이고 따라서 “인우겁재因友劫財”를 주한다.

13. 54~63대운, 대재 병간의 화기가 본명에 들어가 득재得財하고 듣다得多임을 주한다. 자화록을 만나 이때 본명이 대노大奴가 되고 6외궁外宮이므로 이 득재는 “득중유실得中有失”이라 논한다.

◎무탐武貪의 횡발지격이 허발虛發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중점은 기간己干的 화기(문곡)가 6내궁內宮에 떨어지는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B			
우	기◎	자파창곡			
을	병	복	정	전	무
D	양	정미년 남명	A		관
	I관	A	A		부
	갑06~15명	A			좌
	무살				I재
	45세				기76~85노
	계16~25형				음Ⓐ
A	량동ⓑ	상	거◎	C	
	임26~35夫	계36~45자	임46~55재	I夫	
	연속 자화록이므로 록은			경66~75천	
	병련並聯으로서, 당연히			염탐	
	대태극大太極			I명	
	부합한다.			신56~65질	

자화록 병련(천련)이며, 따라서 太子와 大夫는 당연히 하나의 대태극 논술에 부합. 즉 太子는 유가有家이고 大夫와 함께 논하면 太子의 象數에 대해 하나의 완전한 논술이 가능하다.

문제:
 ①46~55대운의 사업상황 논의
 ②결혼하는 해 논의
 ③도화桃花에 대한 논의

1. 46~55대운, 대재화기가 본복本福에 들어가 대궁 생년기를 만나 '극출기출出忌'를 형성하며, 라인공과 합해서 해석하면 라인來因이 전택이므로 곧 가운家運, 전택에 손해가 있음을 주한다.
 2. 46~55대운, 대관 자화기는 생년기를 법상法象하면 6양궁陽宮에 들어가므로 직업에서 이동異動이 없음을 대표한다.
 3. 46~55대운, 대재화권이 본전에 들어가 시동자화록, 자화과을 만나고 다시 생년록을 만나 본명을 비추므로 성국成局임을 나타낸다. 이번 10년 안에 득재得財하고 득다得多임을 주한다.
 4. 46~55대운, 대명(본재)의 임간화록(천량)이 본관을 비추며 자화록을 만나고 다시 생년권을 만나 成局임을 나타내며, 이번 10년 안에 사업을 개창開創하거나 승진할 기회가 있다. 來因과 합해서 해석하면 라인은 전택이므로 곧 점포를 개설하여 장사를 하거나 혹은 공장 개설과 관련이 있다. 應數하는 유년 궁위는 寅申 혹은 子午궁, 46세(辰宮) 혹은 48세이다.
- 역주)46세(진궁)는 대한 관록궁이다.
5. 해당 궁에서 생년사화가 있고 자화가 있으나, 다만 생년과 자화가 부동조이면 곧 응수應數하는 것은 곧 어느 해에 그 자화조自化組가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 例 : 본부本夫에 생년권, 자화록이 있다, 한편 시동자화록은 본자本子에 있으므로 곧 응수하는 해는 자화록에 있다. 게다가 본부, 본자는 병련並聯 자화록이므로 기氣가

본자에 수납되어 모여 36~45대운에서 응한다.

6. 본부本夫에 자화록이 있으면 변화가 있음을 대표하며, 바로 대운과 유년을 정할 수 있고 응수應數는 인신宮寅申宮에 있다. 한편 36~45대운, 대부大夫 신간화과.기가 본전本田에 들어가 성국成局임을 나타내며, 과기科忌의 매개인 록祿은 거문巨門이고 따라서 오궁 혹은 미궁이다.

7. 본부本夫에 자화가 있으며 따라서 결혼시간점에 응하고, 본부本夫 자화 궁위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시간점으로 반드시 정해지며, 대운은 36~45에 응하며 곧 本夫인 寅宮이 유년에 응한다(44세).

8. 46~55대운, 大父의 기忌가 본부本父를 충한다. 本父는 동업同業 궁위의 하나이다. 본부本父 화기가 본전에 들어가 본명을 충한다. 부모가 흉가凶家를 본다는 것을 주하며 비록 생년록을 만나지만 단지 제1대운 혹은 제2대운에서만 해역이 가능하고, 이때 本命(46세)은 47세의 유형流兄으로서 모친母親을 주한다.

주: 부모의 확실한 생일을 모르므로 곧 가장 좋은 것은 매 형제자매의 명반에서 흉상의 소재를 관찰해서 부모궁의 흉상을 논한다. 그중 장자長子の 명반이 가장 중요하다. 만일 부모의 생신이 있으면 곧 직접 그 생신으로 논한다.

◎본명 혹은 본복화기가 본질에 들어가면 선천의 타고난 질환이 있음을 주한다.

9. 46~55대운, 大子 화기가 본자本子를 충하므로, 다른 사람과 합작을 하면 안되고 아니면 좋지 않은 도화가 있다. 별도로 大夫의 기忌가 本夫에 들어가 자화록을 만나 쌍기를 이룬다. 다시 생년권을 만난다.(생년권은 來因인 전택에서 오기 때문에 이미 암암리에 처전교역妻田交易이 일어난다) 만일 도화가 발생하면 배우자가 반드시 전쟁 국면에 돌입할 것임은 정해진 것이다.

10. 본전에 생년록이 얹어 出外하면 여인과의 연분이 있거나 혹은 여성이 주도하는 회사에서 임무를 달성하기 쉽다는 뜻이다.

11. 56~65대운, 대질(본복)에 생년과, 자화권이 얹어 成局임을 나타내므로 즉 대질+본질=기忌이지만, 그러나 최후에는 생년과를 얻어 해역이 된다.

12. 본질의 화과. 기(창곡)가 본전에 들어가는데, 명命.복福.질疾의 교역이 아니므로 따라서 버리는 象(사상捨象)이다.

13. 66~75대운, 대질화기가 본명을 충하며 시동자화록, 자화과를 만난다. 성국成局임을 나타내며 최후에는 다시 생년록을 보므로 곧 해역이 되고, 응수하는 유년은 70(진궁), 71세(사궁)이며 증상은 곧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등이다.

역주)사궁巳宮은 심포경락이고 진술선은 방광, 소장경락이며 소장은 혈액을 주관하고 방광경락은 당뇨와 관련이 있다.

◎수원壽元을 논하자면, 노奴. 질疾. 전田에 교역交易이 있다. 말하자면 대노大奴,

본노本奴의 록기祿忌가 교화交會하는 곳이다.

역주)76~85대운에 대노大奴 임간 무곡화기가 본노本奴를 충한다.

2011/11/04

◎논명論命하는 이칙理則은 먼저 “유용귀체由用歸體”하고 다시 “유체기용由體起用”한 연후에 “체용합일體用合一”해서 길흉吉凶, 득실得失 등을 논한다.

◎논명을 학습하는 방향은 먼저 “유용귀체”, 즉 대운大運으로부터 각 궁함의 비궁사화飛宮四化를 본명반에 대입하고 길흉을 논하며 아래로 대운大運 10년의 유년流年에 응한다. 해당 상수象數는 간역簡易으로부터 일단 이해를 추구한 다음 다시 “유체기용”하는 논술을 학습한다.

14. 46~55대운, 대관大官 사화가 본명 명반에 회귀하면 길흉의 소재를 알아낼 수 없다. 즉 “유용귀체”하는 이칙을 사용할 방법이 없다.

15. 46~55대운의 사업에 대한 논술은 “유체기용”하는 이칙을 채용한다.

(a)궁함에 의거하는 풀이.

(i)본관本官 비궁사화에서, 본관 화권이 본명(대관)을 비추면 시동자화록, 자화과를 만나 성국成局임을 나타내고 전문기술 혹은 용감히 돈을 벌어 득재得財할 수 있음을 주초한다. 마지막으로 생년록을 만나 46~55대운의 직업 운세가 크게 좋음을 나타낸다. 별도로 본관의 화록, 화과가 본질本疾, 본부本父(즉 부질선이며 공명功名을 주초함)에 들어가 평생 구학求學하는 운이 좋음을 대표한다.

본관화기가 본복本福에 들어가 본재本財의 생년기를 만나 “극출기출出忌”를 형성하며, 라인來因과 합해서 해석하면 라인이 전택이므로 곧 평생 직업 소득을 가인家人과의 향복享福 상에 씬을 나타낸다.

(ii)10년 대운 중에서, 대명大命은 체體가 되고, 기타 11궁은 곧 용用이 된다. 따라서 대명의 비궁사화로써 본관과 더불어 연결聯結을 낳는가 여부를 살핀다. 그 중 대명화록이 본부本夫에 들어가 본관을 비추므로 이번 10년 사업이 좋음을 주초한다.

(b)상象에 의거하는 풀이: 생년사화상生年四化象으로부터 각 대운의 사업운을 논술한다.

(i)라인궁이 전택으로서 육내궁이 되므로 자립격에 속한다.

(ii)생년사화 혹은 궁직宮職 상수象數는 모두 우선 화기를 보고 다음으로 록, 권, 과를 본다.

(iii)생년기가 재백에 있으므로 현금現金으로 득재得財함을 주하며, 샐러리맨 봉급으로 얻는 재財이다. 전택에 있는 라인來因과 합하면 곧 본전本田+본재本財=기름이므로 조업祖業을 얻거나(화기이므로 응당 현금을 이어받는다) 혹은 점포를 열어 장사를 하거나 부동산업 혹은 공장에서 일하는 샐러리맨으로써 봉급을 얻는다는 뜻이다.

(iv)생년록, 권, 과가 모두 육양궁六陽宮에 들어가면 귀貴를 주하므로 영도자領導

자가 될 수 있다(가령 CEO, 이사理事 등)

◎가장 꺼리는 것은, 생년기가 본명, 재, 관(즉 명세의 삼합)을 충하는 것으로서, 귀
 貴한 중에 파破가 있음을 주한다.

명례해설

				90세 10월
相	梁 [Ⓐ]	廉殺		
乙 兄	丙 02~11 命	丁 12~21 父	戊 22~31 福	
巨 昌	壬戌年 李登輝		91세 10월 -疾-	
甲 夫	A		己 32~41 田	
D 紫 [Ⓟ] 貪	B		同 曲	
90세 5월	癸 92~101子	BD	庚 42~51 官	
C 機陰 左 [Ⓞ]	府	陽 右	武 [Ⓞ] 破	
-命-		癸 72~81 疾	壬 62~71 遷	辛 52~61 奴

◎질액궁은 어느 사회상을 막론하고 자화自化를 만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자화
 는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만일 신체가 본래 좋지 않다면, 자화를 만나면 곧 악화惡化를 대표한다.

◎여명女命이 질액궁에서 자화상을 만나면 입덧을 주도한다.

1. 82~91대운, 대질大疾에 시동자화권이 대궁 본자本子 방향으로 입사入射해서 자
 화기自化를 만나 성국成局한다. 선천상수조가 권기조權忌組이기 때문에 다시 생
 년권生年權을 만나면 곧 응당 묘궁卯宮에 있음을 주하며, 묘궁은 대장大腸 및 90세
 유년의 5월을 주한다.

주: 사실 대장암은 예방이 우선이며 만일 6월에 검사했다면 당연히 발견했을 것이다.

2. 82~91대운, 대질大疾(己干) + 본노本奴 = 록 + Ⓞ, 쌍기가 되고 최후에 기룬가
 존재한다.

3. 82~91대운, 대질 + 본관本官 = 기룬 + 자화기, 현상이 필연 발생함을 나타낸다.

주: 부질父疾, 부관夫官이 사정위四正位를 구성하며 변화를 주한다. 따라서 가령 대
 질大疾 화기가 본명의 부관, 부질에 들어가면 이번 10년 안에 신체건강에서 흉상凶
 象을 봄을 주한다.

4. 82~91대운, 대질大疾 + 본전本田 = 시동자화권 + 자화기, 성국成局임을 나타낸다. 아울러 생년기를 법상法象하면 본노本奴에 있다.(노奴, 질疾, 전田의 교역交易은 수원壽元을 판단할 수 있다). 다시 생년권을 만나 최후에는 권權이 존재한다.

5. 82~91대운, 대질 + 본명 = 과科 + 생년록, 해액解厄의 공功이 있다.

6. 대노大奴 정간화기가 본부本夫에 들어가고 아울러 본노本奴 신간화록이 본부本夫에 들어가서 “진궁辰宮”이 교회점交會點을 형성하므로 응당 90세 부질선이며 유년流年은 아니다. 따라서 만일 검사후 악성종양이 아니면 곧 금년을 지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올해 수명이 끝난다. 관건은 11월이며 묘유궁이 12월의 형노선이며 또한 대질大疾이다.

◎관록기官祿은 어떠한 수단으로 재물을 도모하는가를 볼 수 있다.

역주)관록 경간화기인 천동天同은 향락, 오락, 음식업을 대표한다.

7. 본자本子에 생년권生年權이 앓고(權은 자변수自變數, 즉 자기가 변동하게 된다), 자화기를 만나므로 선천상수조인 권기조權忌組에 응해서 성국成局임을 나타낸다. 상象을 풀이하면 해당 궁宮의 사람은 영구히 상주常駐할 수 없으므로 즉 자녀는 죽게 된다. 응수應數는 32~41대운 혹은 생년기를 법상法象하는데, 생년기가 떨어진 궁위는 52~61대운이다(이 대운에서 자식을 잃었다). 궁위로 논하자면 곧 묘유卯酉 혹은 해궁亥宮이다.

8. 본자本子에 생년권이 앓아 “감사敢死(대만어: 무모한bold and reckless) 도화桃花”로써 덜렁덜렁 경솔하게 행동한다.

9. 52~61대운, 太子(本福)에서 자화권기自化權忌의 상象을 얻어 선천상수조인 권기조權忌組에 응해서 성국成局임을 나타낸다. 이는 곧 “인과도화因果桃花”이고 게다가 인因은 권기權忌이며 따라서 도화가 빨리 들어오고 돌연突然(갑자기) 들어오고 예상 밖이다. 응하는 유년流年은 59세(신궁申宮)이다.

10. 본명 명궁에서 양량陽梁 조합의 상을 얻어 후천적인 자아의 노력으로 귀격貴格을 얻는 상에 속하며 학술 혹은 정치에 종사할 수 있다.

11. 천량이 좌명하면 통상 체격이 크다. 래인來因과 합해서 해석하면 래인이 재백이므로 천량의 록祿은 홍포紅包(상여금, 보너스) 록祿이다. 개성을 논하자면 인연人緣이 좋고 천량은 부모성父母星, 중강성中康星(건강, 의술의 별)으로서 예민한 관찰력을 지닌다.

12. 노복에 생년기가 앓아 봉우에 대해 유정유의有情有義함을 뜻한다. 재백(명궁 삼방)에 생년과가 앓아 정치에 종사하는 인물로써 논단할 필요가 없다. 만일 정치에 종사하는 인물이 아니라면 계획성 이재理財를 한다는 뜻이다.

13. 본관 화록이 본전에 들어가 본명을 비추고, 시동자화록을 만나 성국成局임을 나

타낸다. 다시 대궁에 생년록을 만나 즉 실유實有의 상象에 속하고, 본관화록이 본명을 비추는 현상이 반드시 발생함을 나타낸다. 게다가 태양은 관록주官祿主로서 정치에 종사하는 인물에게 유리하다.

14. 본관 자화기로서 “기수록주忌隨祿走” 이칙理則에 의거하고 화록이 본천에 이므로 즉 대대對待가 있고 길흉이 있음을 대표한다. 해상解象: 직업 사업운이 좋기 때문에 종일 바쁘고 쉴 틈이 없다.

역주)자화自化는 록수기주가 아니라 기수록주가 나타난다. 관록의 자화기가 관록궁경간 화록인 태양을 따라 본천에 들어가 대궁에서 선천록을 만난다.

15. 본관 화권이 본노에 들어가 생년기를 만나물오 즉 본관 + 본노 = 권 + ㉔(생년기)로서 성국成局임을 나타내고 중생眾生에게 빛이 있는 상象이므로 대중에게 복무服務(봉사)해야 함을 대표한다.

16. 42~51대운, 대관 화록이 본명에 들어가 생년록을 만나 成局한다. 구학求學 운운이 좋음을 주한다.

주)비궁록이 생년록을 만나면 “동류상우同類相遇”에 속해서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함을 나타낸다. 이 대운에 출국해서 박사博士를 꿈꾼다.

17. 52~61대운, 대명에서 화化한 록기가 본부本夫에 들어가 본관을 충해서 직업을 바꾸는 길로 나감을 주한다. 또한 대명의 화化 록기祿忌가 본부本夫에 들어가고 화과는 본관에 들어가 삼상성일三象成一 인사물人事物 설說을 구성해서 성국한다.

매개는 권權에 있는데, 대명 신간화권(太陽)이 본천에 들어가 시동자화록을 만나 성국임을 나타낸다. 응수應數는 57세(午宮) 혹은 59세(申宮)이다. 완전 전환을 대표한다.

18. 대관에 생년권이 얹고 자화기를 만나 성국임을 나타낸다. 직업에 이동이 있음을 주하며 응수應數는 54세(卯宮) 혹은 생년기를 법상하면 56세(巳宮, 생년기의 대궁)이다.

19. 91세 10월, 82~91대운의 대질大疾 궁위에 앉아 기간화록이 본노에 들어가 6, 8 교역을 구성하며 비로소 수명이 이미 다했는가를 논단할 수 있다.

20. 62~71대운, 대관화기가 본명을 충해서 단지 직업을 전환하는 길로 들어섬을 뜻한다.

주)명재관에서 비출飛出한 사회상은 그 상의象意를 해석할 때 반드시 비궁학 8대 이칙에 비추어 볼 수는 없다.

㉔대자太子의 사화가 본복本福에 들어가거나 혹은 대자太子, 본복本福의 궁직이 중첩하는 상수象數가 있으면 인과도화因果桃花를 주한다.

㉔단지 大奴, 本奴, 大田, 本田의 비궁상飛宮象이어야 비로소 대운大運이 본명本命을 충하는 문제가 있다.

2011/11/05

B			
梁	殺曲	左右	廉昌
을福	병94~193田	정84~93官	무74~83奴
將相 姚	丁卯年 4.15 寅時 林洋港		기64~73遷
갑父			
B 機◎巨◎ 85세	A A		破
계04~13命			경54~63疾
貪	陽陰◎	武府 刑	同◎
임14~23兄	계24~33夫	임34~43子	신44~53財
	C	D	

◎재백을 논하자면 기묘로써 사령司令하며 육내궁에 들어가면 득재得財를 주하고 다시 육음六陰인가 육양六陽인가에 따라 많고 적음을 논한다(육음이어야 득재가 많다). 권權으로 하자면 권모權謀가 되며(즉 어떻게 득재할 수 있는가하는 권모權謀), 록祿으로 논하자면 득재하는 행업行業 혹은 방향方向이다. 과科로서는 누세累世의 과보果報를 얻을 수 있는가 여부를 보아야 한다.

예: 당세當世에 사회 책임을 떠맡거나 혹은 비용을 지출하면 곧 내세來世에는 능히 득재得財하고 반대이면 그렇지 않다.

◎관록을 논하자면(사업, 학업운을 포함) 권權으로써 사령司令하며(개창開創, 장권掌權, 승진, 전문기술 등을 포함), 대관大官의 화권이 본관本官, 본명本命, 본부本父를 비추면 길흉함을 주한다. 한편 대관大官 자화권(시동자화권)은 새로운 국면을 개창하거나 전문기술을 얻어 발전한다. 기묘로써는 진퇴進退를 판독하며(즉 득권得權, 장권掌權하는 시간점을 논한다), 게다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시간점이다. 이때 록祿, 과科는 논할 필요가 없다.

◎만일 구학求學, 시험운을 논하자면 곧 관록의 록, 과의 상象으로써 길흉을 논단한다.

(a)일정 시한 내의 학업운(예: 고등학교 3년). 록祿을 위주로 하고 과科를 보조로 한다.

(b)특정 시험(예: 대학 학력고사), 과科를 위주로 하고 록祿을 보조로 한다.

(c)록祿, 과科가 부관夫官, 부질父疾, 명천命遷에 들어가면 길吉함을 주한다.

1. 명命: 명주命主 기수氣數의 본질을 주한다. 운運: 명주命主 기수氣數의 시간 상의 기복을 살핀다.
2. 본명에 생년기가 앓을 때 육내궁이면 길吉함을 주한다.
3. 본재本財에 생년권이 앓으면 육양궁의 삼합위이다(귀격貴格 중의 귀격이다).
4. 본부本夫에 생년록이 앓으면 역시 육양궁六陽宮이며 본관本官을 비춘다.
5. 본명本命에 생년과가 앓으면 육양궁의 삼합위이다(귀격 중의 귀격이다).

6. 본명 명궁이 얻은 생년과기는 사고가 비교적 철저하고 세밀하며 샐러리맨 족이라는 뜻이며, 그중 천기화과는 사고가 민첩하고 풍도風度Style가 좋다는 뜻이다. 반면 거문화기는 언어가 완만한 편이라는 뜻이고 또한 자화권을 만나면 곧 말씀이 단단하고 날카로우며 설득력과 공신력公信力을 갖추을 주한다.

7. 본부本夫에 생년록이 앓고 자화과를 만나 본관本官을 비추므로 학업 운이 좋음을 주한다.

8. 24~33대운, 대명(本夫)이 생년록+자화과의 상을 얻으므로 라인來因을 합해 관록을 풀이하면 곧 이번 10년 안에 사업 운이 좋음을 주하고 록祿, 과科를 얻음은 일편一片의 길상吉祥한 기氣이다.

9. 24~33대운, 대관이 자화권을 만나 사업에 변화가 있음을 주하고 새로운 국면을 개창함을 주하며 권한을 장악하거나 혹은 전문기술을 얻어 펼친다. 응수應數는 사해巳亥 혹은 축미丑未의 궁이며, 유년流年은 27(酉宮), 29(亥宮)세 혹은 33세(卯宮)이다. 실제 사정은 27세에 민정국民政部 국장에 임명되었다.

역주)묘유卯酉에는 대명大命 계간쫓干的 화권이 있다.

10. 34~43대운, 대관大官이 시동자화권의 상을 얻어 곧 응수하는 유년은 38(申), 39(酉), 40(戌), 41(亥)세이다.

역주)38세 무신戊申 유년은 유년 태음화권이 본관本官에 떨어진다.

11. 44~53대운, 대명(本財)에 생년권이 앓으므로 곧 대관자화권이 “권입權入”이 되어 관운官運이 형통함을 주하여 권세가 대단하고, 다시 생년과, 기를 만나 삼상성일三象成一 인사물설人事物說을 구성해서 성국히므로 곧 대관 권입權入의 현상이 필연 발생한다. 별도로 대명화권인 태양이 본관을 비추므로 역시 길吉함을 주한다.

12. 64~73대운, 대관에 생년록이 앓고 자화과를 만난다. 아울러 대관화권이 본명에 들어가 대명을 비추므로 곧 |-관-| + 본명 = 대관화권 + 자화권 + © + ㉔이고, 해상解象하자면 사업운이 좋아서 권한을 장악하지만 단 제諸 사업이 지연되기 쉽다.

13. 84~93대운, 대명大命이 “록출祿出”을 이루므로 곧 89세에는 주의하여야 하며,

미未, 신申의 두 궁에서 모두 시동자화록이 일어나므로 곧 록출한 기氣가 종종 신궁申宮에 납취納聚한다.

14. 74~83과 84~93의 두 대운의 대명大命이 모두 시동자화록의 상을 얻으므로 곧 두 궁을 합하여 하나의 대태극大太極으로 논술을 진행한다. 74~83대운, 대명(본노)과 대형(본관)은 곧 변성되어 |-명- + 본관 = 록출, 아울러 |-형- + 본노 = 록출. 84~93대운, 대명(본관)과 大父(본노)는 곧 변화되어 |-명- + 본노 = 록출. 아울러 |-父- + 본관 = 록출. 이는 시동자화록의 상이므로 따라서 부단不斷히 연기緣起하는 록출祿出이 된다.

15. 수원壽元을 논하자면 가능한 것은 89(未) 혹은 90(申)세인데, 命과 奴의 교역交易하는 흉상凶象을 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대질大疾에서는 흉상凶象이 보이지 않으므로 곧 자연적인 내부 기관器官의 쇠갈衰竭일 가능성이 있다.

16. 64~73대운, 대재 자화권이며 대궁인 대복(본재)에 생년권이 앉아 권출權出이 된다. 금전적 지출을 대표한다.(총통 후보로 나섰기 때문. 낙선하였다.)

역주)복덕이 육내궁이기는 하지만 재복선에서 재백이 아니라 복덕에 선천화권이 있으면 權出이라 본다. 재백에 좀 더 확실한 육내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福을 누리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權入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복福을 누리기 위해 재백의 소모가 필요할 뿐이다.

	-命- -父- 42~51 官	-兄- -命- 32~41 田	
D		D	

◎ 32~41대운, |-명- + 본관 = 기운, 직업에서 문제가 나타남을 주한다. 다시 大父(本관)을 풀이하면 곧 문서방면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 42~51대운, |-명- + 本田 = 기운, 가운家運이 좋지 않음을 주한다. 다시 大兄(本田)을 풀이하면 곧 이는 직장 동료가 조성造成한 문제이다.

역주)두 대한이 자화기로 천련이 되어, 가령 32~41대운에서 자궁子宮이 대한명궁이지만, 이웃궁인 축궁을 중심으로 문제가 일어나므로 마치 축궁이 대한명궁처럼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42~51대운에서는 축궁丑宮이 대한명궁이지만, 자궁이 대한명궁인

宋楚瑜 壬午年 1. 30 酉時

A	機	紫 [ⓑ]		破
	乙065~15命	丙16~25父	丁26~35福	戊36~45田
	殺左 [ⓐ]			
	甲兄			
	梁 [ⓐ] 陽 70세			己46~55官 廉府右 53세
	癸夫			庚56~65奴
D	武 [ⓐ] 相	巨同 曲昌	貪	陰
	壬子	癸86~95財	壬76~85疾	辛66~75遷

1. 본부本夫에 생년록이 얹아 인연姻緣(혼인 연분)이 일찍이 일어나고 부처夫妻 감정感情(애정)이 좋다.

역주)중국의 구세대는 '애정愛情'과 같은 표현은 너무 노골적이라 생각해서 쓰지 않으며 보통 '감정感情'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프랑스 혁명의 3대 구호인 '자유, 평등, 사랑'을 '자유, 평등, 박애'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던 시절이 있었다.

2. 본자本子에 생년기가 얹고 자화기를 만나 자녀의 성취가 나와 같지 않음을 주하며 자녀와의 연분이 박薄하다.

3. 본형本兄에 생년과가 얹고 자화록을 만나 형제 친구와의 대대對待relationship가 좋고 인연人緣이 있음을 주초한다.

4. 본부本父에 생년권이 얹고 대궁인 라인來因 질역에 시동자화권을 만나 "권출權出"을 형성해서 성격이 아주 급하다.

5. 본명이 자화록, 시동자화기를 얻어 록기 쌍상을 이루므로, 일생 만나는 사건에서 개성個性에 있어 기복이 크고 변화가 큼을 주초한다.

6. 본관本官에서 시동자화과를 얻고 대궁에서 생년록을 만나 평생 사업, 직업운이 온통 길상吉祥하다.

7. 46~55대운, 대관大官 자화권은 변화를 주초하는데, 장권掌權하는 변화이며, 축궁 丑宮에 응하거나 혹은 생년권을 법상하면 오궁午宮이다. 곧 응하는 유년은 46(묘), 47(진), 48(사), 49(오), 50(미), 52(유), 53(술), 54(해), 55(자)이며, 52세에 성쥬 주석이 되었고 53세에 민선民選 성장省長에 올랐다.

역주)자화自化는 두수의 용신用神으로서 변화를 주하므로 유년에 사건이 발생한다. 대한관록 궁이 자화권으로 권한을 장악하는 대한으로 어떤 자화自化라도 사건의 발생이나 신분의 변

화를 이룰 수 있으나, 51세(申宮)은 대궁이 쌍화기이므로 불가하다.

8. 56~65대운, 대명 화권이 대관에 들어가 생년기, 자화기를 만나 성국成局한다(선천상수조는 權忌組이다). 이 象數가 평형을 이루려면 곧 반드시 생년권이 떨어진 궁위 61세(오궁) 혹은 대명 화권이 떨어진 57세(인궁), 63세(신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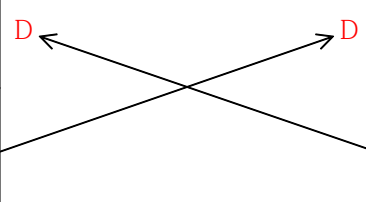
9. 66~75대운, 대관 화권이 축궁에 들어가 자화권을 만난다. 같은 쫓干이고 게다가 지축인묘의 네 궁은 곧 “퇴마권退馬權”을 형성하고 이것이 성국하여 장권掌權의 기氣가 大命까지 물러나서 장권掌權을 주한다.

10. 66~75대운, 대관 화기가 본질에 들어가 시동자화권을 만나 성국한다. 따라서 解象하자면 大官 + 大父 = 忌. 명주 본인 혹은 know-how에 의지함을 주초한다.

11. 本子에 무곡 생년기+자화기로서 좋지 않은 象數이다. 반드시 大命, 대질, 대천의 관직官職에 중첩해서 배합하여야만 비로소 길흉을 논할 수 있다. 연후에 비로소 忌出을 살피며 따라나가는 생년록生年祿이 얻은 象數를 살핀다.

역주이 명조는 자화가 상당히 많아서 불안정하다. 다만 명궁이 사궁 천기로서 오히려 변화에 능통하고 잘 대처하는 조건을 갖춘다. 중요한 것은 부모궁이 선천자미화권이었다가 대궁에서 자화권이 날아와서 권權이 강하게 드러나는 명조이고 게다가 선천상수조가 권기조이다. 또한 제1대한 복덕궁에 유년문곡이 거문을 만나고 관록궁에서 천량을 만나 깊은 사고思考와 독자적 견해가 형성된다. 초년初年에 流昌, 流曲이 만나는 별은 학업에 있어 성취를 이룸과 동시에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

2011/11/11

丁酉年 11月 酉時			
武破 -命- 을24~33복덕 同㉔	陽 병34~43전택	府 刑 정44~53관록	機◎陰㉑ 무54~63노복 紫貪 기64~73천이 트㉑
-夫- 계04~13명궁	D ← → D 		
C 左 -子- 임 형제	廉破 昌曲 계 부처	梁 右 임 자녀	相 姚 신 재백
A			

1. 선천상수조는 권기조權忌組이다. 일평생의 기회가 빨리 들어오지만 빨리 나가기도 한다. 하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 논술하는 중점이 만일 혼인, 도화桃花라면 곧 먼저 명명의 본질을 살펴야 하며 즉 명궁에서 얻은 것, 생년사화를 살펴야 한다.

3. 본질本疾에 생년기가 얹어 성격을 논하자면 곧이곧대로 솔직한 사람이다. 라인來因인 관록과 합해서 논하면 곧 직장에서 거짓없이 직언直言을 한다.

4. 본노本奴에 생년록, 과가 얹어 사귀는 친구 중에서 여성(태음록)은 물질면에서 나쁘지 않고 한편 남성(천기과)이면 곧 풍도風度manner가 좋다. 다만 다시 자화권, 기를 만나 록권과기가 모두 모여 사상귀일원四象歸一元을 구성하므로 혼돈, 복잡을 주도하며, 해상解象하자면 사귀는 친구가 표면상으로는 기품이 있지만 몰래 하는 행위는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르고 아주 복잡하다.

◎임의의 한 궁위가 태음생년록을 얻고 천기생년과가 있는 상수象數가 모두 주도하는 것은,

여명: 내가 사귀는 이성친구가 대개 풍도風度manner가 좋다. (天機 科)

남명: 내가 사귀는 이성친구가 생활 물질 면에서 대개 나쁘지 않다.(太陰 祿)

5. 본명 명궁이 무주성이며 시동자화기 상을 얻어 명주命主의 개성이 침잠沈潛하고 자기의 감정을 사귀는 사람이 알아차리도록 드러내는 일이 어렵다. 게다가 시종 재능이 있어도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불순不順한 감수感受가 있다. 시동자화기는 그 화기化忌의 방향이 유궁酉宮에 사입射入되어 자화권을 만나 선천상수조인 권기조權忌組와 같으므로 성국成局임을 나타낸다..일생에서 만나는 기회가 미리 예측할 수 없음을 주도한다.

6. 본부本夫가 무생년無生年 무자화無自化이지만, 단 화기가 본명을 충해서 부처夫妻의 인분이 박薄하고 결혼생활에 차질이 생기기 쉽다. 다시 본촌本遷 지화권을 만나 성국임을 나타내므로 즉 부처夫妻가 박연薄緣인 상象이 필연 발생한다. 해상解象하자면 부처夫妻 개념의 차이가 크고 결혼생활이 놀라움이 가득하나 하늘도 어쩔 수 없다.

◎인위人位の 화기기 인위人位를 충하면 두 개 人位の 사람이 연박緣薄함을 주한다.

◎과거법過忌法으로 해석하면, (선천)기륵를 통과하기 전에 어떠한 큰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기륵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비가 적게 내리거나 혹은 비가 그치지만 다만 땅은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이다.

(선천화기를 만나는 대하는 14~23대한이다).

7. 24~33대운, 과거법過忌法에 의거해서 보면 응당 31세(大夫) 9월(술궁, 법상 생년기) 이후에 결혼해야 비로소 권기조가 동반하는 흉상凶象을 피할 수 있다.

(사실은 27세에 결혼하였다).

8. 본부本夫 화권이 본질에 들어가 시동자화기를 만나고 다시 생년기를 만나 즉,

$$\text{本夫} + \text{本疾} = \text{㉞} + \text{자화기} + \text{㉠}$$

혼인의 象. 成局, 긍정적 有를 표시

9. 本夫 + 本奴 = ㉞ + 자화권 + ㉠,

마찬가지로 혼인의 象을 나타낸다. 즉 천기생년과 + 자화기는 배우자의 상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과기科忌는 일반적 기능공을 주하고 천기天機는 오토바이를 주하며, 따라서 풀이하면 오토바이 수리 숙련공이다.

◎ IQ의 높고 낮음을 논하자면 本命(本父)에서 禄祿, 과科的 象象을 얻으면 선천적으로 총명함을 주한다. 한편 본관화 禄祿, 과科的 象이 本命(本父)에 들어가면 후천 학습능력이 강함을 주한다.

10. 24~33대운, 大夫(본명)에서 시동자화기 상을 만나고 自化가 있어 변화가 있음을 주한다. 화기가 대궁에 사입射入되고 자화권을 만나 성국임을 나타내고 25(酉), 26(戌), 27(亥), 28(子), 31(卯), 32(辰), 33(巳)세에 응한다.

11. 本夫, 大夫의 공간이 모두 계간이고 모두 화기가 본명을 총해서 흥함을 주한다. 忌는 果(결과)이고 禄은 因(원인)이며 權은 매개媒介로서 시간과 物相을 판단할 수 있다(사실: 26세에 남편이 만나고 27세에 속도위반 결혼을 하였다).

역주) 거문㉠은 본인이고 천동㉞은 남편이다. 계간의 禄인 파군이 비추는 27세(해궁)에 결혼한다. 또한 해궁은 재백궁으로서 부처의 부처궁인 대대위對待位이다.

12. 24~33대운, 大夫 계묘궁에서 시동자화기 상을 얻는다. 그 계간 화록이 巳宮에 들어가고 화기는 酉宮에 들어가 巳酉丑 삼합의 2개를 얻으므로 곧 길흥의 시간점은 응당 삼합의 교차처(丑宮, 29세)에 있으므로 이것에 의거해서 象象을 풀이한다.

◎만일 飛宮의 禄과 기가 삼합궁의 2곳에 떨어지면 곧 길흥의 시간점은 삼합의 교차처에 있으므로 이것에 의거해서 象象을 풀이한다.

◎만일 태양, 태음이 삼합궁의 2곳에 나뉘어 떨어지면 곧 부부가 말다툼하고 쟁론하는 일이거나, 곧 왕왕 삼합교차처의 궁직宮職이 맞은 일으므로 이것에 의거해서 星性을 풀이한다.

13. 24~33대운, 大夫, 本夫의 화권이 모두 본질에 들어가 먼저 신체상의 접촉으로 인한 인연姻緣임을 주한다.

◎星性으로 논명하자면, 이는 星이 떨어진 궁위에 의거하지 않으며, 주요한 것은 성신의 배열조합을 보아야 한다.

◎성신은 단지 命宮에 앉아야 비로소 개성을 논할 수 있다. 즉 대질 임간화과가 떨어

어진 궁위를 찾아야 하며

14. 23~33대운, 대질 자화록으로서 아들을 낳음을 주한다.(천량) 생년록을 법상하면 생년록이 떨어진 궁위 申宮이 동시에 생년과가 있으므로 곧 반드시 상수象數를 평형 平衡시켜야 한다. 즉 대질 임간화과가 떨어진 궁위를 찾으면 좌보화과가 寅宮에 있으며, 응수하는 궁위는 子, 寅, 申宮, 즉 27, 28세에 아들을 낳는다.

15. 24~33대운, 대질(본자) 천량 자화록이므로 아들을 낳음을 주한다(生 2子).

◎궁직중첩이 교역을 산생하는 여부與否가 비로소 취상取象하거나 사상捨象하는 요점이다.

역주) 천량에 동궁하는 우필은 수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16. 동궁 혹은 본대궁에 쌍상이 있으므로 곧 반드시 상수象數를 평형시켜야 한다.

17. 24~33대운, 大子(本兄) 자화과로서, 子 + 本子 = 祿(도화를 나타냄)이고, 자화록을 만나 성국임을 나타낸다.

24~33대운, 子 + 疾 = 祿(生子를 표시, 천량화록은 아들을 낳음을 주함)이고, 자화록을 만나 成局임을 나타내며 또한 퇴마록退馬祿을 형성해서 응하는 시기는 戌宮에 있다.

18. 本子화과가 本兄에 이르며(이사위견二四爲肩은 도화를 주함) 자화과를 만나 성국한다. 祿科의 도화는 寅申 혹은 子宮에 응하며, 이는 유정有情 유의有義한 도화이다. 대상은 종종 띠가 쥐이거나 혹은 호랑이인 사람이다(七星訣).

◎영성鈴星 좌명자는 특별히 음악세표가 있어서 종종 합창단원이다.

◎木三局 인은 명궁이 어디 떨어지거나 관계없이 말하는 것이 괴만말각拐彎抹角, 즉 빙빙 돌려 에둘러 말하지 않는다.

◎女命이 칠살 단성이 독좌하면 사진발 잘 받는 camera-face로서 잘 생긴 얼굴이며 男命 역시 같다.

신축년 8월 축시

	A	B	
B	巨 ^㉔ 曲 ^㉓	廉相	梁
	계36~45자녀	갑26~35부처	을16~25형제
	貪 刑 -명-	D A	D
	임46~55재백		D
	陰 右 51세 -명-	A	D
	신56~65질액	A	D
	紫府	機	破
	경66~75천이	신76~85노복	경 관록
			殺 姚 병06~15명궁 同 昌 ^㉓ 정 부모 武 -질- 무 복덕 陽 ^㉔ 左 기 전택
			B

1. 라인공간來困宮干(신축)이 2개이며, 본질本疾인 묘궁과 본노本奴인 축궁으로서 곧 본질이 주초가 되고 본노는 보輔가 된다.
2. 자전선에 생년록, 과, 권이 앉아 일평생 가장 중요한 궁위이다.
3. 본부本父에 생년기가 앉아 서비스업에 종사함을 주하고 자화권을 만나 전변轉變의 상상을 띠며 생년권을 법상하면 곧 자전선 상에 응한다.
4. 자전선이 생년록, 과, 권을 얻어 삼상성일물三象成一物을 구성해서 성국成局임을 나타내고 36~45가 되며, 혹은 매개가 기궤이므로 56~65대운이 된다.
5. 36~45대운, 생년기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고 게다가 대재大財 화기가 본질本疾을 총해서 큰 파재破財를 주한다. 다만 본부本父에 자화권이 있고 대천大遷에 생년권이 앉아 곧 본부本父가 “권입權入”의 상상을 얻어 길침함을 주한다. 따라서 36~45대운, 그저 걸음으로만 풍광風光임을 주하며 득실은 아주 적다(한바탕 실속 없이 헛수고만 한다).
6. 56~65대운, 대운 재복선에 생년록, 과, 권이 앉는다. 대재大財의 시동자화기가 본전本田에 앉아 득득을 주하며 득재得財가 많다. 화기의 방향이 사궁巳宮으로 사입射入되어 자화권을 만나고 다시 생년록, 과를 만난다. 사상귀일원四象歸一元을 구성하여 성국成局임을 주하며, 혼돈과 복잡함을 주한다. 대복大福이 본자本子이므로 합작을 논할 수 있으나 곧 결재일이 명확하지 않음을 주하고 합작인이 원망을 한다.
7. 56~65대운, 대관이 시동자화록, 자화권의 상을 얻어 생년록, 권을 법상하면 곧 자전선 합작위에 떨어지며, 록, 권의 상은 장권掌權, 다원화된 경영, 풍광風光(품격品格dignity)을 주하고 게다가 득득을 주한다.

8、56~65대운, 대명(본질)에 시동자화기이고 대궁에서 생년기를 만나 “기출忌出”을 형성해서 신체 건강에 문제가 나타남을 주하며, 신간辛干 화록이 본자本子에 들어가 자화自化는 “기수록주忌隨祿走”여서 곧 신체 건강에 문제가 나타남은 합작인이 원망을 한 까닭이다.

9、56~65대운, 대질이 시동자화록의 상을 얻으며 자화自化는 기수록주임에 의거하면 무간戊干 화기가 본노本奴(四正位)에 들어가 변화를 주하며(대질大疾 화기가 그 四正位에 들어가면 모두 변화를 주한다), 생년록을 법상하면 거문화록이 사궁巳宮에 있으며 거문, 사궁巳宮은 모두 위脘를 주하고 록祿은 확산을 나타내므로 곧 위가 부풀어 오르는 증세이다.

역주)오운육기에서 사궁巳宮은 심포心包를 주한다. 또한 사해巳亥는 풍목風木을 주하므로 위脘나 심장근육을 비롯한 내장 평활근에 풍목風木의 기운이 들어 마비나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거문巨門은 소화기관 등의 평활근을 주한다. 한편 골격근을 주관하는 별은 파군破軍이다.

10、위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하여 합작 사업을 논하면 득得함을 주하며 길상吉象이나, 단 합작인이 원망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고 신체건강에 있어서 위에 가스가 차서 팽창하는 문제로서 상수象數가 평형을 이룬다. 별도로 대질大疾 무오戊午의 우필화과右弼化科가 대명大命(본질本疾)에 들어가 자화기自化忌를 만나는데, 이는 사궁巳宮에 있는 생년과生年科로써 풀이하면 대질大疾의 자화록自化祿인 상象은 이곳에서도 역시 신체건강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에 대응한다.

11、46~55대운大運, 대재화기大財化忌가 본부本父에 들어가고, 한편 대재화과大財化科는 본질本疾에 들어가 자화기自化忌를 만나는데, 모두 파재破財를 주하며 응應하는 것은 51세(묘궁) 혹은 53세(사궁)이고 대파재大破財를 주한다.

12、거문생년록巨門生年祿+문곡생년과文曲生年科는 행업行業을 논하면 곧 토목업土木業에 더해서 잘 꾸민 사물을 주관하며 실내설계室內設計를 주한다. 자전선子田線에 앉으면 곧 합작사업合夥事業이 실내설계爲室內設計임을 나타낸다.

13、46~55대운大運, 대천大遷(본복本福)에서 시동자화록상視同自化祿象을 얻어 길吉함을 주하는데, 화록化祿이 대명大命에 사입射入되기 때문이다. 응應하는 것은 52세(묘진궁卯辰宮이 연속으로 시동자화기視同自化忌여서 화록化祿의 기氣가 진궁辰宮에 모이는 까닭임.) 혹은 53세(법상法象 생년록生年祿)

14、56~65대운大運, 대명大命(본재本財)가 시동자화기상視同自化忌象을 얻고 대천大遷에 생년기生年忌가 앉아 곧 대명大命이 기입忌入이 되므로 득得함을 주하여 길吉하다. 별도로 대부大父와 대재大財 역시 “기입忌入”의 상象을 얻어 득재得財를 주한다.

역주)대한명천선에 선천화기가 없으므로 모든 자화기는 기입론入이 된다.

15、46~55대운大運, 대자大子의 신간화록辛干化祿, 권權, 과과가 자전선子田線에 들어가 합작운승夥運이 좋음을 주한다. 칠성결七星訣에 의거하면, 자전子田이 사해 궁巳亥宮이므로 곧 합작인승夥人의 띠가 밤, 돼지에 속하고, 별도로 발사궁發射宮은 대자大子로서 축궁丑宮이며, 따라서 소띠 역시 가하다.

16、46~55대운大運, 대전大田(본형本兄)은 집을 매입함을 주한다. 자화권상自化權象과 시동자화록視同自化祿(상象2 수數2)을 얻어서 곧 두 채 이상의 집을 매입한다. 생년록生年祿, 권權을 법상하면 應하는 것은 53세 자전선子田線이며 곧 사무실을 매입함을 주한다. 별도로 55세, 대전大田(본형本兄)은 자기가 거주할 집을 매입한다.

주註: 형제兄弟는 전택田宅의 재백財帛이므로 곧 자전田宅과 형노兄奴가 교역交易을 해서 집을 매입함을 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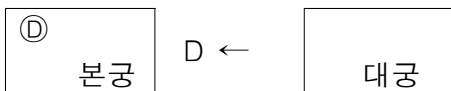
질액疾厄은 전택田宅의 관록官祿이므로 곧 전택田宅과 부질父疾이 교역交易을 해서 집을 매도함을 주한다.

17、본명本命 명궁命宮에 칠살七殺, 천요天姚가 앉는다. 칠살七殺은 잘생긴(잘 노는) 남자를 주하며 한편 천요天姚는 조숙早熟함을 주하므로 수다를 떨고 노닥거림을 주한다.

⊙전형적典型的 기출론出



혹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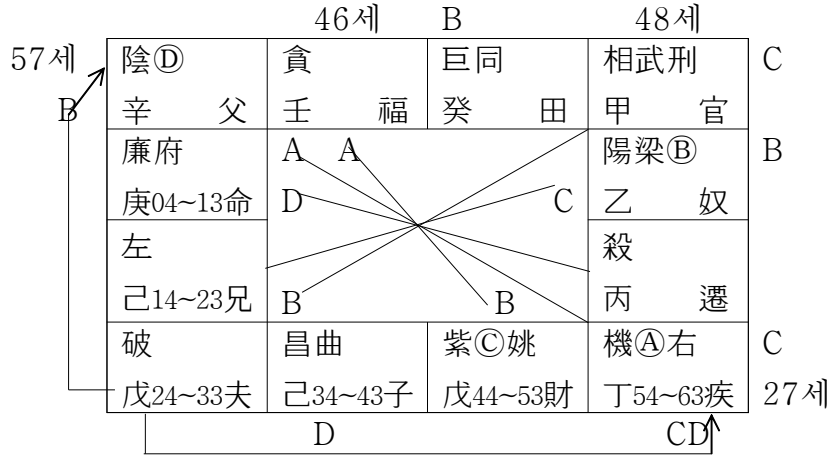


역주)본 명조에서는 대궁에 선천화기가 있고 본궁에서 시동자화기가 들어가므로 전형적 기출론出과는 방향이 반대이다.

가령 대궁對宮이 복福, 천遷, 부夫이고 한편 본궁本宮이 라인궁來因宮이면, 곧 “역수기逆水忌”가 되므로 정재正財가 아닌 소득所得인 재財일 수 있음을 주하며, 반면에 만일 정재正財이면 곧 편偏, 왜췌, 사邪가 따른다. 종종 전재錢財(특별히 오술五術의 재財)를 벌어들이는 것이 금세今世의 정수定數(정해진 운수)로써 곧 천수天壽를 다 누린다.

2011/11/12

을유년乙酉年 12월月 유시酉時 남명男命



1. 결혼년結婚年을 논하자면, 본부本夫가 무생년無生年, 무사화無四化이며, 따라서 본부本夫의 비궁사화飛宮四化를 날려 드러난 상象을 본다. 본부本夫 무간戊干에서 화化한 과기科忌의 쌍상雙象이 본질本疾에 들어가 성국成局임을 나타내고, 24~33 혹은 54~63대운大運에 應應하며, 매개媒介가 되는 것은 록祿이고, 무간화록戊干化祿은 본복本福에 있으므로, 곧 44~53대운大運에 應한다. 달리, 만일 대부大夫로 논하면, 곧 34~43대운大運 역시 可可하다.

2. 별도로, 본부本夫 무간화권戊干化權이 본부本父에 들어간다; 화化한 과기科忌는 본질本疾에 들어가, 삼상三象이 한 인사물人事物을 이루는 설說을 구성하며 곧 24~33대운大運과 54~63대운大運의 확률機率在 높은 편이다(사실 27세 결혼結婚)

3. 24~33대운大運, 대부大夫는 자궁子宮에서 시동자화록得視同自化의 상象을 보므로, 시간時間을 논단論斷할 수 있으며, 오궁午宮이 유월流月 혹은 유월流月의 부夫이다. (사실 27세歲12월月 결혼結婚)

역주)갑신궁이 12월이다. 따라서 오궁午宮은 유월流月인 12월의 부夫가 된다.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의 배열이 만일 동궁同宮 혹은 본대궁本對宮이면 곧 실령삼합三合혹은 인궁鄰宮의 자화류상自化類象이 강하게 드러나더라도 여전히 동궁同宮, 본대궁本對宮에서 얻은 조합이 우선이다.

예例: 생년록기生年祿忌가 본대궁本對宮에 있고 한편 기忌의 삼합방三合方에 “권출權出”이 있다. 즉 선천상수조先天象數組는 여전히 록기조祿忌組이다.

4. 본관本官에서 자화과自化科, 시동자화권상視同自化權象을 얻었다. 자화상自化象이 상象의 用用이며, 따라서 금생금세今生今世의 노력努力으로 권과權科를 얻음을 주하므로 일편一片의 길상吉祥한 상象이다.

5.사업직업운事業工作運을 논하자면, 본관本官=자화과+시동자화권이고 본관本官+본노本奴=비궁 기묘+자화권+㊸(생년권); 본관本官+본명本命=비궁 록祿이므로 곧 평생 사업직업운事業工作運이 순조롭게 풀림을 주한다.

6.본명本命+본관本官=비궁 권權+시동자화권+자화과(이것이 후천後天의 운세運勢임), 명주命主가 평생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주하며 반드시 성국成局이 일어난다.

7.직업職業: 직업군인職業軍人, 55세에 산명算命하면, 상장上將으로 승진 가능한가?

44~53대운大運 卜官卜 + 본관本官 = 비궁 권權 + 향심B + 이심C

무곡화권武曲化權에다가 대궁對宮에 파군破軍이 있어서, 양자兩者 모두 군직軍職에 유리하므로, 곧 성국成局임을 주하며, 승진升遷이 있다. 應하는 것은 44, 48세 혹은 생년生年을 법상하면, 곧 46, 49세 역시 상象이 있다.

주註: 46세, 사참과장師參謀長, 소장小將으로 승진(화과化科이므로, 따라서 실권實權을 장악하지는 못한다.)

48세, 사장師長으로 승진(화권化權이므로, 따라서 실권實權을 장악한다)

52세, 중장中將으로 승진, 육총부참모陸總部參謀(화과化科이므로 실권實權을 장악하지 못함)

8. 54~63대운大運, 대관大官 기간己干에서 시동자화과상視同自化科象을 얻으며, 화과化科 방향方向이 대궁對宮에 사입射入되어, 자화권自化權+생년권生年權을 만나 성국成局임을 나타내며, 應하는 것은 55 혹은 57세이다.

주註: 55세에 상장上將으로 승진 여부를 물어오므로, 노사老師가 말하기를 57세에 만일 상장上將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곧 퇴역退役한다고 판단하는데, 생년권生年權이 본노本奴에 있어 육외궁六外宮에 속해서 상장上將으로 승진할 확률은 낮으며, 57세에 퇴역退役해서 퇴보회주위退輔會主委Chairman로 전임轉任하였다.

9. 54~63 대운大運, 대관화기大官化忌가 본자本子에 들어가 자화기自化忌를 만나서 성국成局임을 나타낸다. 본자本子が 태음六陰이고 육외궁六外宮이며, 따라서 이동異動이 있고 이동변차異動變差의 상象을 주하며, 應하는 것은 59세, 혹은 생년기를 법상法象하면 곧 應하는 것은 57세 혹은 63세이다.

10. 위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하면, 57세에 퇴역하지만 여전히 관직官職으로 전임한다.

㉠단지 선천운세先天運勢(생년사화生年四化)의 복택福澤이 있어야 비로소 능히 상장上將을 맡는 것에 응하는 명命이다.

경인년庚寅年 허노사許老師

염탐 姚	巨 右	相	同①梁 좌보
신82~91 재백 陰◎	임 자녀 C	계 부처	갑 형제 武②殺 羊
庚72~81 질액 府	중점		을02~11 명궁 陽③
기62~71 천이 -명-	A		병12~21 부모
戊52~61 노복	자파 昌曲魁刑 D	機 35세 D	정22~31 복덕

- 1.본형本兄에 생년기生年忌가 있고, 라인來因과 합해서 질액疾厄을 풀이하면, 곧 명주命主 형제兄弟의 신체身體가 좋지 않음을 주한다.
2. 62~71대운大運, 생태공간生態空間에서 생년권기상生年權忌象을 얻고, 마찬가지로 기근기干的 42~51대운大運(그 생태공간生態空間은 생년사화상生年四化象을 얻지 못함.)과 서로 비교하면, 좋은 점이 많다
- 3.본명本命의 생태공간生態空間은, 2~11, 12~21, 과 72~81대운大運에, 운세運勢가 좋음을 주한다.
- 4.생년록生年祿이 본부本父에 있고, 생년과生年科는 본질本疾에 있어, 곧 장수長壽를 주한다.
- 5.본대궁本對宮에 생년록生年祿, 과科의 조합組合을 형성해서, 록祿, 과科의 재財를 얻음을 주한다.; 문교文教의 재財가 형성形成된다.
- 6.본부本夫에서 시동자화록상視同自化祿象을 얻어, 곧 본부本夫가 대명大命으로 바뀌거나 혹은 대대大財로 바뀌면 결혼結婚한다. 혹은 생년록生年祿을 법상하면, 술궁戌宮이 대명大命이 되거나 혹은 대부大夫가 되면 결혼結婚한다. 응수應數하는 궁위宮位는 축미술丑未戌이다(사실事實: 32~41대운大運 결혼結婚)
- 7.결혼結婚의 유년流年 정하기①본부本夫로부터 얻는 축미술궁丑未戌宮으로 결정하거나, 혹은 32~41대운大運 대부大夫병간화권丙干化權이 본전本田에 들어가, 시동자화과視同自化科를 만나 성국成局임을 나타낸다, 다시 자화기自化忌를 만나, 삼상三象 한 인사물설人事物說을 구성하며 현상現象이 반드시 발생發生함을 대표한다.

응應하는 것은 술戌 혹 자궁子宮, 32 혹은 35세(사실事實: 35세 결혼) 유월流月은 곧 2 혹은 8월이다.

8.본부本夫에 시동자화록視同自化祿이고, 화록化祿의 방향方向이 축궁丑宮으로 사입射入해 들어가고 자화기自化忌를 만나 성국成局임을 나타낸다. 록기祿忌는 기복起伏이 크고 변화가 큼을 대표하고 종종 쌍기雙忌가 되며. 응應하는 것은 42~51 혹은 62~71대운大運, 혹은 생년기를 법상하면 52~41대운大運이다.

9.육친궁六親宮이 자화상自化象을 얻으면, 곧 해당 궁위의 사람은 반드시 직업이 있다. 본부本夫 시동자화록視同自化祿이면, 배우자가 혼전婚前이나 혼후婚後를 막론하고, 모두 직업工作이 있다. 생년록을 법상하면 본부本父에 있어서, 배우자가 공교계公敎界에서 월급장으로 일한다.

⊙시동자회록視同自化祿은, 부단不斷하게 연기緣起함을 주하며, 기氣를 납취納聚하게 되고, 따라서 종종 무중생유無中生有하고; 한편 자화상自化象은, 곧 종종 유중화무有中化無하지만. 그러니 모두 비절대非絕對와 같다고 논한다.

역주)無에서 有가 나타남은 절대 無에서는 불가하다. 태극에서 양의가 나타남은 본래 태극에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10.본질本疾에 생년과生年科가 얹고 자화과自化科를 만난다; 본부本父에는 생년록生年祿이 얹는다. 만일 직업별行業別로 나누자면, 곧 태음은 미학美學화학化學에 속하고, 명리命理의 질質은 불변不變이나. 태양생년록太陽生年祿은 변화가 있다. 해상解象하면 공교계公敎界에 종사하며 직업行業의 변동變動이 있어서 가령. 화학化學 명리命理 해관海關등이며; 같은 이치로 대운의 변화를 논술할 수 있다.

⊙천기天機는 수연壽元을 판단하는 관건關鍵이다.

⊙논술論述의 중점重點은 '유생년유자화동류상有生年有自化同類象'에 있으며 궁위宮位 위주爲主이다; 대궁對宮에 생년상궁위生年象宮位가 있으면 대표하는 물상을 보조하며 따라서 이곳에서는 길흉吉凶을 논하지 않는다. 만일 이 상수象數가 부질선父疾線에 떨어졌다면, 곧 재궁財宮으로 풀이한다; 지전선子田線에 떨어지면 곧 합작畧을 논한다; 부질선에 떨어지면 곧 혼인婚姻 아니면 사업事業으로 풀이한다.

11. 위에서 서술한 것에 의거하면 12~21대운大運에는 명천선命遷線에 떨어지면 도화桃花나 사업事業으로 풀이한다. 22~31대운大運에는 형노선兄奴線에 떨어지면 도화花解로 풀이한다.

12. 42~51대운大運과 62~71대운大運의 비교比較

a. 42~51대운大運은 생년기生年忌를 지나지 않았다.

b. 42~51대운大運의 생태공간生態空間은 부관자전夫官子田이며 생년사화生年四化는 없다; 62~71대운大運의 생태공간生態空間은 명천형노命遷兄奴로서 생년권生

年權, 기륵의 상象을 얻는다.

c. 42~51대운大運, 대명大命이 자화기상自化忌象을 얻는다; 62~71대운大運, 대명大命이 시동자화록상視同自化祿象을 얻는다. 화록化祿의 기氣가 납취納聚되며, 무중생유無中生有를 포함한다. 본궁공직本命宮職을 합하면, 곧 대명大命(본전本遷)이 되며, 밖에 나가 재물을 얻지만 법에서 머리 나가지는 못한다. 본전이 육양궁六陽宮인 까닭이다.

d. 62~71대운大運, 대명大命이 '시동자화록상視同自化祿象'을 얻으며, 화록化祿의 방향方向이 대궁에 사입射入되어 무곡생년권武曲生年權을 만나고, 록권상祿權象을 얻어 선대를 이어 후대에 밝히며 역시 돈을 벌어야 한다.

e. 62~71大運, |-명-| + 본관 = 忌, 逢自化忌 主成局 因是文曲忌故爲異路功名 另亦表 |-명-| 忌沖→ 本夫, 逢自化忌 成局 應數在66 或 67才

f. 62~71대운大運, |-명-|+ 본재本財= 권權, 감敢이 돈을 번다는 것을 주하고, 전문기술로써 재물을 얻는다. |-명-| + 본형本兄 = 과科

형노선兄奴線은 역마선驛馬線이며, 외지에서 이름을 날린다는 뜻이다.

13. 선천상수조先天象數祖는 과기조科忌組이며 곧 대명大命에서 비출飛出한 과科와 기륵은 실제 존유存有하는 상象이다.

14. 대운大運의 득실得失을 논하자면, 진정한 중심重心은 대명大命이며, 대명大命이 이번 십년十年 대운大運의 체體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운大運 재관財官의 길흉득실吉凶得失은 대명大命으로부터 가부를 결정한다. 62~71대운大運, 대재大財 정간화기丁干化忌가 본자本子에 들어가 본전本田을 충한다. 즉 돈을 써서 자녀들을 도와 집을 산다.

14. 72~81대운大運, 대명大命(본질本疾)에 생년과生年科가 얹고 자화과를 만나 "과출科出"을 이룬다. 과출科出이나, 록출祿出인 명命은 질액의 교역과 수원壽元이 관련이 있다. 응하는 것은 75, 87세이다.. 자화인 까닭에 곧 왕왕 81세에 응한다.

-끝-

2024甲辰年.03.11

오류동에서 칠파별이 쓰다.

